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한라산(漢拏山)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한라산(漢拏山)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한라산(漢拏山)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 - Governing Province

목차
Contents

4 발간사

6 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한라산

14 제1장 한라산의 탄생

48 제2장 한라산의 생명

94 제3장 한라산 생활사

150 제4장 한라산 이야기

178 제5장 한라산의 오늘

228 부록

일러두기

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중 한라산을 주제로 220점을 선별해 수록한 도록이다.
2. 유물명, 저자(작가)명, 시대, 재질, 크기, 수집방법, 수집연도, 유물번호, 문화재 지정사항(국가보호종 포함) 순으로 기재하였다.
3. 여러 종류의 재질로 이루어진 유물은 주요 재질만 기술하였다.
4. 유물의 크기 단위는 cm이며, '세로×가로' 또는 '높이×폭×깊이' 순으로 적었다.
   그 외에 특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최대 단위(길이, 너비, 높이, (입)지름 등)를 적었고 여러 개일 경우 가장 큰 것의 크기를 표기하였다.
5. 자연사 유물의 경우 수집위치도 함께 기술하였다.
6. 고문헌 자료의 번역문은 부록(참고문헌)에 기재된 해당 문헌 번역서의 내용을 발췌·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발간사

1984년 개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과 자연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내 최초의 박물관입니다. 본래 지역의 풍속과 생활문화는 자연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를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제주의 가장 원초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이 개관 이래 가장 정진해온 분야는 소장품 수집과 관리입니다.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제주의 민속 문화와 자연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증과 구입 등을 통해 다수의 유물을 확보하였고, 수장고 보관 및 과학적 보존처리로 항구적 보존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지난 37년간 확보한 유물의 수만 37,939점(`21. 9. 30.기준)입니다. 매년 1,000점 이상의 유물을 수집한 것으로, 이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 속 가장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즉 집안에서 전래되던 생활도구나 채집한 자연물만 있다면 누구나 유물 수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그야말로 제주도민들이 만들고 운영해 온 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수집한 자료들을 소개하고 가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매진해왔습니다. 3,298㎡의 전시실에 3,364점을 상설전시하고, 147회의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며 일부 유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로 박물관 소장품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 조명하고, 문집과 간찰자료 등 각종 고문헌 자료의 번역집(역사자료총서)을 정기적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부의 양으로 소장품을 대대적으로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번 소장품 도록 발간 사업은 소장품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새롭게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특히 제작 방법으로 단순 분야별, 재질별 방식이 아닌 주제 중심의 구성을 택했습니다. 소장품과 제주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박물관 설립취지와 특성에 부합하도록 민속·자연사 분야 공통 수렴 주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이번 도록의 주제는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독특한 자연환경과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다양한 인문요소들로 인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대상입니다. 소장품 확보의 한계로 한라산이 가진 모든 면을 다루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유물 속 작은 기록조차 놓치지 않고 '소장품 속 한라산'을 충실히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도록이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연구와 활용의 초석이 되어 향후에도 더 많은 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 정 래

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한라산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황이새

Ⅰ.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소장품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인문과 자연 분야를 대상으로 그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제주지역 대표 박물관이다. 1984년 개관 이래 37,939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147회의 특별전 개최, 93건의 연구조사보고서 발간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종합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1.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현황(`21. 9. 30. 기준)

고고민속(6,726점)		자연사(31,213점)	
고고미술	2,129점	동물	18,389점
		식물	5,924점
		균계	130점
민속	4,597점	지질	1,785점
		기타	4,985점

박물관이 개관 이전부터 가장 노력해온 분야는 단연 소장품 수집과 관리이다. 개관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연구자와 도민들의 협조로 인문·자연 전 분야를 망라하는 자료를 확보해 왔으며, 구입·기증·자체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수집 유물들은 원형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온습도 환경을 구축한 6개의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훈증소독 작업과 과학적 보존처리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왕조사나 시대사 또는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제주의 자연 환경과 그 환경을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일반 사람들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이다. 따라서 박물관 소장품들은 화려하고 값비싼 유물은 아닐지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 더욱 소중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박물관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를 비롯해 연구 및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표2. 최근 5년간 민속자연사박물관 수집 유물 수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수집자료 수	410점	635점	1,286점	1,468점	323점	825점

최근 5년간 박물관 소장품 수집 통계에 따르면 연 825점 가량의 자료가 신규 수집되었다. 최근 기증 문화 확산을 통하여 민속유물의 기증 비중이 높은 편이다. 수집된 유물들은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초적인 보존처리와 실측, 사진촬영,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등이 실시된다. 그러나 연간 수백 점의 수집 유물 수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그동안 멸실이나 추가적인 손상 없이 유물을 보존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뿐, 소장품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고 부여하는 작업에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수장고 한편을 지켜왔던 유물들의 수가 적지 않다.

어느덧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개관 37주년에 다다랐다.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치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효과적이고 학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장품 도록 발간'이라는 목표 하에 본격적인 소장품 연구조사를 추진하고자 한다. 단순 분야별, 재질별 자료 연구도 의미 있는 방법이지만 박물관 설립 취지와 특성에 부합하도록 민속·자연사 분야 전반을 수렴할 수 있는 주제로 기획 방향을 결정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한라산'이다.

Ⅱ. 민속자연사박물관과 한라산

한라산은 화산 활동을 통해 제주도 중앙에 형성된 산이다. 높이 약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으며,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는 산(漢拏山)'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 과거에서부터 높은 산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라산의 이름은 다양한데 '부악(釜嶽)', '원산(圓山)', '두무악(頭無嶽)'은 정상부 화구호가 있는 독특한 경관(백록담)에 대한 표현이었으며, 지역의 대표 산으로써 '진산(鎭山)', 신비한 산으로써 '선산(仙山)', '영주산(瀛洲山)' 등으로도 불렸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실 본관으로 향하는 계단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면, 멀리 위치해 있음에도 한라산의 산세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처럼 한라산은 도내 197개 마을 중 2개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산으로 제주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한라산에서 자란 동물과 식물들은 살림의 주요 자원이 되어 의식주 생활의 기반이 되었으며, 일부 품목은 조정에 올리는 귀한 진상품이기도 했다. 특히 한라산은 각종 신화와 전설의 주인공이자 무대로써 장수를 상징하는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는 산이자 '불사(不死)의 약초'가 나는 곳으로 널리 인식되기도 했다. 또한 국가와 민가 모두 한라산의 신성(神性)을 인정하여 '한라산신'이라는 신격으로 숭상했고, 최근에는 제주를 대표하는 소재로써 일상생활과 문화예술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문적 가치 외에도 한라산은 자연 분야에 있어서 매우 큰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라산은 신생대 제4기 화산활동의 대표 산물로 정상부의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약 40여 개의 오름 등 여러 화산지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면암질 용암돔에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만들어진 백록담은 화구의 서쪽 절반이 조면암, 동쪽 절반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한편 한라산의 사면은 고도와 경사에 따라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고도 200m 이하 해안저지대는 경사도 4° 이하로 완만하고, 고도 200~600m 사면은 중산간 지대이다. 600~1,200m의 산악지대는 경사도 10~20°로 다소 가파르며, 1,200m 이상의 정상부는 경사도 20° 이상의 고산 지대를 이룬다. 이러한 고도차에 따라 한라산에는 난대·온대·한대의 동식물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식물의 경우 300여 종의 고유·희귀종을 포함하여 1,800여 종이 발견되었으며, 동물의 경우 곤충류 1,602종과 양서·파충류 17종, 조류 240종, 포유류 19종 등이 조사되었다. 한라산이 지닌 지질학적, 생물학적 가치 및 뛰어난 경관은 한라산이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는데 기여한다.

이처럼 한라산은 제주의 인문과 자연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미를 지닌 제주의 대표 자원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조류, 곤충, 지질 및 마을 민속 조사 등을 통해 분야별로 한라산을 연구해왔다. 특히 5년간 광령천(2013)·중문천(2014)·창고천(2015)·연외천(2016)·서중천(2017) 등 한라산으로부터 뻗어 나온 각종 하천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연·역사·문화를 종합 고찰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라산' 자체를 주제로 한 종합 연구를 실행하지 못했던 바, 이번 박물관 소장품 연구를 통해 인문과 자연 분야의 총체인 한라산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새들의 천국, 제주도』, 2018



그림2.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곤충총서』, 2019



그림3.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신비로운 제주의 돌 이야기』, 2018



그림4.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Ⅷ 남원읍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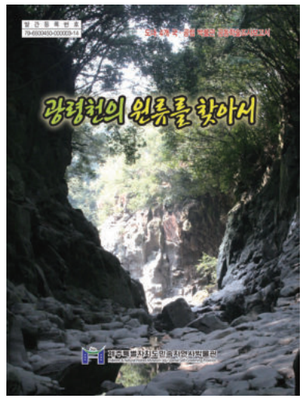


그림5.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광령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3



그림6.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2017

Ⅲ. 소장품 도록의 구성과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도록 : 한라산(漢拏山)』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37,939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한라산 관련 자료를 선별하기 위해 자료수집대장과 유물카드, 문화유산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전반을 비교 검토하였고, 동일 종류 중복 소장 자료의 경우 상태, 수집위치,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한라산 관련 유물은 총 220점으로, 총 5장의 목차에 따라 수록하였다.

제1장 '한라산의 탄생'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 한라산의 형성 원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는 장이다. 먼저 자연과학적 분야에서는 지질학 연구 방법을 통해 한라산이 화산활동 과정으로 형성되었다고 보는 만큼, 이를 증명하는 대표 자료인 포획암, U층, 서귀포층, 조면암, 조면현무암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한라산 지질에 관한 과거 관찰 및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는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도 당대 사고를 최대한 활용해 한라산의 형성 원리를 규명하고자 했던 조선시대와 지질학적 연구가 본격 도입되었던 일제강점기 이후의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한라산의 탄생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인문학적 관점을 통해서는 한라산의 형성과 관련해 전설과 신화 속에서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사냥꾼의 화살에 잘못 맞은 상제(上帝)가 산 정상부를 던져 산방산과 백록담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와 흙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 신화를 옛 문헌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그림7.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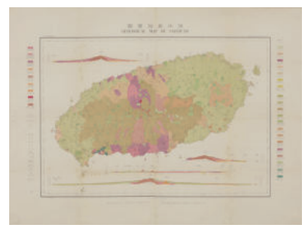


그림8. 제주도지질도(1930)

제2장 '한라산의 생명'은 한라산 속 동식물을 소개하는 장이다. 한정된 분량 안에서 한라산에 서식하는 동식물 모두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먼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대표 제주 박물지인 『남환박물(南宦博物)』을 통해 18세기 한라산과 제주의 식생을 소개한다. 『남환박물』에는 47종의 동물과 89 분류군의 식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한라산과 관련한 표본 42종 42점을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한라산 학술조사 보고서와 한라산에 서식하는 국가 보호종 표본 자료를 함께 소개한다.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및 홍도』(1968), 『한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197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1985)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1966년)과 한라산 국립공원(1970년)을 비롯해 세계자연유산(2006년) 등에 이르기까지 한라산이 국내외 보호 대상이 되는데 기여한 기초 자료들이다. 이러한 연구로 인해 밝혀진 자원들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환경부(멸종위기 야생생물)가 지정하는 국가 보호종 목록 속에 자리하게 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천연기념물 71종 중 27종 118점, 멸종위기종 267종 중 76종 510점을 소장하고 있는 바, 이 중 한라산과 관련이 깊은 조류, 양서류, 곤충, 관속식물 자료 36종 39점을 선정해 소개한다.



그림9. 참매



그림10. 오소리



그림11. 산굴뚝나비



그림12. 만년콩

제3장 ‘한라산 생활사’는 한라산을 생업의 터전이자 삶의 무대로 살아온 옛 제주인의 삶을 다루는 장이다. 의복과 식량 확보를 위해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사냥문화’, 고려 이후 국가 목장이 설치되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우마 생산지가 되었던 한라산 중산간 일대의 ‘목축문화’, 목장 운영의 부실로 목장 내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되었던 ‘경작문화’를 살펴본다. 또한 한라산에서 채집 및 수렵하여 만들었던 다양한 의식주 생활도구들도 함께 소개한다.



그림13. 가죽두루마기(20세기)



그림14. 탐라장계초(1702)

제4장 ‘한라산 이야기’는 옛 문헌자료를 통해 한라산과 관련한 역사·문화요소들을 살펴보는 장이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시기 제주도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땅으로, 그 가운데에 위치한 한라산은 다른 내륙 지역 뿐만 아니라 제주도 안에서도 매우 신비로운 공간이었다. 그러한 환경에 도교적 신선사상과 동양 천문학 및 국가와 개인의 신앙이 결합되면서 나타난 요소들(불사초, 노인성, 한라산신)을 살펴본다. 또 급격한 시대변화 속 한라산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사건들(강제검의 난, 방성칠의 난, 제주 4·3 사건)도 각종 기록 자료들을 통해 함께 들여다본다.



그림15. 증보탐라지(1953)



그림16. 제주 사람들의 삶(1985~1997)

제5장 ‘한라산의 오늘’은 현재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한라산을 다루는 장이다. 제주사회는 오래 전부터 한라산을 기준으로 지역(산북, 산남)을 나누고 방향을 가늠해왔을 정도로 한라산을 분명하게 관념화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 또한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의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활용했으며, 1960년대 이후 등산문화의 대중화로 산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면서부터는 전문 산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찾는 등반 장소가 되었다. '생활기록물'과 '문화예술', '등산'이라는 주제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한라산을 소개한다.



그림17. 도민증(1954)



그림18. 녹담만설(2013)

IV. 연구의 의의와 한계

이번 연구는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 소장품 연구’로 박물관 소장품과 한라산 연구를 동시에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 ‘한라산’을 민속자연사박물관 정체성에 맞게 인문과 자연 전 영역에 걸쳐 다룬 점은 가장 큰 성과였다.

하지만 ‘소장품 연구’라는 주제로 인해 ‘한라산 연구’의 차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지 않거나 상태가 불량해 소개하기 어려운 자료와 관련한 내용들은 거의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제주의 자연·민속·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할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서,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이나 소장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항구적 보존관리와 연구조사에 힘쓰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한라산 소장품 연구’와 같이 계속적으로 소장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선정하고 연구조사 하여, 박물관의 내실을 갖추면서 제주와 관련한 자연·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1 한라산의 탄생

한라산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주도는 약 180만 년 동안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화산섬이다. 수많은 용암분출과 풍화·퇴적작용이 뒤섞이며 제주섬은 완만한 성층 화산체를 이루게 되었고, 한라산 백록담은 2만 년 전 화산 작용으로 형성된다.

한라산은 지표지질조사, 연대측정 등 다양한 지질학 연구 방법을 통해 그 형성 과정과 시기가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 과학이 정립되지 않던 시기에도 한라산의 탄생 비밀을 풀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현대 과학의 차원에서 보면 한낱 개인적 견해일 뿐이지만, 당시의 학식과 견문을 사용하여 최대한 논리적으로 입증하려 했던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붉은 물의 용출

지구가 탄생하고 현재까지 약 46억 년을 지질시대라고 하며 선캄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등 네 시대로 구분한다. 제주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80만 년 전인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니, 장구한 지구의 역사에 비하면 매우 어린 화산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성된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많은 화산 활동으로 아래 표와 같이 매우 복잡한 지질 구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현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라산은 백록담 형성 시기를 기준으로 약 2만 년 전을 전후하여 완성되었다. 이후에도 일출봉(약 6천 년~7천 년 전), 송악산(약 3천 8백 년 전), 돌오름(약 2천 6백 년 전) 등 1만 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화산체(화산분출물이 화구 주변에 쌓여 만들어진 산체)가 지속 생성되기도 했다.

제주도와 한라산의 지질은 예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 왔다. 조선시대 제주에 부임했던 관리들은 한라산 백록담 형성 원리에 대해 고찰했으며, 지도를 통해 독특한 지형지세를 표현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지질학 연구는 일제강점기 요코야마 쇼자부로(橫山將三郞)와 하라구치 쿠만(原口九萬)에 의해 시작되는데, 이후 다수의 후속 연구들을 통해 그 탄생 비밀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표. 제주도 지질 구성

구분	수직적 분포	시기
용암류 및 화산쇄설물	서귀포층 상부	약 50만 년 전부터 약 2000년 전까지
서귀포층	해발고도 -100~+100m (두께 평균 100m)	약 180만 년 전부터 약 50만 년 전까지
U층 (미고결 퇴적층)	해발고도 평균 -120m (두께 평균 150m)	기반암 형성 이후부터 약 180만 년 전까지
기반암	해발고도 -150m 이하	약 14억 년 전 선캄브리아기부터 약 8천 4백만 년 전 백악기까지 *제주도 화산 활동 이전 시기

포획암은 제주도 지하의 암석 종류를 추정하게 해주는 자료로, 제주도 기반암이 상승 또는 폭발하는 마그마에 의해 뜯겨 올라오면서 노출된 암석을 말한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만장굴)에서 수집된 포획암(지질암석 19)은 제주도 지하의 선캄브리아기(약 14억 년 전) 규암이 마그마에 의해 뜯겨 현무암류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주시 화북동(별도봉)에서 수집된 포획암(지질암석 121)은 제주도 지하의 쥐라기(약 1억 7천만 년 전) 화강암이 마그마에 의해 뜯겨 화산재와 함께 쌓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001

포획암

捕獲巖

Xenolith

현생 | 암석 | 34.2×41.5×25.8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19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만장굴)



002

포획암

捕獲巖

Xenolith

현생 | 암석 | 21.3×56.0×31.8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121

제주시 화북동(별도봉)

U층은 제주도 기반암 위에서 발견되는 점토와 모래로 이루어진 미고결(채 굳지 않은) 퇴적층이다. 평균 해발고도 하(-) 120m에 분포해 기반암 위에서 발견되며, 서귀포층 밑에 덮여있다. 제주도 화산활동 이전 대륙붕 환경(대륙 주변부에 있는 얕은 수심의 대지)에서 형성된 해양기원 퇴적층으로 볼 수 있다.

003

U층

未固結堆積層

Unconsolidated sediment formation

현생 | 암석 | 높이 16.5 지름 10.5

기증 | 2017 | 지질암석 940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서귀포층이란 서귀포시 천지연폭포 서쪽 해안 절벽을 따라 약 30m 두께로 1.5km에 걸쳐 노출된 퇴적층을 말한다. 얕은 바다 환경에서 쌓인 해양 퇴적물과 화산 활동에 의한 화산재 등이 1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겹겹이 쌓이면서 형성되었다.

조개류 화석 서귀포층(지질암석 262)은 양호한 보존상태로 과거 서귀포층이 쌓일 당시의 해양환경과 바다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반면 퇴적구조 서귀포층(지질암석 75)은 이암과 사암이 겹겹이 쌓여있는 퇴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퇴적 당시의 지질환경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004

서귀포층(조개류 화석)

西歸浦層

Seoguipo fomation

현생 | 암석 | 22.7×36.7×32.6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262

서귀포시 서홍동(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005

서귀포층(퇴적구조)

西歸浦層

Seoguipo fomation

현생 | 암석 | 13.4×31.0×27.7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75

서귀포시 서홍동(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산방산과 가파도, 월라봉, 문섬, 범섬 등은 제주도 남부 일대에 지표로 노출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형성 시기는 약 90만 년 전부터 약 65만 년 전까지이다. 조면암(지질암석 778)은 약 80만 년 전 용머리응회환이 조성된 후 산방산 일대에서 형성된 것이고, 조면안산암(지질암석 835)은 산방산과 유사한 약 80만 년 전 화산 분출로 가파도 일대에 형성된 것이다.



006

조면암

粗面巖
Trachyte

현생 | 암석 | 17.4×21.7×17.1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778
서귀포시 안덕면(산방산)



007

조면안산암

粗面安山岩
Trachyandesite

현생 | 암석 | 18.5×36.3×16.2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835
서귀포시 대정읍(가파도 남서해안)

약 50만 년 전 이후 형성된 현무암질 용암류는 용암의 온도, 점성, 속도 등의 차이에 따라 파호이호이 용암과 아아 용암으로 구분된다. 상대적으로 잘 흐르는 용암에 의해 형성된 파호이호이 용암(지질암석 755)은 표면에 새끼줄 구조를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제주도 대부분의 용암동굴은 이 파호이호이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르는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아아 용암(지질암석 781)은 거친 표면과 찌그러진 기공(공기주머니)이 발달한 형태를 보인다.



008

파호이호이 용암

Pahoehoe lava

현생 | 암석 | 34.5×25.8×13.5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755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009

아아 용암

Aa lava

현생 | 암석 | 13.8×38.3×30.0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781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라산 백록담은 약 3만 7천 여 년 전 이후 정상부 서쪽에 조면암질 용암돔이 형성되고, 약 2만 년 전 동쪽에서 조면현무암질 용암을 분출하면서 형성된 분화구이다. 화산 폭발을 통한 한라산 형성의 최후 단계를 증명하는 자료로, 백록담 서쪽의 조면암을 만든 용암은 끈적끈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반면, 조면암보다 잘 흐르는 성질의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백록담 동쪽의 조면현무암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한라산조면암(지질암석 697)은 백록담 서쪽, 백록담 조면현무암(지질암석 165)은 백록담 동쪽에서 각각 수집한 것이다.

010

한라산조면암

漢拏山粗面巖

Mt. Halla Trachyte

현생 | 암석 | 11.2×22.3×16.2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697
한라산 백록담(서측 정상)



011

백록담조면현무암

白鹿潭粗面玄武巖

Baengnokdam trachybasalt

현생 | 암석 | 19.4×31.6×31.0
자체수집 | 미상 | 지질암석 165
한라산 백록담(동측 정상)



012

남환박물

南宦博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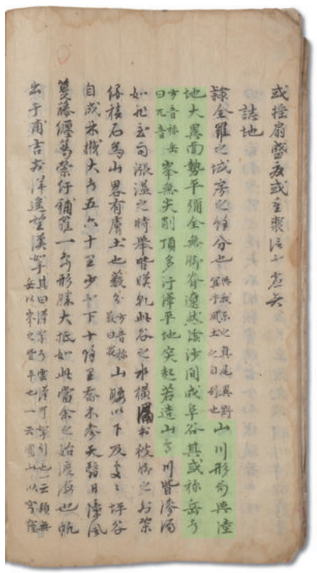
Book on the geography of
Jeju and nearby islands in Korea

병와 이형상(甁窩 李衡祥)
1704 | 한지 | 36.4×21.9
구입 | 2016 | 고고민속 10411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남환박물(南宦博物)』은 1702년부터 1703년까지 제주 목사를 지냈던 병와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저술한 제주 박물지이다. 재임 당시 제주의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방어, 부역 등의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어 제주사(濟州史) 연구에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큰 자료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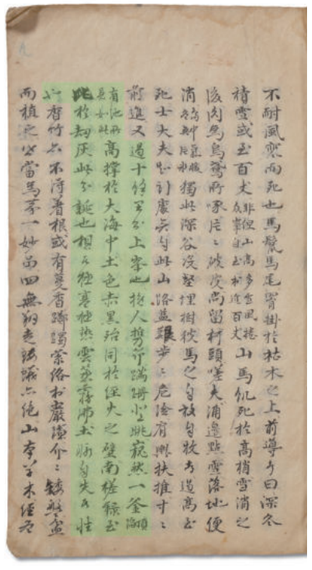
『남환박물』 지지(誌地)조에는 이형상이 한라산 산세의 형성을 과학적으로 고찰해 정리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 그는 제주도 오름을 보며 '평지가 솟아올랐을 것'으로 보았고, 백록담에 직접 올라 관찰한 못 주변 검붉은 흙빛 형상을 '극한(極寒)과 극열(極熱)의 결과'로 인식하는 등 화산 활동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과학의 한계로 인해 해저 지형에서의 화산 폭발이 제주섬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록담 주변에 널려 있는 조개껍질을 관찰하고는 해조(海鳥) 또는 공조(貢鳥)라는 상상 속의 새가 물어온 것으로 결론짓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산세를 보며] 산천의 형국은 육지와 크게 다르다. 표면 지세는 평평히 구부러져 전부 산기슭과 등성마루가 없다. 아득하게 음사가 깔리고, 그 사이에 언덕과 골짜기가 형성되었으니, 그것을 늘 오롬이라 칭한다.(제주 방언에 악을 일컫기를 '오롬'이라 한다.) 산봉우리는 뾰족한 것이 없고 꼭대기는 고인 못이 많으니 평지가 솟아올라 산이 된 것 같다.

-『남환박물(南宦博物)』<지지(誌地)>



[백록담에 오르며] 10여 리를 지나니 상봉이다. 사람이 끌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절뚝 걸음으로 올라가서 내려다보니, 높이 솟은 것이 하나의 가마솥이었다.(꼭대기가 함몰하여 못이 있는데, 보면 이처럼 가마솥으로 보인다.) 큰 바다 가운데에 높이 버티어 있는데, 흙빛이 검붉으니 거의 불 속에서 구운 벽과 같다. 『남사록』에는 겁회*에 비교하였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생각하건대 아마도 극한과 극열로 구름이 증발하고 안개가 끓어서 토맥이 자연히 그 성질을 잃은 것이다.

*겁회 : 세상이 파멸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큰불의 재

-『남환박물(南宦博物)』<지지(誌地)>



[백록담을 바라보며] 사방은 봉만으로 둘러싸여 솥 갈기도 하고 성곽 같기도 하다. 둘레는 10여리(『남명소승』에서는 18리라 하였다.) 나 되고 깊이는 8백 자나 되는데, 그 밑에는 백록담이 있다.(『지지』에 이르기를, '깊이는 헤아릴 수 없고, 사람이 떠들면 바람과 비가 세차게 일어난다.'라고 하였는데 잘못 전한 것이다.) 물이 불어도 항상 차지 않는데, 원천이 없는 물이 고여 못이 된 것이다. 비가 많아서 양이 지나치면 북변 절벽으로 스며들어 새어 나가는 듯하다. 고기도 없고 풀도 없으며, 못가에는 모두 깨끗한 모래뿐이다. …중략… 다만 이상한 것은 못 곁에 조개껍질이 있는데 모두 말하기를, 해조(海鳥)가 물어 온 것이라고 하였다. 그 울음소리가 공공(貢貢)하는 까닭에 그 새를 공조(貢鳥)라 부른다. 반백 리 산꼭대기까지 은근히 물어온 것이라면 진실로 또한 힘들었을 것이다.

-『남환박물(南宦博物)』<지지(誌地)>

013

우암집

寓菴集

Anthology of
Nam Gumyeong's literary works

우암 남구명(寓菴 南九明)
1860 | 한지 | 31.6×20.5(3책)
구입 | 1990 | 고고민속 4942~4944

『우암집(寓菴集)』은 1712년부터 1715년까지 제주 판관으로 부임했던 우암 남구명(南九明, 1661~1719)의 5권 3책(天·地·人) 시문집이다. 당시 제주의 산천과 형승, 풍속과 신앙, 기후와 풍토, 육지와 제주의 교통로(육로·해로), 제주의 흉년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제주와 관련한 내용이 다수 수록되어 있으며, 세심한 관찰력이 문장으로 잘 묘사되어 문학 작품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암집』에는 당시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먼 제주와 한라산의 지질 특성에 대한 남구명의 고찰이 담겨 있다. 전통시대 동양적 사고에 따르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한라산과 일부 오름 산 정상에는 물이 고여 있는 호수가 있고, 산 아래 평지는 물이 금방 스며들어 고이지 않으니 이는 당시 이치상 납득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다.


寓菴集卷四
大雪至此則兩儀閉塞萬象蕭索無存矣此島有雪而無霜余守此土三年纔見數夜之霜此其天氣之不可曉者也
地理
夫水之性潤而下故泉之出多在山下澤之鍾多在地中此理之常也至於高峯之上絕頂之外若有泉源或溶而爲井或匯而爲潭則談者皆視以理外之物而相傳爲天下之奇觀蓋以絕無而或有也此島地勢浮在石上有水輒滲漉故一島之內泉無湧出之脈潤無停瀦之水山村野店皆汲於海傍鹹泉或
五里而汲或十里而汲或二十里而汲至如使臣之往來守令之出入雖百里之遠每汲於山池故汲軍嘗苦之大率平下之地困於無水而自漢拏山上峯至四方諸山頂皆凹陷一一成澤大則爲白鹿潭溶則爲長亢湫其餘淺洿小池峯峯而在魚鼈生焉蚌蛤積焉牛馬飲焉潦而不溢旱而不枯泓澄演漾萬古如一噫滲漉於平地而不滲漉於山上停瀦於絕頂而不淳瀦於地中揆之以理豈有是哉山以北惟道圓岳紗羅峯無水山以南惟天帝潭天池瀑正方淵有水獨此得其常理耳余嘗登漢拏山自海岸至


寓庵集 人
說雜著附錄
寓庵集 地
詩傳書記跋 祭文墓碣銘 卷三
寓庵集 天
賦詩 卷三

무릇 물의 성품은 적시며 아래로 간다. 그러므로 샘은 산기슭에서 많이 솟고, 물이 모인 못은 땅 가운데 많다. 이것이 마땅한 이치다. 높은 봉우리 위 꼭대기 밖에 샘이 있어 혹 깊숙이 우물이 되거나 혹은 넓어서 못이 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치에 벗어난 일로 여겨 세상에 보기 드문 구경거리라고 서로에게 전해진다. 대체로 절대 없을 일이나 간혹 있기도 하는 일이다.

이 섬의 지세가 돌 위에 받쳐져 있어서, 물이 있으면 곧 스며들어 말라 버린다. 그러므로 온 섬 안에 샘물이 솟아나는 맥이 없고 골짜기에는 고인 물이 없다. 산간 마을이나 들의 주막에서도 모두가 바닷가의 짠 샘물을 길어 가는데, 어떤 곳은 오 리의 물을 긷고 어떤 곳은 십 리의 물을 긷고 어떤 곳은 이십 리의 물을 긷는다. 심지어 사신이 왕래하거나 수령이 나들이할 때에도, 수백 리 먼 곳이라도 매양 산지에서 물을 길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물 긷는 역군들이 늘 괴롭다.

대저 평평한 아래 땅에서는 물이 없어 곤경을 받으나 한라산 상봉에서부터 사방의 모든 산꼭대기에 다 우묵한 구덩이가 있어 날날이 못을 이루고 있다. 큰 것은 백록담이며 깊은 것은 장올추며 그 외의 것들은 얕고 작은 못들이 봉우리마다 있어서, 자라와 물고기가 살고 조개가 있으며 말과 소가 마시는데, 큰 장마비에도 넘치지 않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아서 깊게 맑은 물이 고여 있기 만고에 한결같다. 어희라, 평지에서는 스며들고 마르는데 산 위에서는 스며들고 마르지 않으며, 꼭대기에는 물이 고이나 땅 가운데는 물이 고이지 않으니 법도의 이치로 가늠하건대 어찌 이러하리오. 한라산 북쪽에는 오직 도원악과 사라봉이 물이 없고 남쪽에는 천제담과 천지폭과 정방연이 물이 있어, 유독 이것들만이 그 올바른 이치를 얻었을 뿐이다.

–『우암집(寓菴集)』<권4, 설(設), 지리(地理)>

014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竝序

Map of Tamna with explanatory notes

이규성(李奎成)

1709 | 한지 | 128.0×185.0

기증 | 1994 | 고고민속 5922~5923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竝序)》는 1706년부터 1709년까지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이규성(李奎成)이 1709년 제작한 목판본 지도이다. 지도를 중앙에 두고 지도의 상단과 하단에는 당시 제주의 역사와 풍습 및 각종 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탐라지도병서》 속 백록담은 한라산 중앙부에 크게 강조되어 있으며, 화구에 형성된 암석들은 '동암'과 '서암'으로 나뉘어 표현되고 있다.





015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

Map of Jeju provi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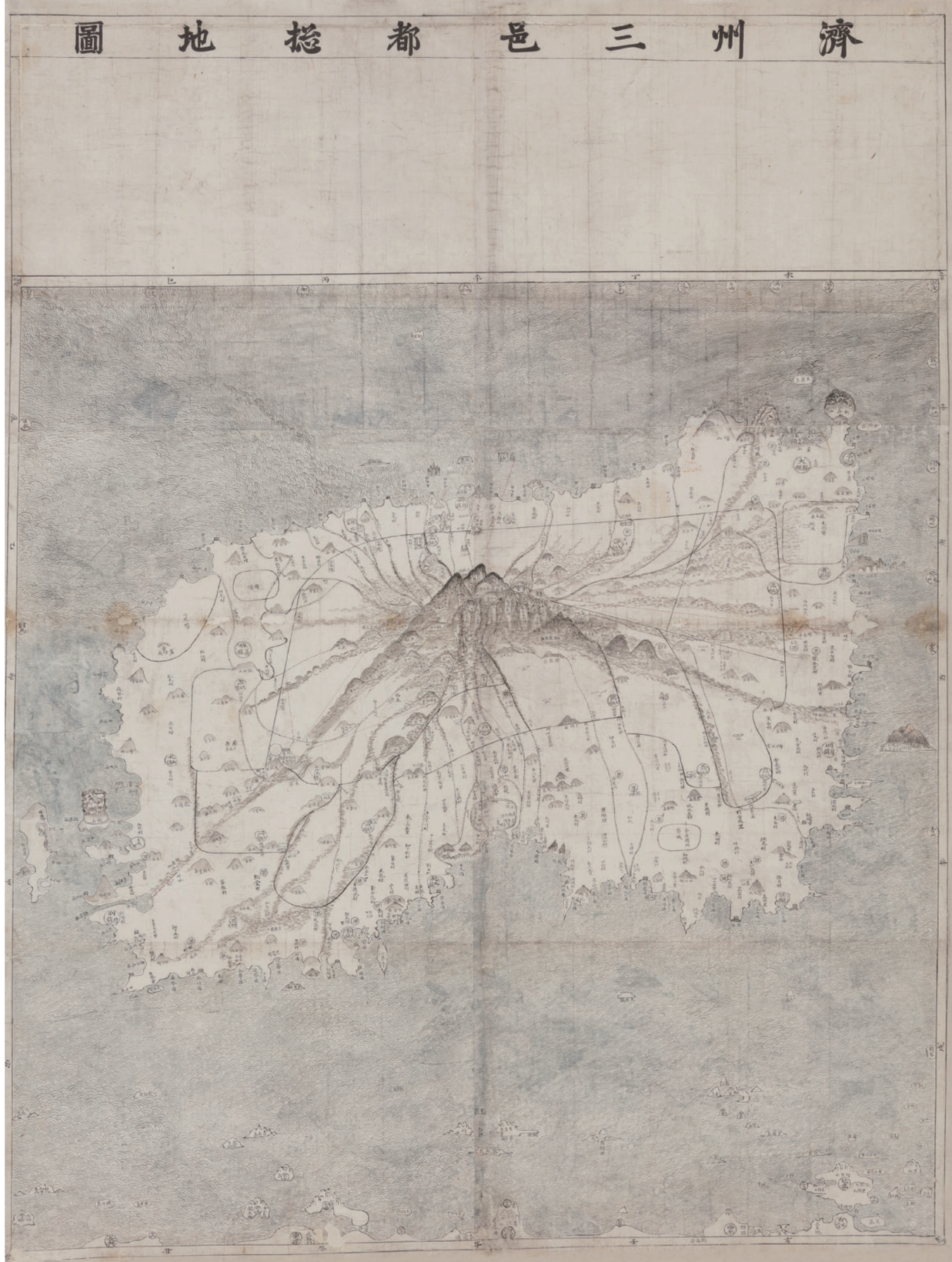
18세기 | 한지 | 120.0×158.0

구입 | 1978 | 고고민속 1022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는 1734년에서 175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지도이다. 한라산과 오름들을 입체화시켜서 한라산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백록담뿐만 아니라 영실의 기암절벽까지 그림으로 충실히 묘사하고 있다. 다른 지도에 비해 한라산 중심부의 지명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어 옛 명칭과 위치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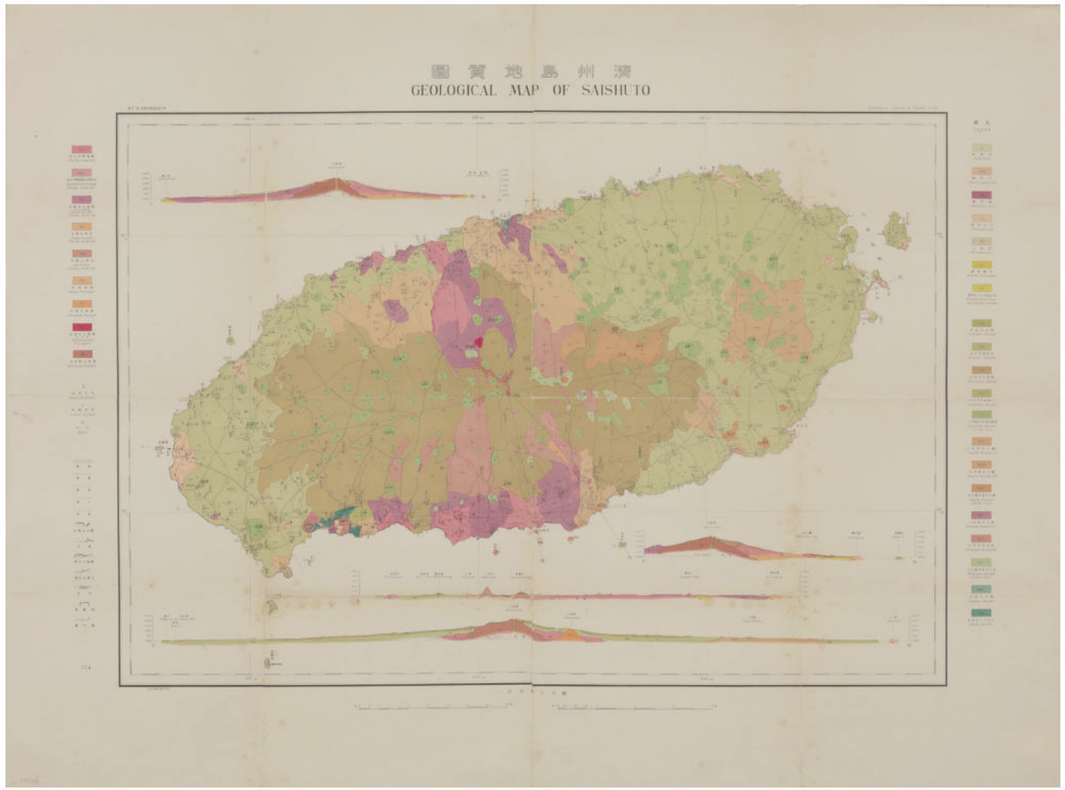
제주도지질도

濟州島地質圖

Geological map of Saishuto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1930 | 양지 | 79.2×107.2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06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한라산 지질 연구가 본격화된다. 《제주도지질도(濟州島地質圖)》는 1930년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에서 제작한 축척 1:100,000의 지질도이다. 일본인 지질학자 하라구치 쿠만(原口九萬)이 1928년에서 1929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제주도 지질구조와 암석, 광물 등 지질관련 정보를 다룬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지역은 한라산현무암(漢拏山玄武岩), 제주면과 서귀포면 주변은 장석현무암(長石玄武岩)과 휘석현무암(輝石玄武岩), 한라산 동쪽과 서쪽은 비현정질현무암(非顯晶質玄武岩)이 분포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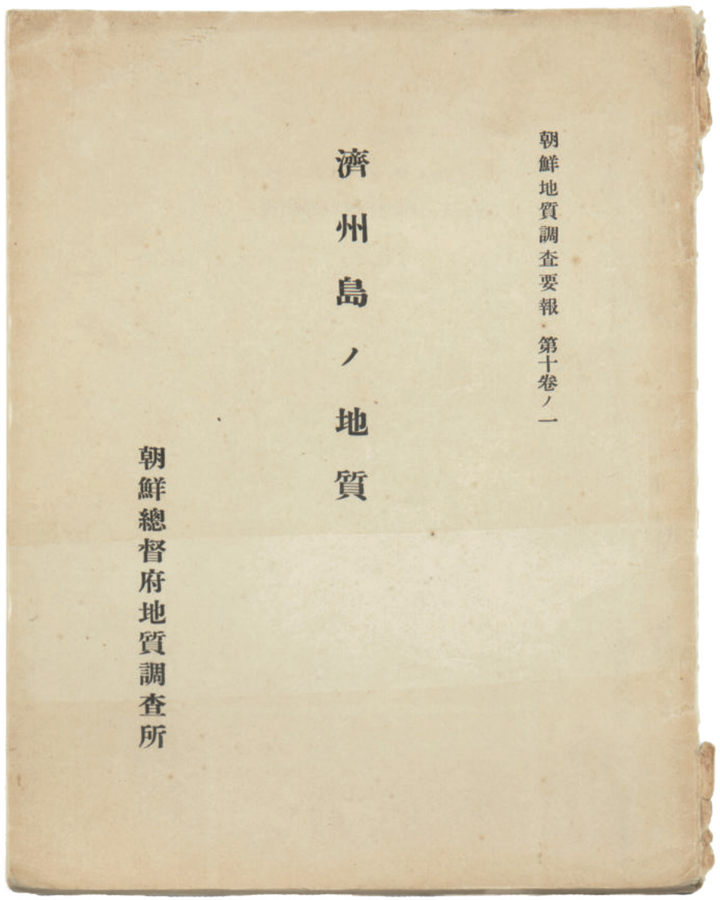
제주도의 지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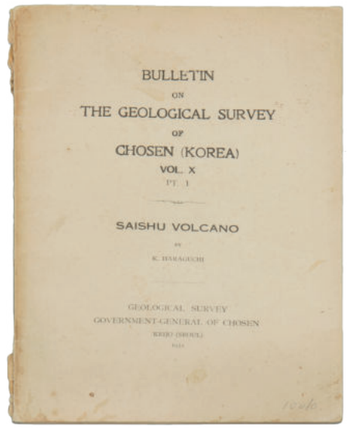
濟州島ノ地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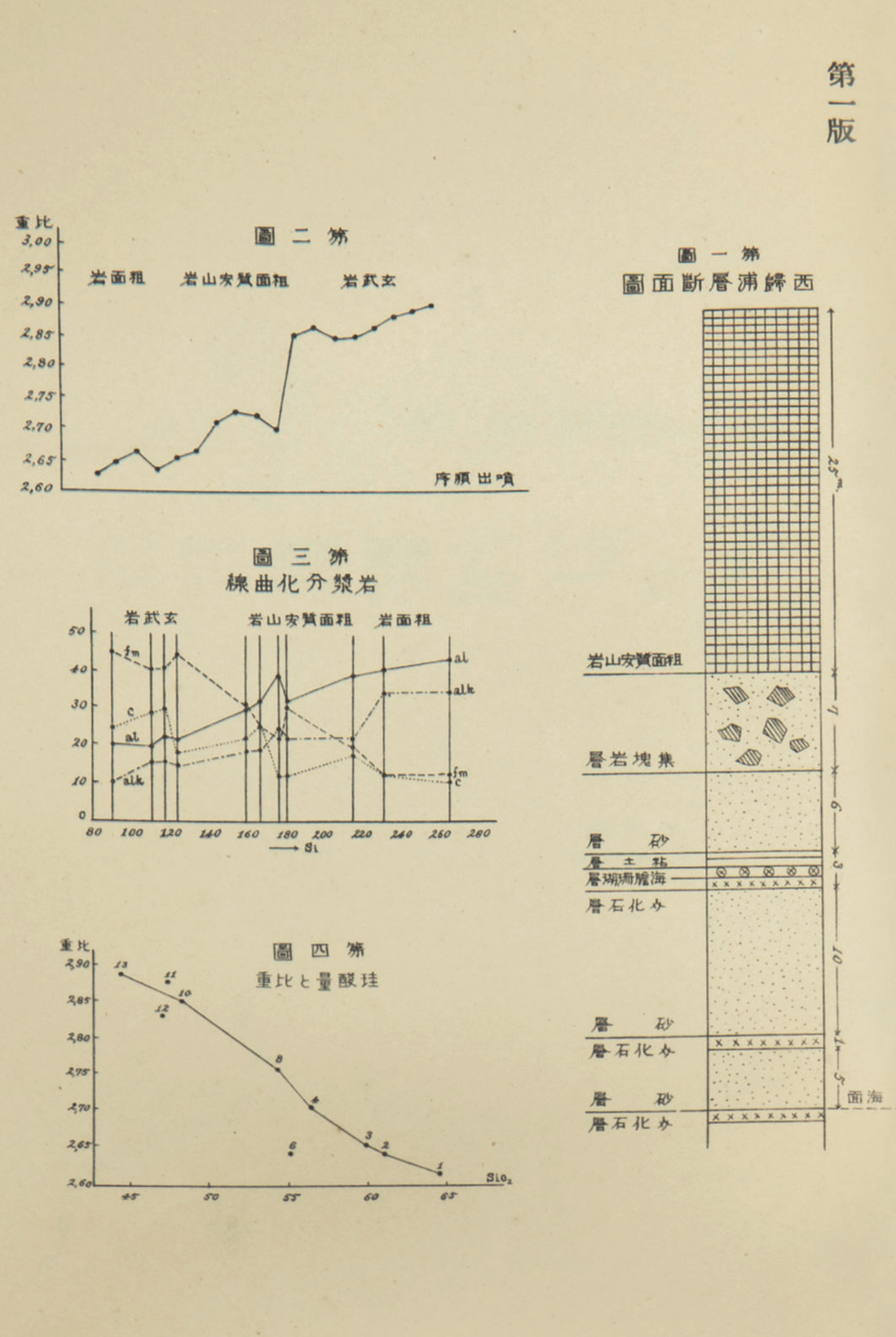
Jeju geological report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1931 | 양지 | 26.4×18.9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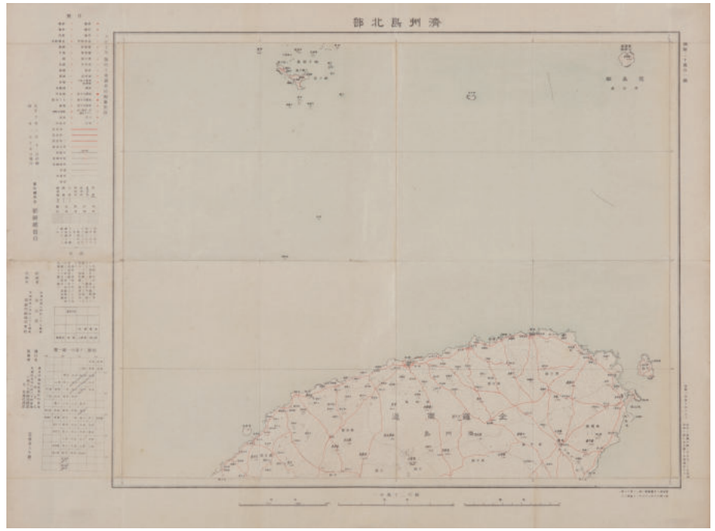
「제주도의 지질(濟州島ノ地質)」은 1931년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에서 발행한 『조선지질조사요보(朝鮮地質調査要報)』 내 수록되어 있는 보고서이다. 주요 저자는 하라구치 쿠만(原口九萬)이며 당시 조선총독부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제주의 위치와 지형, 수계, 암류, 암석개론, 역사서 속 화산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제주도 전역의 화산활동을 시대적으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서귀포 지역에 분포하는 퇴적층을 '서귀포층(西歸浦層, Seikiho Formation)'이라 최초로 명명하였다.







《제주도 북부(濟州島北部)》와 《제주도 남부(濟州島南部)》는 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에서 편찬한 1:200,000의 제주도 지도이다. 해발 50미터 단위로 등고선을 그려 한라산의 산세와 오름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부호를 통해 각종 도로와 행정기관을 표기하고 있는데, 사령부(司令部), 헌병대(憲兵隊), 다리가 없어도 걸어서 건너는 곳(徒涉所) 등 군사 및 각종 자원 수탈에 용이한 정보가 다수 기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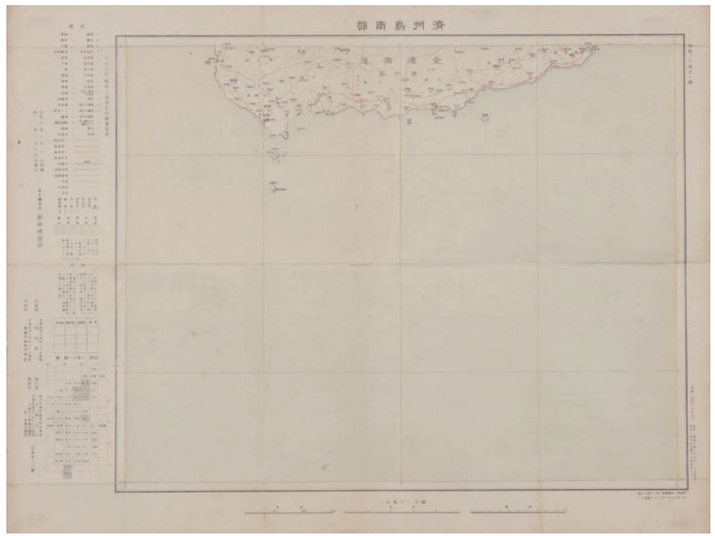
018

제주도북부

濟州島北部

Map of northern Jeju Island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1921 | 양지 | 46.5×59.8
구입 | 2020 | 고고민속 12462



019

제주도남부

濟州島南部

Map of southern Jeju Island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朝鮮總督府 臨時土地調査局)
1921 | 양지 | 46.5×59.8
구입 | 2020 | 고고민속 12463



《일본 조선남안 제주해협(日本 朝鮮南岸 濟州海峽)》은 1933년 대일본제국 수로부(大日本帝國 水路部)에서 편찬한 1:150,000의 제주 해협도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역만도(亦萬島, 1898), 청산도(靑山島, 1898), 병풍도(屛風島, 1929), 불근도(佛斤島, 1930), 소안군도(所安群島, 1930)의 측량 시기가 기입되어 있다. 등고선만 보아도 한라산의 형세를 짐작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산세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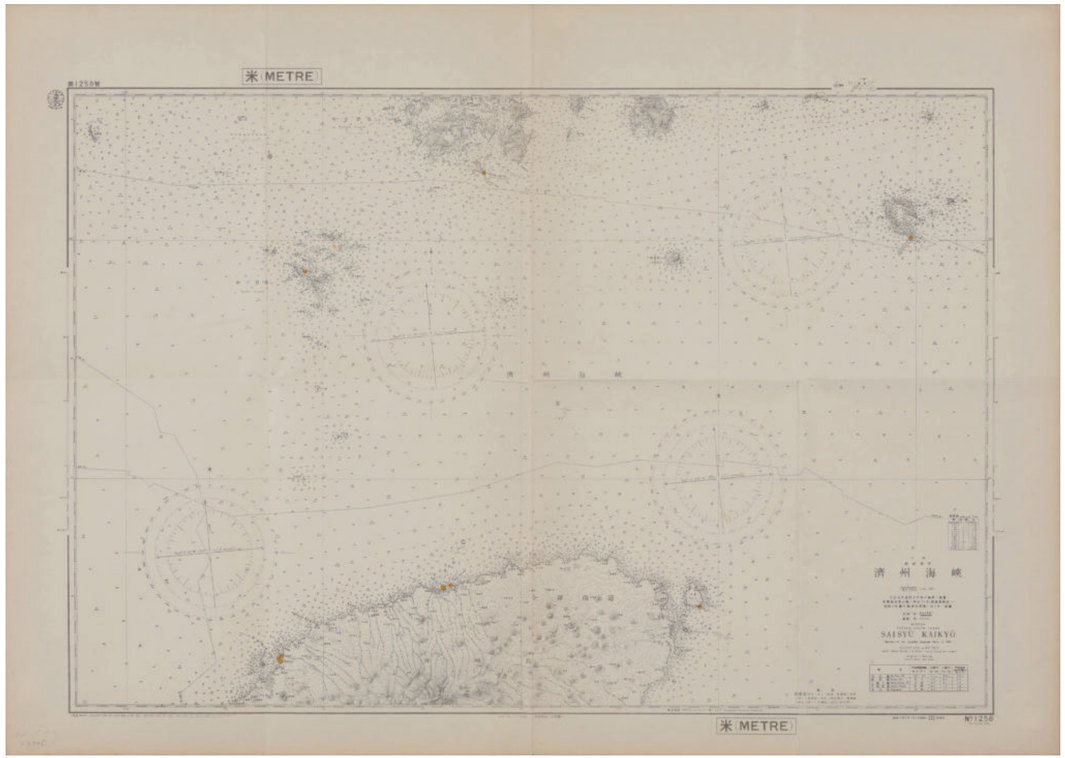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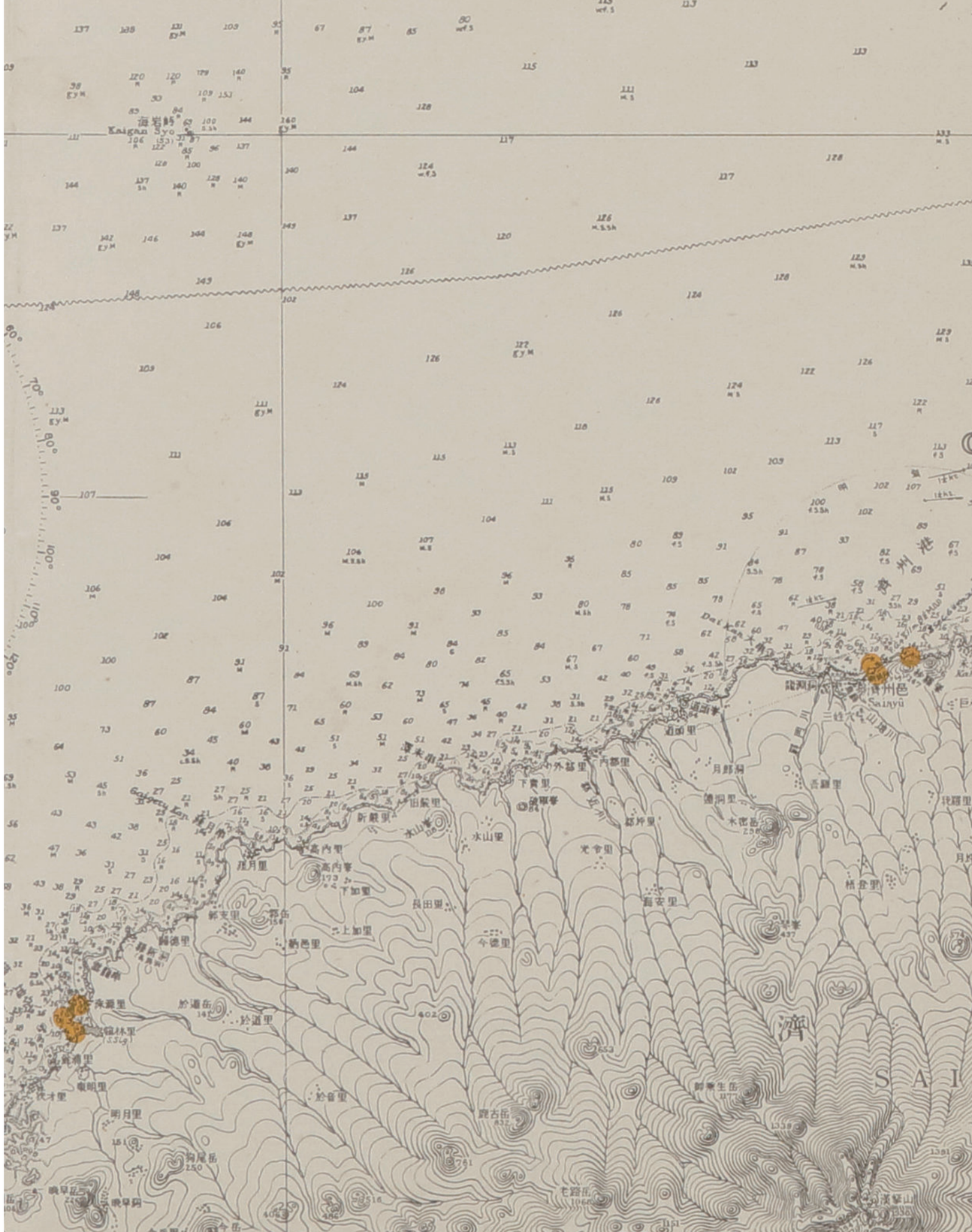
일본 조선남안 제주해협

日本 朝鮮南岸 濟州海峽

NIPPON TYOSEN-SOUTH COAST SAISHU KAIKYO

대일본제국 수로부(大日本帝國 水路部)
1933 | 양지 | 76.8×107.8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05





2. 상제(上帝)와 설문대할망

한라산은 동서로 길게 뻗은 형세로 완만해 보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이다. 특히 정상부가 움푹 파여 연못을 이루는 독특한 형상으로 인해, 옛 사람들은 형성 원리에 대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전했다.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설로는 '사냥꾼과 상제(上帝)'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 꼭대기에서 활을 잘못 쏘아 상제를 맞췄다. 화가 난 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서쪽으로 내던졌는데, 그것이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의 자리는 백록담을 이루었다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은 백호 임제가 저술한 『남명소승(南溟小乘)』(16세기)과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에 수록된 이후 후대에 편찬된 다수의 문헌들에 계속해서 인용되었다.

일반 민가를 통해서는 제주도 곳곳의 지형을 형성시킨 '설문대할망(설만데할망, 설문듸할망, 설만두할망, 설명지할망, 세명주할망, 사마고파, 설만두고 등)' 전설이 전승된다. 거인 여신 설문대할망이 흙을 통해 제주도와 한라산을 비롯해 다양한 장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이다. 구전을 통해 이어진 만큼 변형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지역 내 독특한 지형 형성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각색되어 전승되어 왔다. 설화의 보편적 관점으로 볼 때 산·섬·하천·돌·다리·성곽 등의 창조에 관여하는 거인 여신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마고할미'와 연관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021

응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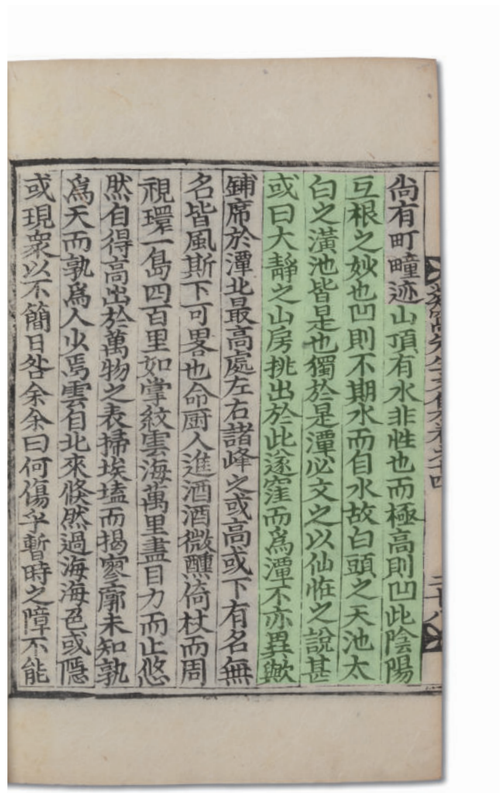
凝窩集

Anthology of
Lee Wonjo's literary works

응와 이원조(凝窩 李源祚)
1926 | 한지 | 29.0×20.0(12책)
구입 | 2012 | 고고민속 9987

『응와집(凝窩集)』은 1841년부터 1843년까지 제주 목사로 부임했던 응와 이원조(李源祚, 1792~1871)의 시문집이다. 23권 12책으로 되어 있으며 1926년 박봉세가 편집·간행하였다. 성리설(性理說)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이며, 제주 목사 재임 당시 관내 각 지역을 순행하면서 제주의 생활상을 담은 기록도 일부 수록하고 있다.

『응와집』에는 상제(上帝)가 한라산 정상부를 뽑아 던지면서 백록담과 산방산이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담겨 있다. 이와 달리 『우암집(寓菴集)』에는 산방산이 아닌 범섬의 유래로 소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백록담 지명유래라 할 수 있는 '백록의 전설'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尙有町疃迤山頂有水非性也而極高則凹此陰陽
互根之妙也凹則不期水而自水故白頭之天池太
白之潢池皆是也獨於是潭必文之以仙惟之說甚
或曰大靜之山房挑出於此遂窪而爲潭不亦異歟
鋪席於潭北最高處左右諸峰之或高或下有名無
名皆風斯下可畧也命厨入進酒酒微醺倚杖而周
視瓊一島四百里如掌紋雲海萬里盡目力而止悠
然自得高出於萬物之表掃埃塩而揭窗扉未知孰
爲天而孰爲人少焉雲自北來倏然過海海色或隱
或現衆以不簡日咎余余曰何傷乎暫時之障不能

산 정상에 물이 있는 것은 본성이 아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면서도 오히려 움푹 파였다. 이는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오묘함이다. 오목하면 물을 기대하지 않아도 절로 물이 고이게 된다. 백두산의 천지와 태백산의 황지가 모두 이런 유이다. 그런데 유독 이 못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선괴의 이야기로 꾸미는 것이 심하다. 혹자가 말하기를, "대정현의 산방산이 여기에서 끄집어 나와 (백록담이) 웅덩이를 이루어 못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응와집(凝渦集)』
<권14, 기(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013

우암집

고고민속 4942~4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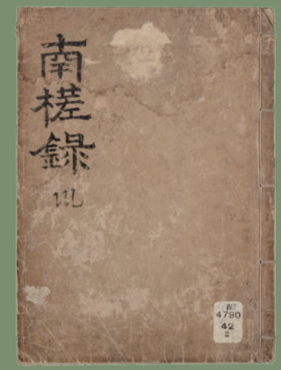
나이 든 노인 전하는 말에 옛적에 어떤 사냥꾼이 큰 활을 당기어 천공의 배를 맞추니 옥황상제께서 화가 치밀어 발끝으로 봉우리 걷어차서 백리까지 돌 어지러이 흩어졌고 패인 곳 깊이가 만 길 잎 벌린 듯 못이 되었고 찢긴 봉우리 바다에 떨어져 우뚝히 범섬이 되었다 하네.

또 이르길 어떤 사냥꾼이 밤중에 못가에 숨었다가 아주 많은 사슴의 무리가 머리를 가지런히 맑은 물 마시는데 그 중에 하나 하이얀 사슴 등에는 안기생 선인이 타고 있어서 눈빛은 옥색으로 빛나고 푸른 머리가 이마 덮어 드리웠네. 사냥꾼이 놀랍고 또 괴이하여 활을 당겨서도 감히 놓을 수 없었는데 한 마리 어린 사슴 맨 뒤에 떨어졌다가 활에 맞아 기어이 쓰러졌다네. 선웅께서 가다가 되돌아서서 다리와 뿔의 수 헤아려보고 잠시 길게 휘파람 불어 모으더니 홀연히 그 자취 없어졌다 하네.

-『우암집(寓菴集)』<권1, 시(詩), 장유(壯遊)>

참고자료

『남사록(南槎錄)』 속 산방산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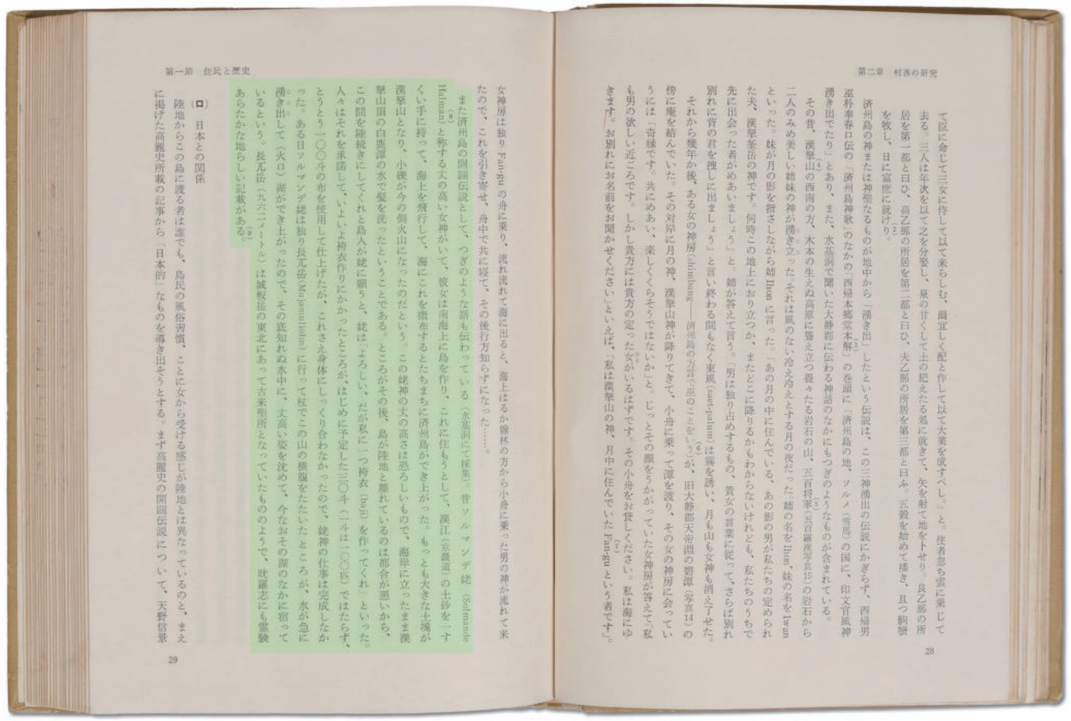




산방산은 대정현성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암벽이 가파르고, 여러 가지 초목이 소복하게 났는데 대정현 동남쪽 바닷가에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주 옛날 산지기가 한라산에 올라 활로 하늘 복판을 쏘아 맞추니 천제가 화가 나서 기둥 같은 봉우리를 꺾은 것이, 여기에다 옮겨 세워 놓아진 것이라 한다.

-『남사록(南槎錄)』<사점(査點)>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주도의 개벽전설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전해진다.(수기동에서 채집) 옛날 설만대할망이라는 장신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녀는 남해상에 섬을 만들어 여기에 살고자 해서 한강(경기도)의 토사를 한줌 손에 쥐고 해상을 날아 바다에 뿌리니 그 자리에 제주도가 생겼다. 가장 큰 흙덩이가 한라산이 되고 자갈이 지금의 측화산이 되었다 한다. 이 할망의 키는 어마어마해서 해안에 선 채 한라산 꼭대기 백록담의 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후 섬이 물과 떨어져 있는 건 불편하니 이것을 이어 달라는 섬사람들 소원에 할망은 "좋아, 그럼 내게 바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승낙하고 바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 예정했던 3천 필로는 모자라 결국 3천만 필의 옷감을 들여 완성했으나 이것도 몸에 잘 맞지를 않아 할망의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어느 날 설만대할망은 혼자 물장오리오름에 가서 지팡이로 이 산 옆구리를 두드렸더니 물이 난데없이 솟아나와 호수가 생기니 그 깊이 모를 물속에 장대한 몸을 잠갔는데 지금도 그 호수 속에 살고 있다 한다. 물장오리오름(962미터)은 성판악 동북에 있어 예부터 성소로 돼 있었던 듯『탐라지』에도 영험이 뚜렷이 나타나는 땅이라는 글이 있다.

–『제주도(済州島)』<제1부 제주도민족지, 제2장 촌락연구, 제1절 주민과 역사>



022

제주도

済州島

Jeju folklore research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66 | 양지 | 21.4×15.5

자체수집 | 미상 | 아카이브 자료

『제주도(済州島)』는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1915~1970)가 문화인류학적 방법으로 제주도를 정리한 3부 구성의 보고서이다. 1부에는 1936년부터 1937년까지 제주도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리한 당시 제주의 자연환경과 의식주, 종교, 언어, 풍습 등이 수록되어 있고, 2부에는 1950년 한국전쟁기 도쿄로 이주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조사, 3부에는 1965년 제주 재방문을 통한 30년간의 제주 변화상 비교조사 결과가 담겨 있다. 흙으로 제주를 만든 거인 여신 설문대할망 전설은 1936년에서 1937년 사이 대정읍 수기동에서 채록된 것이다.

023

남국의 전설

南國傳說

Legends of
the southern land(Jeju)

진성기
1967 | 양지 | 19.0×13.3
기증 | 2019 | 아카이브 자료

『남국의 전설』은 전 제주민속박물관장 진성기(1936~)가 저술한 제주도 설화 모음집이다. 신화, 전설, 민담, 실기 등 총 4개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1편의 설화가 수록되어 있다.

설문대할망 전설은 제주도 내 곳곳에서 지역의 향토색을 가미하며 전승되어 왔다. 『남국의 전설』에는 설문대할망과 관련한 다양한 서사의 편린(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게 된 과정, 남편과 아들의 죽음, 제주도 내 각종 지형의 탄생 유래와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들이 한 편의 이야기로 정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오백장군의 어머니 설문대할망은 굉장히 키가 클 뿐만 아니라 힘도 세었다. 흙을 파서 삽으로 일곱 번 떠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으며, 도내 여러 곳의 산들은 다 이 할머니가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한 덩이의 흙들이다. 그리고 오백 형제나 되는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 한다.

어느 해 흉년이었다. 아들들이 도둑질로 다 나가버렸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죽을 쑤다가 잘못하여 그 커다란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어늬 때 없이 죽 맛이 좋았다.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아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죽 맛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자로 죽 솥을 휘저었다. 뭔가 국자 끝에 걸리었다. 뼈다귀였다. 계속해서 휘저었다. 그러자 사람의 두개골 같아 보이는 뼈가 나왔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보이질 않았다. 아버지는 죽을 휘젓다가 빠져 죽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래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멀리서 아버지를 그리며 울다 보니 화석으로 굳어져 버렸다.

여기에 남편과 또 그 많은 아들들을 잃어버린 설문대할망은 홀몸이 되었다. 인자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단신이라 만단수심을 다 잊어버리고자 나다녔다. 할머니는 한라산을 벼개 삼고 누우면 발끝은 바닷물에 잠기어 물장구를 쳤다. 그리고 빨래를 할 때만 하여도 한 쪽 발은 한라산, 또 한 쪽은 관탈섬을 디뎠다. 그리고 서귀포와 법환리의 앞 바다에 있는 섶섬에는 커다란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데, 이것은 이 할머니가 누운 때 잘못 발을 뻗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도민들에게 명주 백동을 모아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준다면 본토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마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도민들은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았으나 꼭 한 동이 모자랐다. 육지와의 다리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조천리에 있는 '엉장매코지'는 이 할머니가 놓으려던 다리의 흔적이며, 신촌리의 암석에 있는 큰 발자국은 그 때의 자취이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하였다. 그래서 용연물(제주시 용담동 해변에 있음)이 깊다기에 들어섰더니 발등에 겨우 닿았으며, 홍릿물(서귀읍 서홍리에 있음)에는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한라산의 물장오리 물은 밑이 없는 연못이라 나오려는 찰나에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다.

-『남국의 전설』<제1편 신화, 제2부, 6. 설문대할망>

한반도 내륙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제주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지형 구조와 난대·온대·한대로 구분되는 고도별 기온차 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 생태 환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위도상 제주도가 다양한 생물 분포의 지리적 경계에 위치하면서 좁은 면적에 비해 다양한 종이 분포하고 있다.

풍부한 생물종을 지닌 제주와 한라산은 과거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읍지(邑誌)와 시문(詩文) 등을 통해 독특한 제주의 식생에 대해 소개했으며, 동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본격화되는 20세기 이후부터는 한라산이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2

한라산의 생명

1. 18세기 한라산 자연 생태

전근대 시기 제주와 한라산의 자연 생태를 소개하는 대표 자료를 고르라면 단연 『남환박물(南宦博物)』을 꼽을 수 있다. 18세기 제주도 및 그 주변 도서의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담은 지방지로, 당시 제주의 생태와 관련하여 동물 48종과 식물 89 분류군을 수록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집중된 기록으로 제주도 전반을 살펴보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지만,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탐라지(耽羅志)』 등 다른 문헌에 비해 풍부한 기록을 담은 자료로 평가받는다.

『남환박물』 내 제주의 생물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지지(誌地, 지리)', '지금(誌禽, 날짐승)', '지수(誌獸, 들짐승)', '지초(誌草, 풀)', '지목(誌木, 나무)', '지과(誌果, 과수원)', '지어(誌魚, 물고기)', '지약(誌藥, 약재)'조 등이 있다. 이 중 제주도 해양·해안 지역과 국내 대다수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제외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박물관 소장 표본자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 중에는 오늘날 제주와 한라산에 분포하지 않는 대륙사슴과 멧돼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8세기 당시 한라산과 오름에 사는 대표적인 수렵종이었으나 현재는 절멸된 것이다. 이를 통해 『남환박물』이 제주 지역 생물의 사적 변천을 유추하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12

남환박물

고고민속 10411

매, 꿩, 까마귀, 솔개, 제비(칼새는 없다), 참새, 갈매기, 백로, 두루미, 두견새, 앵무새, 기러기, 올빼미, 부엉이가 있고, 황새, 까치는 없다. 『지지』에 부엉이가 없다고 한 것은 잘못 전한 것이다.

禽有鷹雉烏鵓鷰無胡鷰雀鷗鷺野鶴鵑鷺鴈梟鵂鶹無鸛鵲地法無鵂鶹者誤傳也.

– 『남환박물(南宦博物)』<지금(誌禽)>



024

매

Peregrine Falcon
Falco peregrin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57.5
자체수집 | 2007 | 동물조류 969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서귀포시

025

참매

Northern Goshawk
Accipiter gentili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48.2
구입 | 1981 | 동물조류 116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026

꿩

Ring-necked Pheasant
Phasianus colchic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98.9
자체수집 | 2012 | 동물조류 1041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27

큰부리까마귀

Lage-billed Crow
Corvus macrorhyncho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50.2
자체수집 | 2016 | 동물조류 1126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028

솔개

Black Kite
Milvus migran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65.2
기증 | 1992 | 동물조류 767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029

두견이

Lesser Cuckoo
Cuculus poliocephal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27.8
기증 | 2020 | 동물조류 1183
천연기념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030

큰기러기

Bean Goose
Anser fabail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87.5
구입 | 1993 | 동물조류 772



031

칡부엉이

Long-eared Owl
Asio ot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47.5
수집 | 2009 | 동물조류 992
천연기념물
제주도

032

솔부엉이

Brown Hawk Owl
Ninox scutulata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34.1
수집 | 2011 | 동물조류 1034
천연기념물
제주시 이도1동



살쾡이, 오소리, 돼지, 사슴(세속에서 전하기를, “바닷물고기가 노루·사슴으로 변화하였는데, 혹 반만 변하여 아직 변하지 못한 것도 있다.”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비록 한라산이 크지만 산허리를 제외하면 그 아래에는 말 목장을 설치하였으니, 길이와 넓이는 수백 리 미만이다. 1년 동안 공과 사에서 잡는 바를 모두 계산하면 수천에 이르지만, 끝내 희귀한 때가 없었다. 변화했다는 이야기는 이치가 확고하여 그럴 듯하다.) 등이 있다. 호랑이, 표범, 곰, 큰곰, 승냥이, 이리, 여우, 토끼 등의 종류는 없다.

獸有狸猫土猪猪獐鹿該溥海魚化爲獐鹿或有半變未及化者余見漢拏雖大除其山腰以下馬場所設處則長廣不滿數百里而公私所捉一年竝計當至數千終無稀貴之時變化之說理固然矣而無虎豹熊羆豺狼狐兎之屬.

-『남환박물(南宦博物)』<지수(誌獸)>



033

삵

Small Eared Cat

Felis bengalensiseuptilura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90.5
구입 | 1982 | 동물포유류 1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034

오소리

Asian Badger

Meles leucur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82.2
자체수집 | 2018 | 동물포유류 137
제주시 노형동(천왕사 입구)



035

노루

Roe Deer

Capreolus pygarg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87.2
구입 | 1982 | 동물포유류 7



036

멧돼지

Wild Boar

Sus scrofa corean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172.2
기증 | 1982 | 동물포유류 20
제주시 봉개동



037



038



039



040



041



042

037

홍지네고사리

Autumn Fern
Dryopteris erythrosora

현생 | 건조표본 | 92.0×20.0
구입 | 2019 | 관속식물 4569
제주시 오등동

038

띠

Baldy Grass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현생 | 건조표본 | (중)52.0×13.4
자체수집 | 1997 | 관속식물 3619
제주시 일도2동(신산공원)

039

곰비늘고사리

Uniform Wood Fern
Dryopteris uniformis

현생 | 건조표본 | 75.5×16.4
기증 | 2019 | 관속식물 4762
제주시 오등동

040

고사리

Eastern Brakenfern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현생 | 건조표본 | 44.2×24.2
자체수집 | 1996 | 관속식물 3609
제주시 해안동

041

왕지네고사리

King Wood Fern
Dryopteris monticola

현생 | 건조표본 | 136.8×26.2
구입 | 2019 | 관속식물 4691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042

고사리삼

Glabrous-ternate Grapefern
Sceptridium ternatum

현생 | 건조표본 | 23.8×10.8
구입 | 1981 | 관속식물 990
제주시 봉개동(물장오리)

풀은 거친 띠가 많은데, 길이가 혹 인(仞: 약 2.4미터)을 넘는다. 채소는 고비, 고사리가 많고 말뚝처럼 서 있어서 묶여 있는 것과 같다. 상추, 질경이, 무, 양하의 부류는 겨울과 여름에도 오래도록 푸르다. 또 향소가 많은데, 세사는 없다.

草多荒茅長或過仞菜多薇蕨檵立如束萵苣蔓菁蘘荷之類冬夏長青且多香蔬而無細莎.

–『남환박물(南宦博物)』<지초(誌草)>

영주실은 한라산 꼭대기에서 나는데 열매는 능금 같다. 빛은 검고 달다. 녹각실은 육지에서는 녹실자라 하는 것이다. 육지에서 나는 것은 열매가 푸르고 먹지 못하는데, 이곳의 것은 색이 붉고 달며 감촉이 부드럽다. 연복자는『제주풍토록』에 "열매의 크기는 모과와 같고 껍질은 붉은 흑색이다. 이것을 갈라보면, 씨는 으름과 같으면서도 달라서 으름에 비해 씨가 조금 크고 맛은 조금 진하다. 대개 으름 종류이나 조금 크다. 듣기로는 전라남도 해남 등의 주변 바닷가에 혹 있다고 하나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해남 등지에 과연 있는지를 의약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줄기를 채취하여 으름덩굴의 말린 줄기를 베어 쓰면 효력이 배나 뛰어나다."라고 한다.

瀛洲實生漢拏山上實如奈色黑而甘塵角實卽陸地謂鹿貫子熏産則實靑而不食此則色丹而甘滑燕覆子風土錄實大如木瓜皮丹黑剖之則子如林下夫人而異子差大味差濃蓋林下夫人之種而差大聞海南等邊海處或有之州記曰海南等地果有之問於解醫者則採其藤代木通用之功效倍勝.

-『남환박물(南宦博物)』<지과(誌果)>



043

시로미

Crowberry
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현생 | 건조표본 | 25.5×24.1
자체수집 | 1985 | 관속식물 2557
제주시 오라동(탐라계곡)



044

멀꿀

Stauntomia Vine
Stauntonia hexaphylla

현생 | 건조표본 | 80.0×13.2
자체수집 | 1988 | 관속식물 3067
제주시 아라동

045

으름덩굴

Five-leaf Chocolate Vne
Akebia quinata

현생 | 건조표본 | 28.5×23.8
구입 | 2019 | 관속식물 4495
서귀포시 상효동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에는 푸른 풀 더미가 귀엽고 잡목은 하늘을 가리웠다. 동백, 춘백, 산유자나무, 이년목, 영릉향, 녹각, 소나무, 비자, 측백, 황벽, 붉은밤나무, 가시밤나무, 용목, 가죽나무, 뽕나무, 단풍나무, 칠나무, 후박나무 등이 있다. 이들이 모여서 우산과 같이 덮여 있다. 신선 땅의 화초인 구슬 꽃과 구슬 풀(혹은 푸르고 혹은 희고 혹은 붉고 혹은 노랗다.)이 더부룩이 솟아올라 푸르다. … 중략… 혹 만향과 철쭉이 바위 틈에 둘리어 이어져 있는데 맑고 깨끗하며 작달막하므로 반분(盤盆)에 그것을 심은 것 같다. 모두 마땅히 제일의 정묘한 작품이다.

曲曲谿澗蔥蒨可愛蔽天雜木冬春栢山柚子二年木零陵香鹿角松椏子側栢黃蘗赤栗加時栗龍木樗木桑木楓木漆木厚朴簇立傘覆曲曲谿澗蔥蒨可愛蔽天雜木冬春栢山柚子二年木零陵香鹿角松椏子側栢黃蘗赤栗加時栗龍木樗木桑木楓木漆木厚朴簇立傘覆琪花瑤艸或青或白或紅或黃蒨鬱聳翠 ‥中略‥ 或有蔓香躑躅縈絡於巖隙介介矮盤盆而植之皆當爲第一妙品.

–『남환박물(南宦博物)』<지지(誌地)>



046

동백나무

Common Camellia
Camellia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 30.2×11.8
구입 | 2019 | 관속식물 4354
서귀포시 도순동



047

붉가시나무

Red-wood Evergreen Oak
Quercus acuta

현생 | 건조표본 | 36.0×20.0
구입 | 2019 | 관속식물 4409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048

종가시나무

Ring-cup Oak
Quercus glauca

현생 | 건조표본 | 31.8×21.4
구입 | 2019 | 관속식물 4517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효돈천)





049

상수리나무

Sawtooth Oak
Quercus acutissima

현생 | 건조표본 | 34.2×33.4
구입 | 1981 | 관속식물 1127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성판악)

050

참가시나무

Willow-leaf Evergreen Oak
Quercus salicina

현생 | 건조표본 | 36.4×38.0
구입 | 2019 | 관속식물 4525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효돈천)

051

비자나무

Nut-bearing Torreya
Torreya nucifera

현생 | 건조표본 | 32.8×26.2
자체수집 | 1988 | 관속식물 2976
제주시 일도2동(신산공원)

052

구상나무

Korean Fir
Abies koreana

현생 | 건조표본 | 30.0×17.2
자체수집 | 1988 | 관속식물 3003
제주시 아라동(산천단)

053

소나무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현생 | 건조표본 | 35.2×34.0
구입 | 2019 | 관속식물 4727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054

구실잣밤나무

Siebold's Chinquapin
Castanopsis siebidii

현생 | 건조표본 | 26.8×30.2
구입 | 1981 | 관속식물 1143
서귀포시 상효동(돈내코)

055

황칠나무

Korean Dendropanax
Dendropanax morbiferus

현생 | 건조표본 | 36.0×34.1
구입 | 1981 | 관속식물 689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수악교)



056

눈향나무

Dwarf Juniper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

현생 | 건조표본 | 31.2×21.5
구입 | 1981 | 관속식물 1158
서귀포시 서호동(윗세오름)

057

단풍나무

Palmate Maple
Acer palmatum

현생 | 건조표본 | 26.8×22.2
구입 | 1981 | 관속식물 206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광령계곡)


059


058


060

058

멀구슬나무

China Berry
Melia azedarach

현생 | 건조표본 | 38.5×29.5
구입 | 2019 | 관속식물 4628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059

때죽나무

Snowbell Tree
Styrax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 31.1×33.4
구입 | 1983 | 관속식물 1767
제주시 해안동(어승생)

060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Zelkova serrata

현생 | 건조표본 | 34.2×24.6
자체수집 | 1988 | 관속식물 2995
제주시 연동

061

산철쭉

Korean Azale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현생 | 건조표본 | 22.6×29.4
구입 | 1981 | 관속식물 1126
서귀포시 하원동(영실)

062

참꽃나무

Weyrichii Rosebay
Rhododendron weyrichii

현생 | 건조표본 | 31.2×26.2
구입 | 2019 | 관속식물 4526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오미자의 몸체는 산포도(山葡萄)만하고, 빛깔은 붉으면서도 검다. 조금 시지만 맛이 매우 달아서 절미(絶味)라고 일컫는다. 비록 『본초강목』과 선배들이 그것을 보고 논한 바를 보더라도, 『본초강목』에 이르기를, "조선에서 나는 것은 좋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르기를 "맛이 단 것을 상(上)으로 친다."라고 하였다. 앞서 정신(正臣)인 김정의 『제주풍토록』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은 열매가 자줏빛이면서 작고, 맛이 매우 신데도 오히려 『본초강목』의 내용에서 귀중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니, 제주 땅에서 생산된 것은 반드시 천하에서 최고임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五味子體如山葡萄色赤黑少酸多甘余之狀啓略曰本島五味子世稱絶味雖以本草及先輩所論觀之本草曰産朝鮮者良乂云味甘者爲上先正臣金淨濟州風土錄曰我國産者實紫少味多酸猶見重於本草此土産者必高於天下無疑矣.

-『남환박물(南宦博物)』<지약(誌藥)>

063

남오미자

Kadsura Vine
Kadsura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 35.5×13.8
구입 | 1981 | 관속식물 582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동백동산)

064

오미자

Five-flavor Magnolia Vine
Schisandra chinensis

현생 | 건조표본 | 17.8×28.2
자체수집 | 1989 | 관속식물 3167
제주시 아라동

065

흑오미자

Black-berry magnolia Vine
Schisandra reparda

현생 | 건조표본 | (좌)31.0×7.2
자체수집 | 1989 | 관속식물 3151
제주시 아라동(관음사)



064



063



065

2.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 한라산

산업화와 세계화는 인류에게 막대한 부와 편의를 안겨주었지만 문화와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문화를 표준화하려는 시도로 인해 독특한 지역문화는 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토착화된 제주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와 한라산의 자연식생은 섬이라는 지리적 요건, 화산 활동으로 인해 높은 고도로부터 완만히 형성된 지형적 요건을 비롯하여 해안지대 중심의 마을 형성, 한라산에 대한 생태·인문·신화적 상징성 등으로 인해 오랜 세월동안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한라산은 20세기 이후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 및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천연보호구역(1966) 및 국립공원(1970) 등 국가적 보호대상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등 전 세계적 보호대상으로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라산의 자연 가치가 널리 인정받게 된 것은 국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를 넘어, 학제 간 연합을 통한 한라산 종합 조사 덕분이었다. 이번 장을 통해 한라산 종합학술연구조사 자료를 소개하고, 이러한 성과들을 통해 국내 및 국제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는 생물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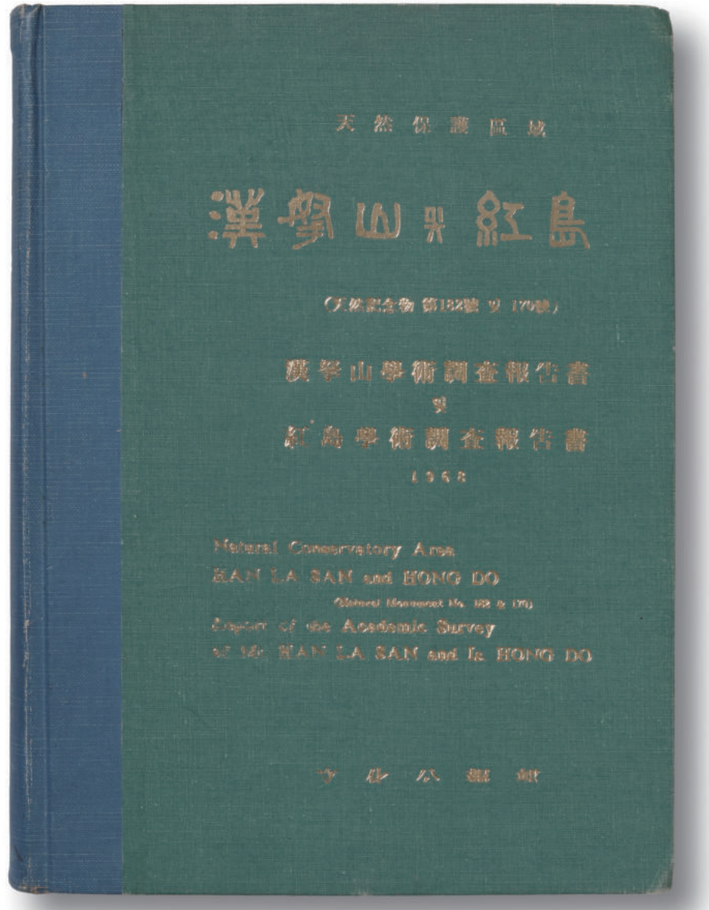
066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및 홍도

天然保護區域 漢拏山 紅島
Natural Conservatory Area
HAN LA SAN and HONG DO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1968 | 양지 | 26.3×19.5
자체수집 | 2021 | 아카이브 자료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당대 국내 최고 연구진을 소집하여 조직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조사단(단장 박만규)의 학술조사 결과보고서이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공원설계 전문가인 하아드(William J. Hart)가 '관광적 가치', '역사적 가치', '과학적 가치'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한라산 학술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추진되었고, 조사기간은 1964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였다. 조사 결과 한라산은 각종 희귀 동·식물 등이 분포하는 지역이자 자연자원의 보전 가치 및 연구 가치가 대단히 높은 곳으로 평가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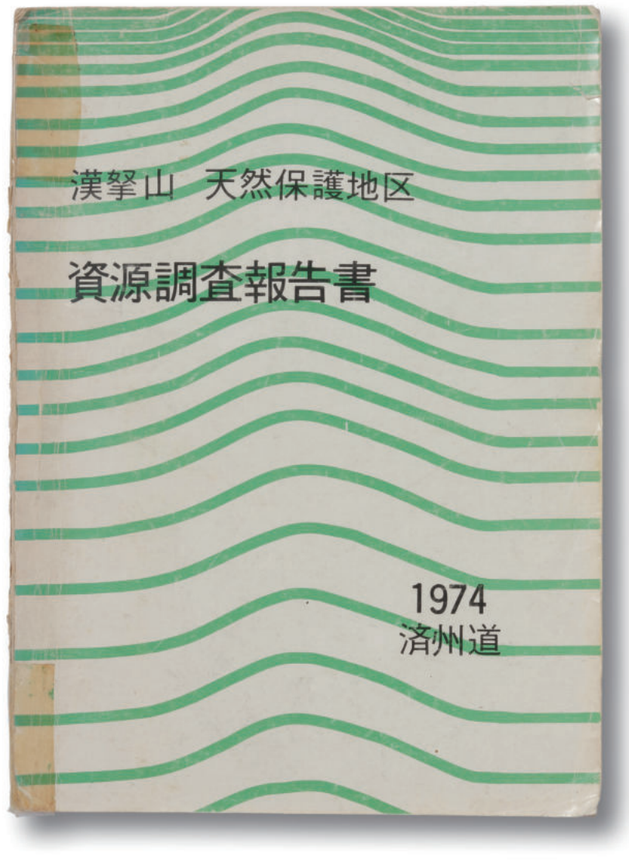
067

한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

漢拏山 天然保護地区 資源調査報告書
Report for resource research on
Hallasan Mountain Natural Reserve

제주도(濟州道)
1974 | 양지 | 25.9×19.0
자체수집 | 미상 | 아카이브 자료

한라산의 주요 경관, 계곡, 동굴, 식물 및 조수 자원, 표고자원 등에 대한 종합 보고서로, 제주 출신 식물학자 부종휴(1926~1980)가 집필했다. 부종휴는 1946년 김녕초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학생들과 함께 '굴 탐사'에 나서 만장굴을 최초로 발견했으며, 한라산을 350여 회 등반하면서 학계에 밝혀지지 않았던 300여 종의 식물을 찾아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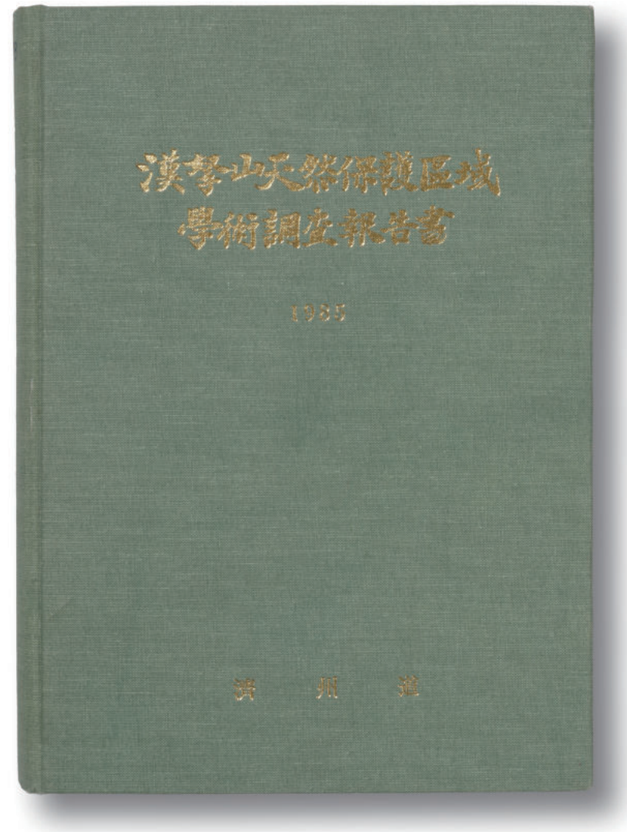
068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漢拏山天然保護區域 學術調査報告書
Report for academic research on
Hallasan Mountain Natural Reserve

제주도(濟州道)
1985 | 양지 | 26.1×19.5
자체수집 | 미상 | 아카이브 자료

제주대학교(단장 김형옥)에서 1985년 7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행한 한라산 학술조사의 결과보고서이다. 한라산의 기후, 지형 및 지질, 토양, 식물, 곤충,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을 비롯하여 주요 등반로 훼손 실태를 조사하여 한라산 이용 및 보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제주대학교 교수진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 출신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제주도 식물 1,795종을 수록하는 성과를 내었다.



069

새매

Eurasian Sparrowhawk
Accipiter nis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37.8
자체수집 | 2012 | 동물조류 1040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일도2동



070

붉은배새매

Chinese Sparrowhawk
Accipiter soloensi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29.3
구입 | 1981 | 동물조류 15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하원동(영실)



071

벌매

Oriental Honey Buzzard
Pernis ptilorhynch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68.3
자체수집 | 2004 | 동물조류 930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색달동(1100고지)



072

쇠부엉이

Short-eared Owl
Asio flamme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34.5
구입 | 1981 | 동물조류 100
천연기념물
제주시 노형동

073

소쩍새

Oriental Scops Owl
Otus sunia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22.5
자체수집 | 2007 | 동물조류 975
천연기념물
제주시

074

큰소쩍새

Japanese Scops Owl
Otus semitorque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30.5
자체수집 | 2007 | 동물조류 971
천연기념물
서귀포시



075

원앙(수컷)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42.8
기증 | 2009 | 동물조류 990
천연기념물
제주도외(영월군)

076

원앙(암컷)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43.1
기증 | 2009 | 동물조류 991
천연기념물
제주도외(영월군)





077

황조롱이

Common Kestrel
Falco tinnuncul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39.2
자체수집 | 2007 | 동물조류 970
천연기념물
제주도



078

큰말똥가리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69.9
기증 | 2006 | 동물조류 942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대정읍



079

팔색조

Fairy Pitta
Pitta nympha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20.6
자체수집 | 2017 | 동물조류 1146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일도2동



080

긴꼬리딱새

Black Paradise Flycatcher
Terpsiphone atrocaudata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39.2
기증 | 1983 | 동물조류 451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081

붉은해오라기

Japanese Night Heron
Gorsachius goisagi

현생 | 박제표본 | 전장 42.2
자체수집 | 2007 | 동물조류 958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봉개동



082

비바리뱀

Chinese Many-tooth Snake
Sibynophis chinensis

현생 | 액침표본 | 몸길이 20.0
자체수집 | 2002 | 동물파충류 40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제주시 아라동

083

산굴뚝나비

Russian Grayling
Hipparchia autonoe

현생 | 건조표본 | 몸길이 2.1
자체수집 | (좌)2012, (우)1978
동물곤충 11148, 265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서귀포시 서호동(윗세오름),
서귀포시 토평동(백록담)





084

두점박이사슴벌레

Two-spotted Sag Beetle
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

현생 | 건조표본 | 몸길이 4.4
자체수집 | (좌)2007, (우)2003
동물곤충 9180, 8755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서귀포시 상예동



085

물장군

Giant Water Bug
Lethocerus deyrollei

현생 | 건조표본 | 몸길이 6.3
자체수집 | 1987 | 동물곤충 5004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86

애기뿔소똥구리

Aegibbulsoddongguri
Copris tripartitus

현생 | 건조표본 | 몸길이 1.9
자체수집 | (좌)1978, (우)1980
동물곤충 361, 367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성산읍(일출봉),
제주시 아라동(관음사)



087

왕벚나무

Oriental Cherry
Prunus yedoensis

현생 | 건조표본 | 37.9×24.3
자체수집 | 2009 | 관속식물 4488
천연기념물(자생지)
제주시 봉개동

088

만년콩

East Asian Euchresta
Euchresta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 63.5×22.6
자체수집 | 1994 | 관속식물 3434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제주시 연동(한라수목원)







089

암매

Pincushion Plant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현생 | 건조표본 | 7.0×14.5
자체수집 | 1985 | 관속식물 2644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서귀포시 토평동(백록담)

090

풍란

Wind Orchid
Neofinetia falcata

현생 | 건조표본 | 6.5×7.0
자체수집 | 1994 | 관속식물 3496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농촌진흥원 배양표



091

개가시나무

Red-bark Oak
Quercus gilva

현생 | 건조표본 | 23.2×26.5
자체수집 | 1994 | 관속식물 3466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092

대흥란

Big-rrot Cymbidium
Cymbidium nipponicum

현생 | 건조표본 | 30.5×2.6
자체수집 | 1999 | 관속식물 3695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상효동(돈내코)



093

두잎약난초

Two-leaf Cremastra
Aplectrum unguiculatum

현생 | 건조표본 | 36.5×3.4
구입 | 1981 | 관속식물 146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봉개동(물장오리)

094

무주나무

Japanese Lasianthus
Lasianthus japonicus

현생 | 건조표본 | 31.3×19.2
자체수집 | 1999 | 관속식물 3699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상효동 남서교



095

산분꽃나무

Manchrian Viburnum
Viburnum burejaeticum

현생 | 건조표본 | 28.1×25.8
구입 | 1983 | 관속식물 1959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한라산



096

백운란

Baekun Kuhlhasseltia Orchid
Vexillabium yakusimense var. nakaianum

현생 | 건조표본 | (우)12.4×1.5
자체수집 | 1999 | 관속식물 369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천아오름)





097

삼백초

Asian Lizard's Tail
Saururus chinen

현생 | 건조표본 | 61.2×20.5
자체수집 | 1994 | 관속식물 3471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연동(한라수목원)

098

손바닥난초

Fragrant Orchid
Gymnadenia conopsea

현생 | 건조표본 | 17.5×14.8
구입 | 1981 | 관속식물 1410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한라산



099

솔잎난

Whisk Fern
Psilotum nudum

현생 | 건조표본 | 27.5×13.1
구입 | 1981 | 관속식물 1031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보목동

100

순채

Watershield
Brasenia schreberi

현생 | 건조표본 | 61.5×17.5
구입 | 1983 | 관속식물 2062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01

연잎꿩의다리

Korean Meadow-rue
Thalictrum coreanum

현생 | 건조표본 | 40.2×19.8
구입 | 1981 | 관속식물 128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동수악)





102

제주고사리삼

Jeju Grapefern
Mankyua chejuense

현생 | 건조표본 | (좌)11.2×6.1
자체수집 | 2004 | 관속식물 4014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03

죽절초

Glabrous Sarcandra Herb
Sarcandra glabra

현생 | 건조표본 | 48.9×22.2
자체수집 | 1994 | 관속식물 341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귀포시 상효동(남부육종장)



104

혹난초

Barley-like Orchid
Bulbophyllum inconspicuum

현생 | 건조표본 | 15.9×4.4
구입 | 1981 | 관속식물 100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비자림)

3

한라산 생활사

예로부터 한라산은 제주인의 생활 무대이자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근원이었다. 한라산에서 채집한 동식물은 의식주 생활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쓰였고, 고려시대 이후 중산간 지대에 설치된 목장에서 생산한 우마(牛馬)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진상품이었다. 한편 19세기 이후 폐장된 목장을 이용한 경작이 활발해져, 조, 콩 등 식량을 생산하는 터전(화전동)이 형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생업의 터전으로서의 한라산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일제강점기 이후 한라산이 가진 산림 자원에 대한 국가 규제가 커지고, 지형과 지질, 동식물 생태에 대한 가치 연구가 활발해지며 보전을 위한 조치가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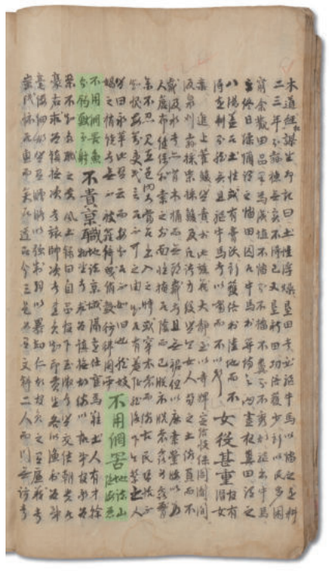
1. 한라산 사냥문화

한라산 어승생에는 '아흔아홉골' 전설이 깃들어 있다. 백 골을 이루기에 한 골이 부족해 제주도에는 호랑이, 곰, 임금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한라산에는 예로부터 곰, 호랑이, 이리 등과 같은 짐승은 없고 사슴(지금은 절멸), 노루, 오소리, 꿩 등이 많았다.
옛 제주인들은 사냥을 통해 식량과 가죽을 얻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조정에 공물로 진상하기 위해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사슴과 노루를 다수 수렵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 비교적 최근까지 행해졌던 일반 민가에서의 사냥은 동물의 습성과 지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몰이사냥 방식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오소리 사냥은 오소리가 몸집이 커지고 활동 반경을 줄이는 가을(상강에서 동지까지)과 겨울(동지에서 대한까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루 사냥은 눈을 매개로 몰이 후 포획하기 위하여 상강 이후에 벌어졌다. 이와 달리 꿩 사냥은 사냥개와 올가미, 덫, 총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연중 행해졌다.



105
화살과 화살통
箭, 箭筒
Arrow and Quiver

조선 | 나무 | 화살 길이 83.2(17개), 통 길이 92.0
기증 | 1990 | 고고민속 4970



012
남환박물
고고민속 10411

『남환박물(南宦博物)』 '지속(誌俗)' 조에는 18세기 초반 제주의 사냥 풍속이 소개되어 있다. 덫은 사용하지 않고 쏘아 잡는다고 하였는데, 한라산 중산간 지대인 조천읍 교래리 일대에서 벌어졌던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교래대렵(橋來大獵)' 풍경을 묘사하는 듯하다.

그물과 덫을 사용하지 않는다. 《지지》에 "산은 험하고 바다는 모질어서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고기는 낚고, 짐승은 쏘아 잡는다."라고 하였다.

– 『남환박물』<지속(誌俗)>



106
쇠창
鐵矛
Iron spear

20세기 | 철 | 길이 21.2
구입 | 1986 | 고고민속 4030



107
쇠창
鐵矛
Iron spear

20세기 | 철 | 길이 24.3
구입 | 1986 | 고고민속 4031



108
쇠창
鐵矛
Iron spear

20세기 | 철 | 길이 38.6
구입 | 1987 | 고고민속 4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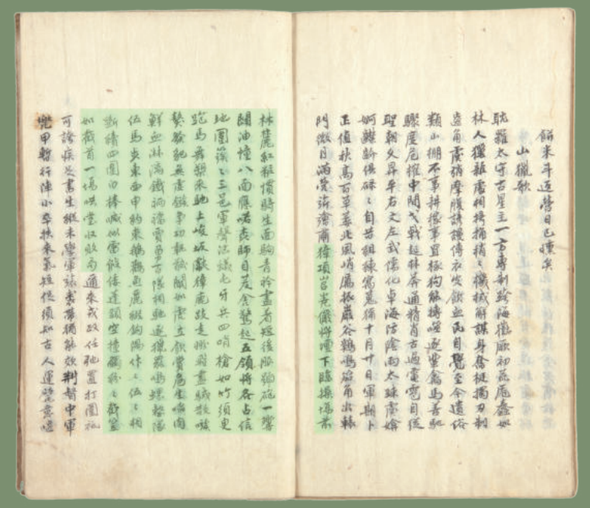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교래대렵(橋來大獵)'은 1702년(숙종 28) 10월 11일에 교래 지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이다. 사슴과 노루를 쫓는 모습이 생동감 있고, 왼쪽에 그려진 고초기(高招旗)들이 화려하다. 고조기(高照旗)라고도 하는 고초기는 군대를 지휘하고 호령할 때 쓴 군기로 행로를 가르거나 합치는 신호로 쓰였다고 한다. 이날 사냥에 참여한 관원은 삼읍 수령과 감목관이며 사냥에 동원된 인원은 말을 타고 사냥하는 마군(馬軍) 200명, 걸어서 짐승을 일정한 장소로 모는 보졸(步卒) 400여 명, 포수(砲手) 120명이며, 사냥을 통해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를 잡았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참고자료

조선시대 군민(軍民)들의 사냥 풍경





노루목 높은 곳에 자리한 장대(將臺)에서 위엄을 갖추고, 숲 앞에 있는 조련장을 내려다보니, 붉은 단장을 한 기녀들은 익숙하게 처음 보는 말을 타고, 청금(靑衿, 유생)은 모두 단후복(短後服)을 입고 있는데, 호포(號砲) 소리가 기름장막을 헤치며 퍼지니, 팔면(八面)에서 응답하며 3사(三師)가 주시하고, 우사(芟舍)에서 놀라 일어난 5인의 영장(領將)은, 각각 미리 정한 곳을 지켜 빽빽하게 에워쌌는데. 3읍의 군사소리가 개미떼 같은 진(陣)에서 흘러나오고, 아병(牙兵) 4초(哨)의 창은 대나무 같이 촘촘히 늘어섰다네. 잠깐사이 말을 달려 창을 놀리며 와서는, 가파른 언덕을 달려 올라와 노루와 사슴을 바치니, 달리고 날며 모든 말들은 흘어지고, 개를 부리고 돼지를 쏨에 빗맞는 화살이 없다네.

공을 다투며 사냥을 함에 용맹함은 호랑이와 같고, 상으로 준 술잔을 서서 마시며 날것으로 고기를 씹으니, 선혈이 철양당(鐵襄襠)으로 흐르는 가운데, 우쭐거리며 뽐내는 무리를 서로 달려가서 쫓는데.

사냥을 마치는 나팔을 불어 대오를 정돈하니, 마병과 보병이 동과 서로 거듭 약속하며 펼치니, 아관(鵝鸛)과 어리(魚麗)가 갈고리 끌을 연이은 듯, 열 명씩 다섯 명씩 서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사방을 에워싼 백봉(白俸)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며, 가왜(假倭)의 머리를 괜스레 부딪치자, 어지러이 끊어진 전립은 베어진 머리와 같고, 한바탕 떠들썩한 웃음으로 패국을 수습하네.

-『탐라록』<산렵가(山獵歌)>

『탐라록』은 이원조가 제주 목사로 임명되던 1841년 1월부터 1843년 7월까지 자신의 생활과 치적을 기록한 시문집류이다. 3책(상·중·하)으로 된 필사본이며, 공마(貢馬)와 귤과(橘果)를 봉진(封進)할 때의 일, 태풍으로 흉년을 만나 환곡(還穀)을 나누어 주고 진휼을 청하던 일, 문무시재(文武試才)를 행한 일, 한라산제·풍우뢰우제 등 국가제사를 지낸 일, 순력(巡歷)을 할 때 적은 제주도의 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기탁문중

109

탐라장계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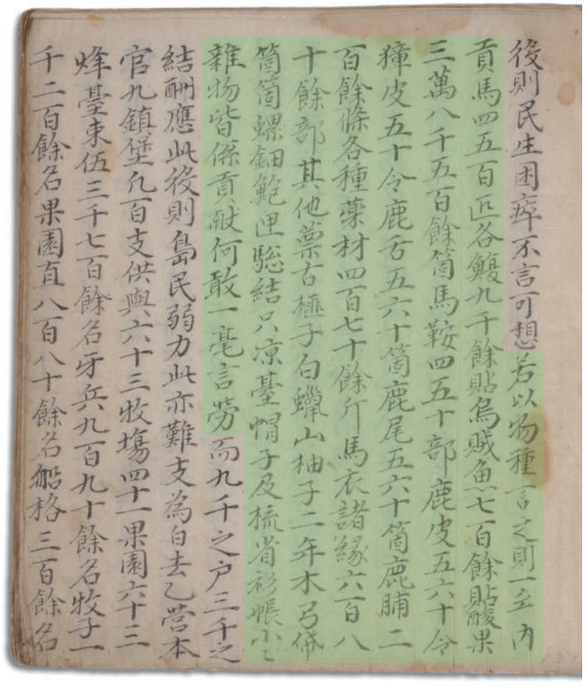
耽羅狀啓抄

Report to the king of Joseon from Jeju

병와 이형상(甁窩 李衡祥)
1702 | 한지 | 24.0×22.8
구입 | 2016 | 고고민속 10412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는 1702년(숙종 28) 이형상이 제주 목사 재임 중 조정에 장계(狀啓, 조선시대 왕명을 받고 외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를 올렸던 내용만을 추려서 별도로 엮은 1권 1책의 육필본이다. 당시 제주 사회의 각종 현안과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이형상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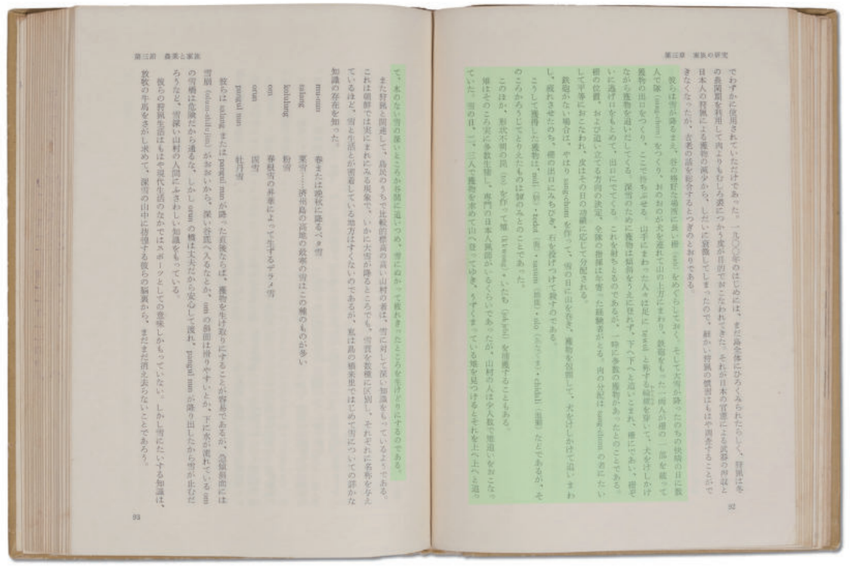
'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은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올린 장계로 제주 백성의 삶은 곤궁하나 진상품의 양이 많으니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사슴과 노루에 대한 공물의 종류와 양을 살펴볼 수 있다.



물품의 종류로 말하자면, 1년에 바치는 말이 4, 5백 필, 갖가지 전복이 9천여 첩, 오징어가 7백여 첩, 산과(酸果)가 3만 8천 5백여 개, 말안장이 4, 50부, 사슴가죽이 5, 60령, 노루가죽 50령, 녹설(鹿舌)이 5, 60개, 녹미(鹿尾)가 5, 60개, 사슴포(脯)가 2백여 조, 각종 약재가 4백 70여 근, 마의제연(馬衣諸緣)이 6백 80여 부, 기타 표고, 비자, 백납, 산유자, 이년목, 궁대(弓帒), 동개(筒箇), 나전(螺鈿), 포갑(鮑甲), 총결지(驄結只), 양대모자(凉臺帽子) 및 소성(梳省), 삼장(衫帳) 소소한 잡물들이 모두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데 관계되는 것이니, 어찌 약간 정도 고단하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제주민막장(濟州民瘼狀)>

『제주도(済州島)』에는 1930년대 중반 제주 일반 민가의 사냥 풍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노루와 꿩, 족제비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진행된 몰이사냥의 한 단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냥 참여자의 역할과 획득물 분배 방식뿐만 아니라 삽(목책)과 사냥개, 총, 테왈 등 각종 도구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022

제주도

아카이브 자료

그들은 눈이 내리기 전, 골짜기의 적당한 장소에 긴 '삽(목책)'을 쳐둔다. 큰 눈이 내린 뒤 쾌청한 날 여럿이 '상첨'을 짜 각자 개를 데리고 산 위쪽으로 사냥감을 몬다. 총을 가진 한두 사람이 울타리 일부를 뚫어서 사냥감의 출구를 만들어놓고 그곳에서 잠복한다. 산 쪽으로 돈 사람들은 발이 눈 속에 빠지지 않게 하는 '테왈'을 덧신고 개를 부추기면서 사냥감을 내몰아온다. 깊은 눈 때문에 사냥감은 경사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밀으로 밀으로 몰려오다 울타리를 만나고 울타리 따라 도망갈 구멍을 찾아 출구로 나온다. 이걸 쏘아 죽이는 것인데 한 번에 많이 잡았다고 한다. 울타리의 위치 및 내모는 방향의 결정, 전대의 지휘는 나이든 경험자가 한다. 고기는 상첨 참가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고 가죽은 그날의 공적에 따라 분배된다.

총이 없을 경우는 역시 상첨을 짜서 눈 오는 날 산을 둘러싸고 사냥감을 포위, 개를 부추겨서 이리저리 쫓아대며 피로케 한 다음 울타리 출구로 유인, 돌을 던져 죽인다. 이런 방법으로 잡았던 사냥감은 노리(노루), 대돝[大猪, 대돗], 사슴, 오로(오소리), 지다리[地獺] 등인데 그 무렵 그나마 잡을 수 있는 것은 노루뿐이라고 했다.

이밖에 형상불명의 덫을 만들어 꿩·족제비를 잡기도 한다. 꿩은 그 무렵 굉장히 많아 전문 일본인 엽사가 있을 정도였고 산촌 사람은 적은 인원수로 꿩 몰이를 하고 있었다. 눈 오는 날 두셋이 사냥감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서 웅크려 있는 꿩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로 위로 쫓아서 나무 없는 눈 깊은 곳이나 골짜기로 몰아붙여 마침내 눈에 질척거려 지쳐빠진 것을 생포한다.

–『제주도(済州島)』<제1부 제주도민족지, 제3장 가족연구, 제3절 농업과 가족>

110

사냥개

狗

Dog

2020 | 박제표본 | 전장 108.5
자체수집 | 2020 | 고고민속 12446



111

총

銃

Rifle

19세기 | 철 | 길이 125.8
구입 | 1996 | 고고민속 6367

112

총

銃

Rifle

19세기 | 철 | 길이 121.0
구입 | 1996 | 고고민속 6368



113

테왈

雪皮

Snow Shoes

20세기 | 나무, 철 | 지름 26.6(2개)
구입 | 1982 | 고고민속 2463



115

115

덫(고레덫)

獲

Trap

20세기 | 나무 | 22.2×38.1
구입 | 1983 | 고고민속 2650



116

116

덫(창애)

獲

Trap

20세기 | 나무, 철 | 길이 28.7
구입 | 1982 | 고고민속 2074

117

덫(오소리덫)

獲

Trap

20세기 | 나무, 철 | 길이 31.1
구입 | 1987 | 고고민속 4337



117

114

덫(새덫)

獲

Trap

2000년 이후 | 나무 | 지름 81.8
기증 | 2017 | 고고민속 10983





118

덫(새덫)

獲

Trap

2000년 이후 | 나무 | 길이 89.5
기증 | 2017 | 고고민속 10985

2. 한라산 목축문화

한라산 국영목장의 시작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는 예로부터 말과 소 목축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고도 200~600m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서 넓게 발달한 자연초지와 완경사면은 방목 시 풍부한 먹이와 안정적 생활을 제공하였고, 산재해 분포하는 오름들은 우마(牛馬)들이 바람과 더위를 피하는데 안식처가 되었다. 특히 제주도에 호랑이와 늑대 등 우마를 위협하는 동물이 없던 점도 큰 이점이었다.

그러나 자유로운 우마 방목이 제주도 전역에 이르게 되면서 농작물 피해, 해안지역 목초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제주마 확보를 목적으로 1430년(세종 12) 한라산 중산간 지대에 국영목장이 설치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개의 소장(十所場)으로 구역을 나누었으며, 하나의 소장에는 여러 개의 자목장이 있었다.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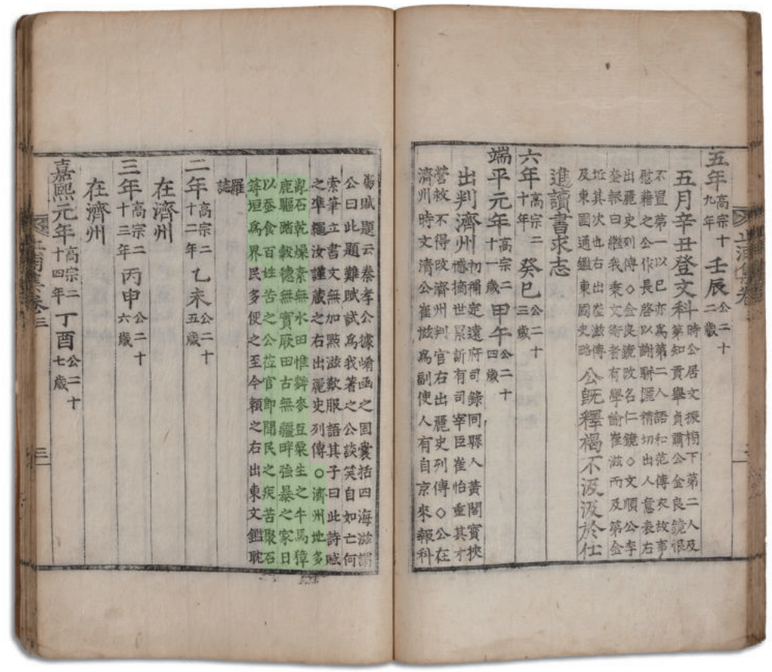
지포집

止浦集
Anthology of
Kim Gu's literary works

지포 김구(止浦 金坵)
1801 | 한지 | 34.1×21.8(2책)
구입 | 2017 | 고고민속 10715~10716

『지포집(止浦集)』은 고려 고종 때 제주 판관으로 부임(1234~1239)했던 지포 김구(金坵, 1211~1278)의 4권 2책 시문집이다. 18대손 동호(東灝)가 『동문선(東文選)』, 『고려사(高麗史)』 등에서 유문(遺文)을 뽑고, 16대손 홍철(弘哲)이 편찬한 연보(年譜)를 붙여서 순조(純祖) 원년(1801)에 간행했다.

김구가 제주 판관으로 왔던 시기 제주에는 밭의 경계가 매우 미약했다. 특히 고려 말 이제현의 『익제난고(益齋亂藁)』에 '관사의 우마들이 들판을 가득 덮고 있어 경작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우마의 농경지 침범이 빈번했다. 이에 김구는 우마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밭을 강포(强暴)한 사람들이 잠식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재한 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밭담을 쌓도록 했다.



제주는 돌이 많고 건조하여 논(수전)이 없다. 단지 보리, 콩, 조만이 자란다. 그리고 소, 말, 노루, 사슴이 곡식 싹을 밟아버려서 알맹이가 여물지 않는다. 그 밭들은 예부터 경계선이 없어서 강포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 땅을 잠식하며 백성들을 괴롭혔다. 공은 부임하여 백성의 괴로움을 듣자 돌들을 모아 울타리를 쌓아 경계선을 삼았다.

-『지포집(止浦集)』 <권(卷)3, 연보(年譜)>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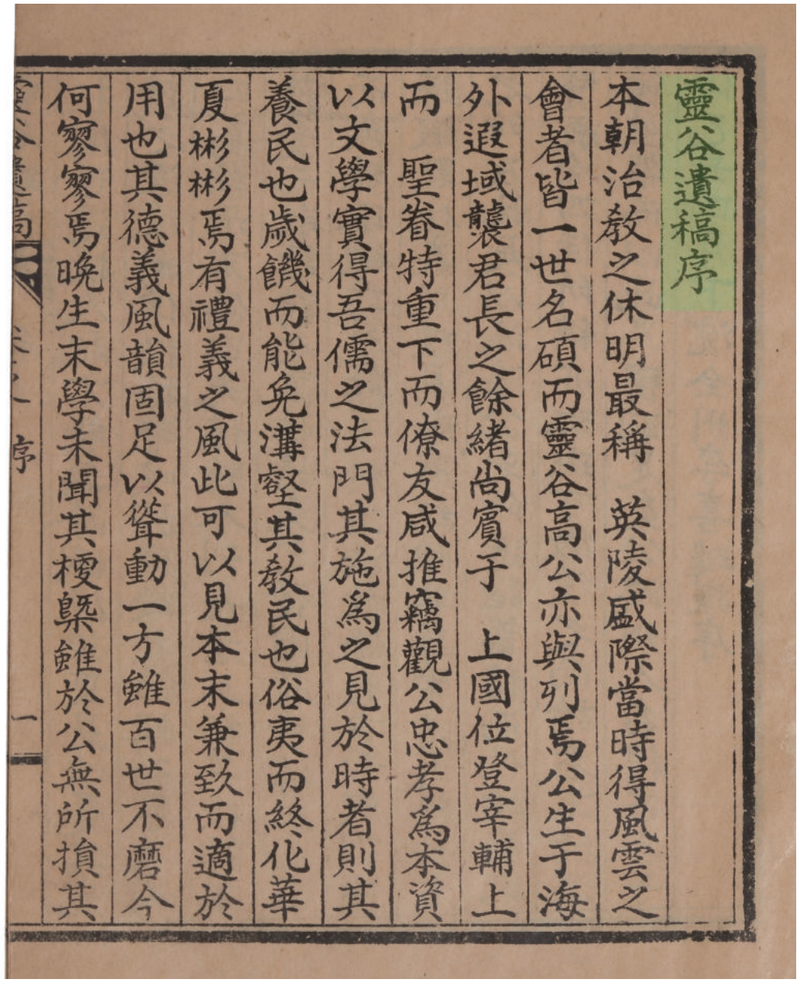
영곡유고

靈谷遺稿
Anthology
of Go Deukjong's literary works

영곡 고득종(靈谷 高得宗)
1934 | 양지 | 30.7×20.8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53

『영곡유고(靈谷遺稿)』는 조선 전기 예조참의, 중추원동지사, 한성부판윤 등을 지낸 제주 출신 영곡 고득종(高得宗, 1388~1452)의 4권 1책 시문집이다. 1934년 후손 동시(東是)가 편집, 간행하였다.

고득종은 세종 때 중앙 정부가 제주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에서 재경 관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특히 세종 11년(1429) 한라산에 국영목장 설치를 건의했고, 이듬해인 세종 12년(1430)부터 '제주한라산목장'이 시작된다.


靈谷遺稿序

本朝治教之休明最稱 英陵盛際當時得風雲之會者皆一世名碩而靈谷高公亦與列焉公生于海外遐域襲君長之餘緒尚賓于 上國位登宰輔上以文學實得吾儒之法門其施為之見於時者則其養民也歲饑而能免溝壑其敎民也俗夷而終化華夏彬彬焉有禮義之風此可以見本末兼致而適於用也其德義風韻固足以聳動一方雖百世不磨今何寥寥焉晚生末學未聞其梗槩雖於公無所損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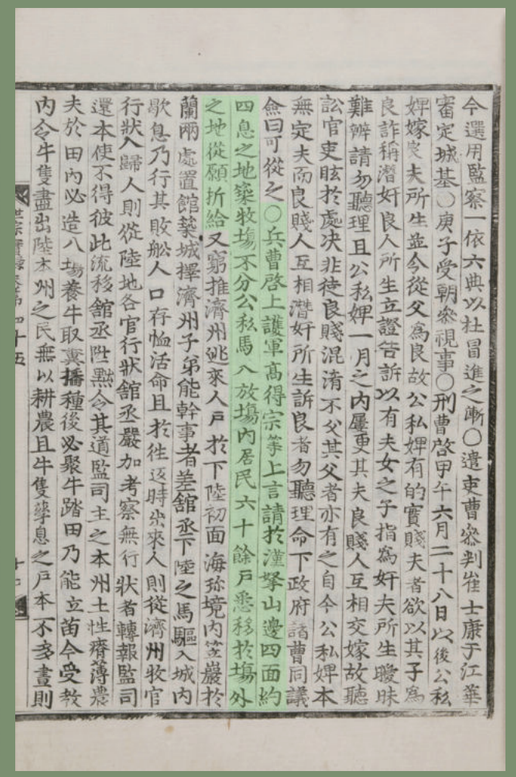
참고자료

『세종실록(世宗實錄)』 속 고득종과 한라산

병조에서 아뢰기를, 상호군(上護軍) 고득종(高得宗) 등이 상언(上言)하여 청하기를, '한라산(漢拏山) 가의 사면(四面)이 약 4식(약 120리)쯤 되는 면적의 땅에 목장(牧場)을 축조(築造)하여, 공사(公私)의 말을 가리지 말고 그 목장 안에 들여보내어 방목(放牧)하게 하고, 목장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 60여 호는 모두 목장 밖의 땅으로 옮기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땅을〉 떼어 주도록 하소서.…' 하였습니다.

- 『세종실록(世宗實錄)』<권45, 세종 11년(1429) 8월 26일(경자)>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조선왕조실록


世宗莊憲大王實錄 第二十三 日錄附


今還用監察一依六典以杜冒進之弊○遣吏曹參判崔士康于江華審定城基○庚子受朝參視事○刑曹啓甲午六月二十八日以後公私婢嫁良夫所生並令從父爲良故公私婢有的實賤夫者欲以其子爲良詐稱潛奸良人所生立證告訴以有夫女之子指爲奸夫所生曖昧難辨請勿聽理且公私婢一月之內屢更其夫良賤人互相交嫁故聽訟官吏眩於處決非徒良賤混淆不父其父者亦有之自今公私婢本無定夫而良賤人互相潛奸所生訴良者勿聽理命下政府諸曹同議啓曰可從之○兵曹啓上護軍高得宗等上言請於漢拏山邊四面約四息之地築牧場不分公私馬入放場內居民六十餘戶悉移於場外之地從願折給又窮推濟州逃來入戶於下陸初面海孤境內苦巖於蘭兩處置館築城擇濟州子弟能幹事者差館丞下陸之馬驅入城內歌息乃行其敗船人口存恤活命且於往返時來來人則從濟州牧官行狀入歸人則從陸地各官行狀館丞嚴加考察無行狀者轉報監司還本使不得彼此流移館丞陞黜令其道監司主之本州土性瘠薄農夫於田內必造八場養牛取糞播種後必聚牛踏田乃能立苗今受敎內令牛隻盡出陸本州之民無以耕農且牛隻孳息之戶本不多盡則

세종 시기 개축된 '제주한라산목장'은 범위가 넓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크게 10개의 목장, 즉 십소장(十所場)으로 구분 운영된다. 하나의 소장 내에는 여러 개의 자목장이 있었는데 『남환박물(南宦博物)』에는 18세기 초반 63개 자목장의 소장별 운영 실태가 담겨있다. 그러나 5소장부터 10소장까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10개 목장으로 출발했던 제주의 국영목장이 임진왜란 이후 그 운영이 부실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세 읍의 목장은 63곳이다. 제주목 제1소에는 천·지·현·황·우·주·출 자의 목장과 별목장인 천·지 두 자의 목장이 있다. 이들 자목장은 별방소에 속한다. 제2소에는 홍·황·일·영 네 자의 목장이 있는데, 이들은 조천소에 속한다. 제2소의 일·측 두 자의 목장은 화북소에 속한다. 제2소의 결 자 목장과 제3소의 진·숙·치·우·노 자의 목장, 대3소의 여 자의 목장은 애월소에 속한다. 제4소의 장·한·내·서 자의 목장과 대 1소의 왕·추·수·동·장·윤·금·생 자의 목장은 명월소에 속한다. 대정현의 현·황·우 자의 목장은 모슬소에 속한다. 별 자와 별현 자의 목장은 차귀소에 속한다. 정의현 제1소의 이·내·개·강·해·하·담 자의 목장과 제2소의 인·잠·우·상 자의 목장, 제3소의 용·사·화 자의 목장은 수산소에 속한다. 채·중·함 자의 목장은 서귀소에 속한다. 산둔장은 감목관에 속하고 우도장은 별방소에 속한다. 또한 검은 소 목장이 있다. 임오년(1702)의 마적에 부쳐 있는 것이 7,699필인데, 이 속에 산둔장의 것은 2,375필이다. 1년 안에 1,674필을 생산하고 522필이 죽었다. …중략… 흑우는 세 목장이 있는데 지금 수효는 620마리이고, 매년 20마리씩 봉진한다. 대저 이 섬에 흑우가 많은데 간혹 얼룩색도 있다. 황색 소는 아주 부족하다. 사둔의 소와 말은 혹 4~5백 마리에 이른다.

– 『남환박물(南宦博物)』<지마우(誌馬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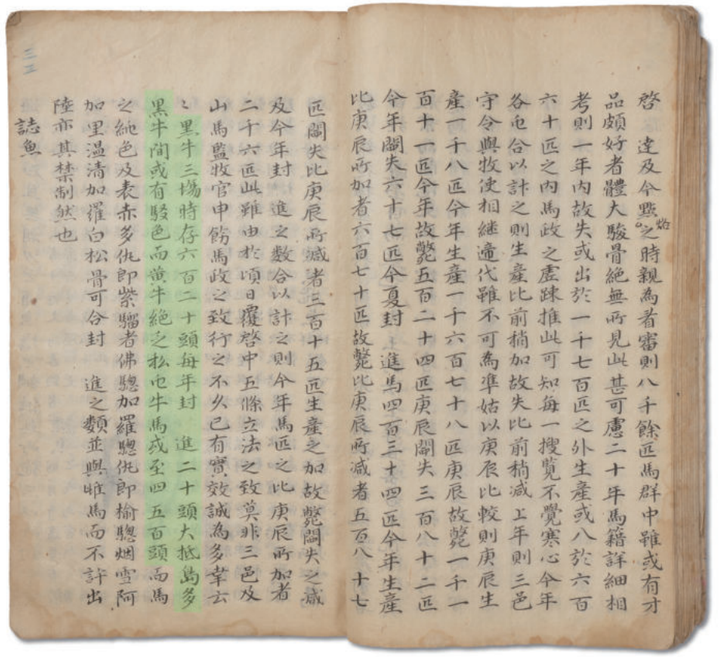
구분	관리처	목장명	자목장	계
제주목	별방소	일소	천·지·현·황·우·주·출	7
		별목장	천·지	2
	조천소	이소	홍·황·일·영	4
	화북소	이소	일·측	2
	애월소	이소	결	1
		삼소	진·숙·치·우·노	5
		대삼소	여	1
	명월소	사소	장·한·내·서	4
		대일소	왕·추·수·동·장·윤·금·생	8
대정현	모슬소	-	현·황·우	3
	차귀소	-	별·별현	2
정의현	수산소	일소	이·내·개·강·해·하·담	7
		이소	인·잠·우·상	4
		삼소	용·사·화	3
	서귀소	-	채·중·함	3
기타	감목관	-	산둔	1
	별방소	-	우도	1
	-	-	흑우	3



012

남환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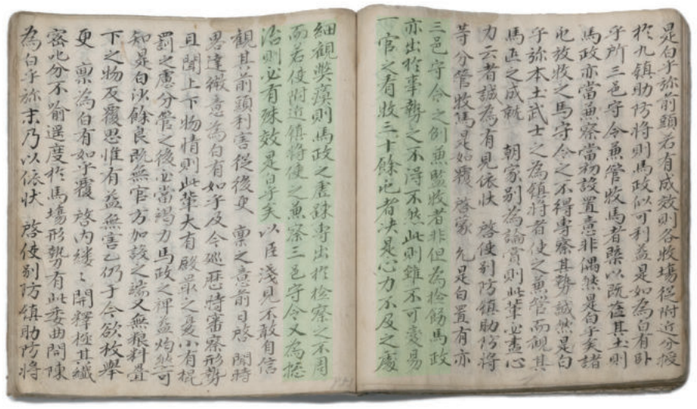
고고민속 10411



한라산 국영목장의 개편

국영목장은 조선 숙종 시기(1674~1720)를 전후하여 전환기를 맞는다. 대표적으로 1702년부터 1703년까지 제주 목사로 재임했던 이형상은 우마 생산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장 운영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뒤이어 1704년부터 1706년까지 재임한 송정규는 십소장(十所場)을 전면 재정비하고 공마(貢馬)를 위한 목장을 포구에 추가로 설치한다.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에는 제주 국영목장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제주 목사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이 조정에 올렸던 다양한 개혁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목마 관리 감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삼읍(三邑) 수령에서 인근 지역 조방장(助防將)으로 감목(監牧)직책 변경, 어승마(御乘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2소장과 별목장 사이 공간에 황자장(黃字場) 신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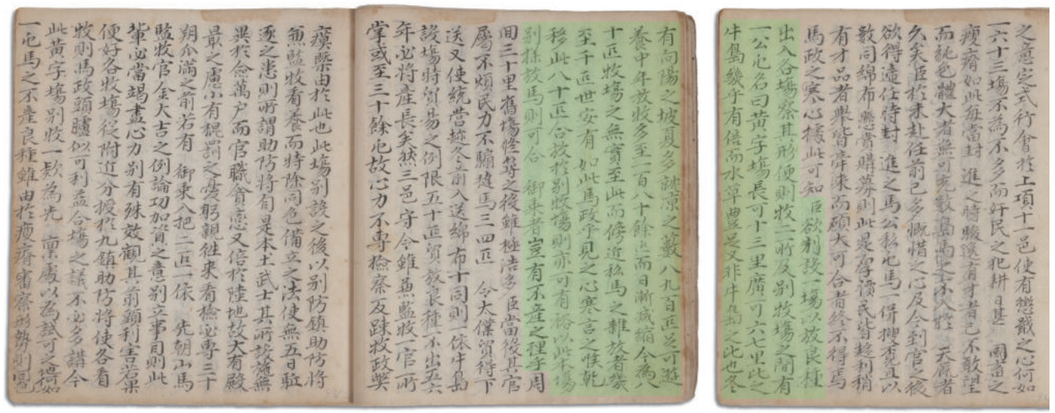
109

탐라장계초

고고민속 10412

3읍(三邑) 수령이 으레 겸감목(兼監牧)하는 것은 다만 마정(馬政)을 검칙(檢飭)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의 형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서 나온 것으로, 이는 비록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한 관원이 목장 30여 둔(屯)을 살핀다는 것은 결코 심력(心力)이 미치지 못할 지역입니다. 폐해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정(馬政)이 허술한 것은 오로지 검찰을 두루 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부근의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겸찰(兼察)을 시키고, 삼읍 수령 또한 총괄하여 다스렸으면, 반드시 아주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별방진조방장을 황자장감목으로 삼는 절목 장계(別防鎭助防將以爲黃字場監牧節目啓聞 [覆啓])>



신(臣)은 따로 목장 하나를 설치해서 좋은 품종을 방목하고 싶어서, 각 목장을 드나들며 그 형편을 살펴보니, 2소장과 별목장(別牧場) 사이에 한 공둔(公屯)이 있는데 이름이 황자장(黃字場)입니다. 길이는 13리(里), 넓이는 6, 7리(里)로 우도(牛島)에 비하면 거의 갑절이고 물과 풀이 풍족한 것 또한 우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겨울에는 양지를 향한 언덕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곶[藪]으로 갈 데가 많으니 8, 9백 필은 충분히 돌아다니게 하며 기를 수 있습니다. 중년(中年)에 방목이 많게는 1백 80여 필에 이르렀지만 날마다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80필이 되었습니다. 목장의 부실함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가까운 곳에 사마(私馬)를 섞어 방목하는 것이 거의 1천 필에 이르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마정(馬政)이 있습니까. 보기에 한심하고, 말을 하자니 목구멍이 마릅니다. 이곳에 80필을 옮겨다 별목장(別牧場)에 합쳐 방목하면 또한 여유가 있어 좋을 것이고, 여기를 본장(本場)으로 삼아 별첨 양식대로 말을 방목하면, 어승(御乘)에 합당할 만한 것이 어찌 산출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제주마정장(濟州馬政狀)>

014

탐라지도병서

고고민속 5922~5923

1704년부터 1706년까지 제주 목사로 재임한 송정규(宋廷奎, 1656~?)는 십소장(十所場)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작고 부실하게 운영되던 목장을 통폐합하고 1소장~6소장을 제주목, 7소장~8소장을 대정현, 9소장~10소장을 정의현에 재배치시킨다. 또한 1706년(숙종 32) 봄 공마(貢馬)를 조정에 보내는 목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함덕 동쪽 해변에 있는 병산악에 서산장(西山場)을 설치한다.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竝序)》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에는 이 시기 조정된 십소장의 위치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17세기 중반부터 헌마공신(獻馬功臣) 김만일(金萬鎰)의 후손들에게 경영하게 했던 산마장(山馬場)과 소를 생산하기 위해 설치했던 모동장(毛洞場), 천미장(川尾場) 등의 위치도 표기되어 있다.

한편 서산장에서 말을 점검한 풍경은 1711년(숙종 37) 제주 판관에 부임했던 남구명의 『우암집(寓菴集)』에 담겨 있다. 세공마(歲貢馬)를 결정하는 절차와 목자에 통제되어 움직이는 말들의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다.

015

제주삼읍도총지도

고고민속 1022



013

우암집

고고민속 4942~4944

이 고을은 매해 5월에, 연례로 세공을 보내고 세 명절에 별도로 임금이 타거나 병조에서 요청한 말 등을 보내는데, 약 오백 여 필이었다. 서산장은 조천포구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말을 가두어 먹이고 배에 싣는 데도 편하므로 세공마를 늘 이 서산장에서 점검하여 결정한다. 절제사가 날을 정하고, 관복을 갖추어 나가서 걸상에 앉으면, 세 읍의 수령들이 군복을 입고 홀을 잡고 차례로 인사를 드리는데 몸가짐을 매우 조심하게 하였다. 각기 끌고 온 말을 종종걸음으로 나오게 하면, 절제사가 그 이를 조사하고, 털빛을 구분하고, 그 귀와 코에 붙은 표를 살펴보아 알맞은 것들은 거두고 알맞지 않은 것들은 물린다.

계사년과 갑오년 여름에 나는 두 차례 그 서산장에 갔다. 마당 밖에는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갈기를 흔들며 곳곳에 말떼가 무리지어 둔을 구분하여 표시한 글자에 따라 나누어 모여서서 오줌을 누고 콧김을 뿜고 있었다. 절제사가 기를 올리고 북을 울리어 말을 내보내라고 명령을 내리니, 목자 한 사람이 잘 길들인 말을 가려서 앞에서 이끌게 하고, 대여섯 사람이 뒤에서 팔을 흔들고 크게 소리치고 이어서 길게 휘파람을 부니, 말의 무리가 머리를 쳐들고 서로서로 살피는 것이 지휘통제를 듣는 듯했다. 이에 떼지어 활기 있게 움직여 엄숙히 정돈하여 걸어가는데, 대열을 벌리면 구름이 옮기어 가듯이 하고 대열을 줄이면 고기가 꿰미에 꿰인 듯이 하여 줄줄이 마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뒤에 나누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모이면 무리지어 각각이 대오를 지켜서 감히 멋대로 흩어지지 않아, 마치 적진으로 가는 병정이 북소리를 귀로 듣고 깃발을 눈으로 보는 듯하여, 행렬은 긴 뱀 같고 모이면 다섯 열을 이루니 가히 볼만한 광경이었다.

그 점열하기에 이르면, 둘씩 다섯씩 짝을 지어 나오는데 머리를 가지런히 발을 맞추고, 줄을 지어 서서 기다렸다. 가죽채찍을 든 마부가 앞뒤로 에워싸서 털빛을 지적하여 호명된 말을 관인으로 낙인하고 말구레를 씌워 묶는데, 순순히 묶이어 편안히 나아가지 않는 자가 없고 감히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뜯지 않았다. 마부가 소리쳐서 점지된 자는 물러나고 점지되지 못한 자는 앞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이에 앞엣것이 먼저 가면 다음것이 이어 일어나 각기 그 둔지에 가서 처음처럼 정돈했다. 마치 하루를 물고 행군하는 병졸이 그 약속을 깨뜨릴까 두려워하여 그 걸음걸이를 가지런히 하는 듯 하였으며, 다만 그 흩어졌다 모이는 것만 볼 뿐이고 그 시끄러운 소리는 들을 수 없으니 또한 기이한 일이었다.

-『우암집』<권3, 기(記), 서산점마기(西山點馬記)>

한라산 목축문화와 테우리

국영목장은 1894년 공마제도 폐지로 소멸된다. 그럼에도 목축문화를 이끌어온 테우리(목자의 제주어)들의 삶은 일제강점기 이후 형성된 마을공동목장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근래에 들어 마을단위 축산업이 사양화되고 목장 지대가 대규모로 개발되면서 현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남겨진 일부 유물들을 통해 그들의 생활문화를 유추할 뿐이다.

121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71.9

구입 | 1983 | 고고민속 2686



121

122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65.7

구입 | 1993 | 고고민속 5559



122

123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59.9

구입 | 1994 | 고고민속 5758



123

124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30.1

기증 | 2013 | 고고민속 10097



124

125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35.6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126



낙인은 우마의 주인을 알려주는 식별 장치로 제주 방목 문화의 대표 유산이다. 쇠로 글자 또는 특정 표시를 새기면 불에 달구어서 우마의 엉덩이 또는 귀 등에 지져 새겼다. 일반 민가에서는 마을 단위의 글자와 가족 또는 친족 단위의 글자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26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46.7

기증 | 1981 | 고고민속 1741



127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61.0

구입 / 2001 / 고고민속 7924



128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 길이 39.9

구입 | 1994 | 고고민속 5756



부쇠(부시, 부싯쇠 등)는 불을 일으키는 쇳조각으로 석영 종류의 부싯돌과 부딪쳐 불씨를 만드는 도구이다. 부쇠주멩기라는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테우리들은 우마를 칠 때 몸을 녹이거나 음식 조리 시 불을 사용하기 위해 부쇠를 사용했다.



129

부쇠(부시)

燧金

Metal striker used with flint to make fire

20세기 | 철 | 3.5×9.3
기증 | 1982 | 고고민속 2121



130

부쇠주멩기

燧金囊

Pouch for a metal striker used with flint to make fire

20세기 | 천 | 10.4×9.8
구입 | 1983 | 고고민속 2693

횃심(화심, 화승 등)은 억새꽃 줄기를 엮어서 만든 도구로, 불씨를 유지하거나 이을 때 사용했다. 타는 속도가 느리고 화력이 좋아 하루 정도 불씨를 유지할 수 있었다.



131

횃심

炬

Torch

20세기 | 풀(억새) | (좌)길이 49.5, (우)길이 60.4
구입 | 1992 | 고고민속 5446

동고량은 테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던 도시락 그릇으로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다. 통기가 잘 되어 여름에도 음식이 잘 상하지 않았다. 휴대 편의를 위해 약돌기(약도리, 약두리 등)라 불리는 망태기에 담거나 짚으로 엮은 줄에 매기도 했다.



132
동고량
竹籃
Bamboo basket

20세기 | 대나무 | 9.7×21.5×16.0
기증 | 1981 | 고고민속 1645

연중 방목되었던 우마들은 겨울철이 되면 집이나 가까운 목장으로 옮겨 겨울을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먹이로 촐(건초)을 주었는데, 새나 띠 등을 베어 말린 것이다. 장낫과 낫(호미의 제주어)으로 9월에서 10월경 수확했으며 주로 제주도 동쪽 중산간 지역에서 사용된 장낫은 호미보다 2배 이상 생산 효율이 좋았다.



133
낫(호미)
鋤
Sickle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27.9 날 길이 16.2
구입 | 1986 | 고고민속 4109

134
장낫
剷
Scythe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178.3 날 길이 43.2
구입 | 1988 | 고고민속 4533

호랑이와 늑대 등 포식자가 없는 한라산에 있어 방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대상은 진드기(부그리)였다. 진드기는 우마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피부 반점, 부스럼, 딱지 등을 만든다. 진드기를 없애지 않으면 우마가 아프거나 피부가 상하여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부그리체(글겡이 또는 등긁개)는 털을 빗겨서 진드기를 없앴던 도구이다. 철판을 구부려 나무 손잡이에 고정하여 만들었고, 톱니날 부분을 통해 털 속 깊이 박힌 진드기와 같은 해충을 제거했다. 쇠침은 소가 열이 났을 때 등 병 치료를 위해 놓았던 침이다.

135

부그리체

櫛

Ox scratcher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43.9
구입 | 1997 | 고고민속 7005

136

글겡이

櫛

Ox scratcher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19.5
구입 | 2009 | 고고민속 9573



135

137

글겅이

櫛

Ox scratcher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25.0
구입 | 1993 | 고고민속 5561



136



137



138

쇠침

鍼

Acupuncture tool

조선 | 철, 나무 | 침 길이 14.6(3개), 통 길이 22.5
구입 | 1978 | 고고민속 967

참고자료
한라산과 상산방목

한라산 정상부 고산초원지대에도 목축문화가 있었다. 그곳은 혹서기 우마가 더위를 피함과 동시에 진드기를 피할 수 있는 최적지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우마 방목 시 조합비를 지불해야 하는 마을공동목장의 부담 속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피난처였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 자료 속 조선시대 상산방목의 풍경을 그린 문헌 기록을 소개한다.

말갈기와 말꼬리가 고목 위에 걸려 있었다.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자가 말하기를, "한 겨울에 눈이 깊이 쌓이면 혹 백 길(비단 산이 높아서 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휘말려 모든 봉우리가 자연히 백 길 가까이 된다.)까지 되니, 산말(山馬)은 높은 산줄기에서 굶어죽게 됩니다. 눈이 녹은 뒤에는 그 고기가 까마귀와 솔개의 밥이 되고, 조각조각 찢어진 가죽은 아직도 나뭇가지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아아, 대저 포구가에는 점점이 눈이 내려도 땅에 떨어지면 곧 녹아버리지만(섬은 기후가 따뜻하여 겨울에도 얼음 조각이 없다.) 유독 이 깊은 계곡에는 골짜기가 매몰되고 나무들도 묻힌다. 저 말들이 자유로이 방목되더라도 높은 곳을 지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사대부들도 알고 있는 것이다.

馬鬣馬尾罥掛於枯木之上前導者曰深冬積雪或至百丈非但山高多雪風捲衆峯自至於近百丈山馬飢死於高梢雪消之後肉爲烏鳶所啄片片破皮尙留柯頭嗟夫浦邊點雪落地便消島中氣暖冬無片氷獨此深谷沒壑埋樹彼馬之自放自牧者過高至死士大夫知所處矣.

-『남환박물』<지지(誌地)>

한라산은 바로 방성이 주관하도록 분담된 들이다. 그러므로 말을 길러 늘어나게 하는 것이 기북에 견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완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나라 사람이 말을 기를 적에 가지고 와서 풀어놓은 완마에게서 씨받음한 것이다. 용종이라고 불리는 것은 진용이 내려와서 암말과 교접하여 새끼를 배고 낳아 길러진 것이다. 특별히 산 위에 떼지어 사는 것들을 산마라고 하는데, 오래도록 깊은 산의 안개와 구름 속에 살며 여러 차례 용과 교접을 가졌으므로 그 종류는 털이 고슬고슬하고 색은 얼룩점이 많아서 골격의 모양도 또한 뭇 품종과는 다르다고 한다.

漢拏山正當房星所分地野. 故馬畜之蕃息 比於冀北. 而其間有兩種焉, 所謂宛種者 卽元人牧養時 來放宛馬 而取種者也. 所謂龍種者 卽眞龍下接雌馬 而孕育者也. 別屯在山上者 謂之山馬 長在深山霧雲中 數與龍相接 故其種 毛皆宛曲 色多斑駁 骨相亦異於群品云.

-『우암집』<권4, 설(說), 마설(馬說)>

수십 리를 가니 대정현 경계에 이르렀다. 후리가 와서 뵈었다. 가죽옷을 입고 융전을 쓰고 가마 앞에 서서 길을 안내했다. 한 마리 사냥개가 큰 꼬리에 사나운 눈을 하고 으르렁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산에 방목한 말과 소 십 수 마리가 무리를 지어 있었는데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는 놀라 달아났다.

行數十里到大靜界　候吏來現　獸服戎氈 立輿前指路 一獵犬 龐茸獰眼 駴駴隨其後 山馬牛十數爲羣 見人行駭走.

-『응와집(凝渦集)』<권14, 기(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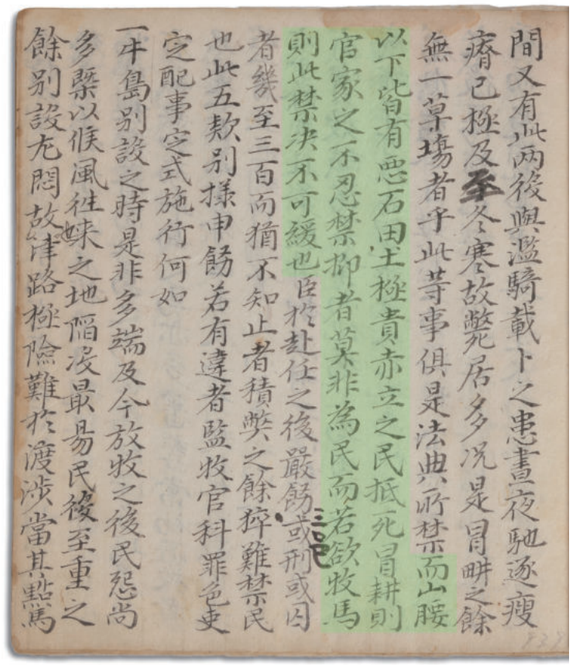
3. 한라산 경작문화

고려시대 이후 해안 농경지대를 제외하고 중산간 일대에 십소장(十所場)과 산마장(山馬場), 모동장(毛洞場), 천미장(川尾場), 황태장(黃泰場)을 비롯하여 우도와 가파도에도 목장이 있어 그야말로 제주도는 전역이 목장지로 활용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토지부족과 그로 인한 농업 생산 감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민들은 몰래 중산간 목장지대로 들어가 토지를 불법적으로 개간·경작하기에 이른다.

특히 조선 후기 영조·정조 대에 들어와서는 가뭄과 흉년이 빈발하면서 목마장이 폐장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1770년(영조 46)부터 일부 폐장된 목마장의 개간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1799년(정조 23) 마감, 목자, 장교, 군인 등의 녹료(祿料)를 지급하기 위해 목마장 안의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양곡에 대해 '마장세(馬場稅)'를 걷도록 함으로써 합법화 된다.

화전(火田)은 중산간 지대의 숲이나 산목을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1894년 공마제도가 폐지되어 목장토의 개간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에 띠를 두르듯이 확대되어 간다. 마을 단위의 집단 거주 화전민들도 상당수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제가 산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삼림령과 화전금지정책을 실시하여 화전을 금지시켜 나가면서 제주도 화전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소멸된다.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 '제주마정장(濟州馬政狀)'에는 1702년부터 1703년 사이 목마장에서 있던 불법적인 경작 행태를 찾을 수 있다. 훌륭한 말 생산을 위해서는 목초지대가 항시 구비되어야 하는 바 지방관들은 엄히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



109

탐라장계초

고고민속 10412

산허리 이하엔 모두 악석들이 있고, 발흙은 극히 귀하여 가난한 백성들은 죽기를 작정하고 (목장에서) 농사짓기를 무릅쓰니, 관가에서 차마 금하고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만, 만약 말을 기르고 싶으면 이를 금지하는 것을 결코 느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탐라장계초』<제주마정장(濟州馬政狀)>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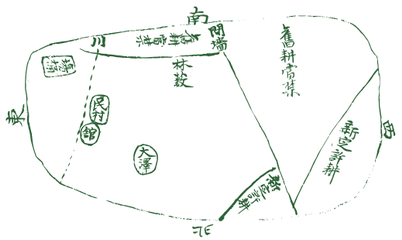
목장신정절목

牧場新定節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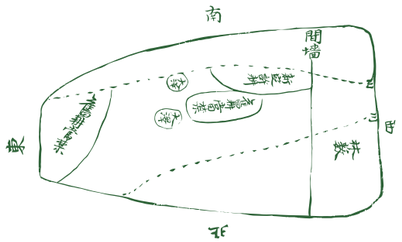
Enforcement ordinance on pasture management

은파 심낙수(恩坡 沈樂洙)
1794 | 한지 | 33.7×25.7
기증 | 1988 | 고고민속 455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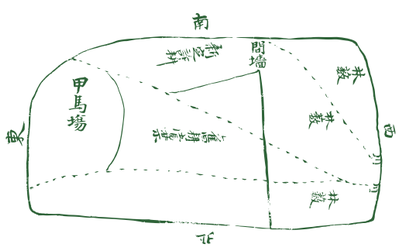
1799년 마장세의 합법화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수취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다. 1794년 제주 목사 심낙수(沈樂洙, 1739~1799)가 산마장의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과 관련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시행령을 담은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에는 산마장 내 목마 생산과 경작 활동간 균형 잡힌 운영을 위한 조치들이 담겨있다.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 내 금경구(禁耕區)와 허경구(許耕區)를 구분했고, 풍년·평년·흉년 시 조세 수취 양을 정하여 경작자가 갖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다.



침장은 동서로 45리, 남북으로 15리이다. 옛날 경작했던 기장발 종자 76석 2두 6승 마지기 내에 58석 15두 2승 마지기는 당연히 경작을 금해야 되고 나머지 17석 3두 4승 마지기는 새로이 경작함을 허락한다. 새로이 경작함을 허락한 17석 3두 4승 마지기 내에 8석 9두 2승 마지기는 해를 걸러 2년 1회 윤작하며 매년 실제로 기경하는 8석 9두 2승의 세미는, 풍년의 상총세미는 25석 12두 6승으로 하고 평년의 중총세미는 20석 10두 8합으로 하며 흉년의 하총세미는 15석 7두 5승 6합으로 한다.



상장은 동서로 75리, 남북으로 30리이다. 옛날 경작했던 기장발 종자 25석 12두 6승 마지기 내에 22석 7두 5승 마지기는 마땅히 경작을 금해야 되고 나머지 3석 5두 1승 마지기는 새로이 경작함을 허락한다. 새로이 경작함을 허락한 3석 5두 1승 마지기 내에 1석 10두 5합 마지기는 해를 걸러 2년 1회 윤작하며 내년 실제로 기경하는 1석 10두 5합의 세미는, 풍년의 상총세미는 5석 1승 5합으로 하고 평년의 중총세미는 4석 1승 2합으로 하며 흉년의 하총세미는 3석 9합으로 한다.



녹산장은 동서 60리, 남북 25리이다. 옛날 경작했던 기장발 종자 25석 12두 6승 마지기 내에 28석 3두 5승 마지기는 마땅히 경작을 금해야 되고 나머지 15석 11두 마지기는 새로이 경작함을 허락한다. 새로이 경작함을 허락한 15석 11두 마지기 내에 7석 13두 마지기는 해를 걸러 2년 1회 윤작하며 매년 실제로 기경하는 7석 13두 세미는, 풍년의 상총세미는 23석 9두로 하고 평년의 중총세미는 18석 13두 2승으로 하며 흉년의 하총세미는 14석 2두 4승으로 한다.

-『목장신정절목』<당금처구별도형절목(當禁處區別圖形節目)>





140

웨따비

步犁

Small plow

20세기 | 나무, 철
길이 123.1 양주머리 너비 53.6 날 길이 47.9
구입 | 2000 | 고고민속 7734



141

쌍따비

步犁

Small plow

20세기 | 나무, 철
길이 172.1 발받침 너비 29.5 날 길이 39.4
구입 | 1981 | 고고민속 1819

제주에서 척박한 땅을 개간할 때 주로 사용했던 농기구로 쟁기와 따비, 괭이가 있다. 쟁기는 소나 말의 힘을 빌려 밭갈이를 할 때, 흙을 일구는 용도로 사용했던 도구이다. 자갈이 많은 제주 땅을 고려하여 사용 시 걸리는 돌을 피하기 위해 보섭을 좁게 만들었으며, 쟁기를 들어올리기 편하도록 손잡이인 양주머리를 두고 있다. 따비는 자갈과 돌이 많이 깔려 있는 곳이나 후미진 곳을 가는 데 사용했던 도구이다. 날의 형태를 기준으로 '코끼리 이빨형'인 쌍따비와 '주걱형'인 웨따비로 구분된다. 괭이는 작은 밭을 일굴 때나 산간마을에서 갓 개간한 밭의 흙덩이를 부술 때 사용했다.



142

괭이

鑊

Hoe

20세기 | 나무, 철 | 길이 112.5 날길이 15.8
구입 | 1981 | 고고민속 1600



143

쟁기

犁

Plow

20세기 | 나무, 철 | 길이 198.5
구입 | 1996 | 고고민속 6701

4. 제주 공예문화의 원천 한라산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화산섬으로, 난대 해양성 기후로 인해 내륙지역과 다른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에 위치한 한라산은 천연림을 이루어 다양한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었고, 광활한 중산간 지대에는 방목되는 마소의 먹이가 되는 풀이 풍부하게 자랐다.

이러한 한라산 천연자원들은 옛 제주인들의 생활도구 제작을 위한 주재료로 쓰였다. 대표적으로 습기와 병충해에 강한 나무들은 식기와 가구 등의 재료가 되었다. 각 도구들은 무늬와 결을 최대한 살리면서 간결하고 소박하게 만들어졌다. 특히 사오기낭(산벚나무의 제주어)와 굴무기낭(느티나무의 제주어)은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눈매(나무의 물관 구멍)가 고와 제주 공예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재료였다.

야산에 널려 있는 풀이나 덩굴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새(띠의 제주어)와 억새, 정동덩굴(댕댕이덩굴의 제주어), 졸갱이 줄기(으름덩굴의 제주어), 칡 등은 초가지붕뿐만 아니라 우장(우비), 모자, 농기구 등의 제작 시 귀한 재료가 되었다. 이밖에 동물의 털과 가죽은 의복 재료로 활용되었는데, 기본적인 손질과정을 거칠 뿐 특별한 가공은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상태로 사용되었다.

144
귀돋은도고리
木鉢
Wooden bowl
20세기 | 느티나무 | 높이 15.9 지름 43.3
구입 | 1993 | 고고민속 5601

145
남박
木鉢
Wooden bowl
20세기 | 구실잣밤나무 | 9.6×31.3×24.9
기증 | 2017 | 고고민속 10658

146
남박
木鉢
Wooden bowl
20세기 | 소나무 | 9.6×23.3×35.5
기증 | 1970 | 고고민속 441





147

남방에

木碓

Wooden mortar

20세기 | 느티나무 | 높이 42.0 지름 90.3
기증 | 2007 | 고고민속 9323

148

통뒤주

櫃

Wooden rice chest

20세기 | 상수리나무 | 지름 98.7 높이 91.8
구입 | 1986 | 고고민속 4100





149







151





150

149
나막신
展
Wooden rain shoes

20세기 | 주목 | 13.5×10.5×30.2(2개)
기증 | 1970 | 고고민속 433

150
나막신
展
Wooden rain shoes

20세기 | 소나무 | 16.9×10.8×27.5(2개)
구입 | 1978 | 고고민속 1205

151
나막신
展
Wooden rain shoes

20세기 | 먹구슬나무 | 13.2×10.8×27.5(2개)
구입 | 1978 | 고고민속 1206



152
빗첩
梳匣
Wooden comb case

20세기 | 산벚나무 | 7.6×13.3×15.6
구입 | 1987 | 고고민속 4244



153

책궤

櫃

Wooden chest

20세기 | 느티나무 | 24.3×47.2×23.9

구입 | 1978 | 고고민속 1234



154

문서궤

櫃

Wooden chest

20세기 | 느티나무 | 16.3×49.7×13.4

구입 | 1978 | 고고민속 1235

155

양태판

樣態

Wooden frame to weave Yangtae

20세기 | 산벚나무 | 지름 56.9
구입 | 1977 | 고고민속 728



156

일골(총모자골)과 골걸이(주개판)

帽子木

Wooden hat form

20세기 | 산벚나무 | 높이 42.0
구입 | 1974 | 고고민속 597



157

멕

網袋

Net bag

20세기 | 댕댕이덩굴 | 32.5×23.2×41.3
구입 | 1988 | 고고민속 4552

158

약초가방

網袋

Stem-woven bag

20세기 | 댕댕이덩굴 | 24.8×28.4×16.5
구입 | 1978 | 고고민속 999

159

구덕

草籃

Basket

20세기 | 덩굴식물 | 16.7×27.6×25.5
구입 | 1993 | 고고민속 5587



160

골체

畚箕

Basket for carrying dirt

20세기 | 덩굴식물 | 26.5×42.0×57.1

구입 | 1981 | 고고민속 1947

161

골체

畚箕

Basket for carrying dirt

20세기 | 덩굴식물 | 17.3×30.4×36.5

구입 | 1993 | 고고민속 5588

162

골체

畚箕

Basket for carrying dirt

20세기 | 덩굴식물 | 18.4×37.2×38.0

구입 | 2003 | 고고민속 8658

163

어물구덕

網袋

Stem-woven bag

20세기 | 덩굴식물 | 36.5×67.4×58.3

구입 | 1983 | 고고민속 2705



160



162



161





164

초석

草席

Straw mat

20세기 | 띠 | 80.8×160.8
구입 | 1984 | 고고민속 3219



165

시장바구니

網袋

Stem-woven bag

20세기 | 미(억새 속잎) | 28.7×35.0
구입 | 1982 | 고고민속 2588

166

정당벌립

草笠

Stem-woven hat

20세기 | 댕댕이덩굴 | 지름 52.3
기증 | 1978 | 고고민속 2631





167

우장

雨衣

Straw rain cape

20세기 | 띠 | 길이 114.6
구입 | 1995 | 고고민속 6296

168

털벌립

毛帽子

Fur hat

20세기 | 동물털 | 높이 11.3 지름 43.0

구입 | 1979 | 고고민속 1272

169

가죽감티

皮帽子

Leather hat

20세기 | 오소리가죽 | 34.0×40.0

구입 | 1978 | 고고민속 998







170

노루털 보료속

毛氈

Rug made of deer fur

20세기 | 노루털 | 82.2×203.0

구입 | 2020 | 고고민속 12471



171

가죽두루마기

皮袍

Leather coat

20세기 | 개가죽 | 화장 75.0 등길이 105.0

구입 | 1983 | 고고민속 2683

172

가죽버선

革襪

Leather socks

20세기 | 가죽 | 길이 27.3 높이 28.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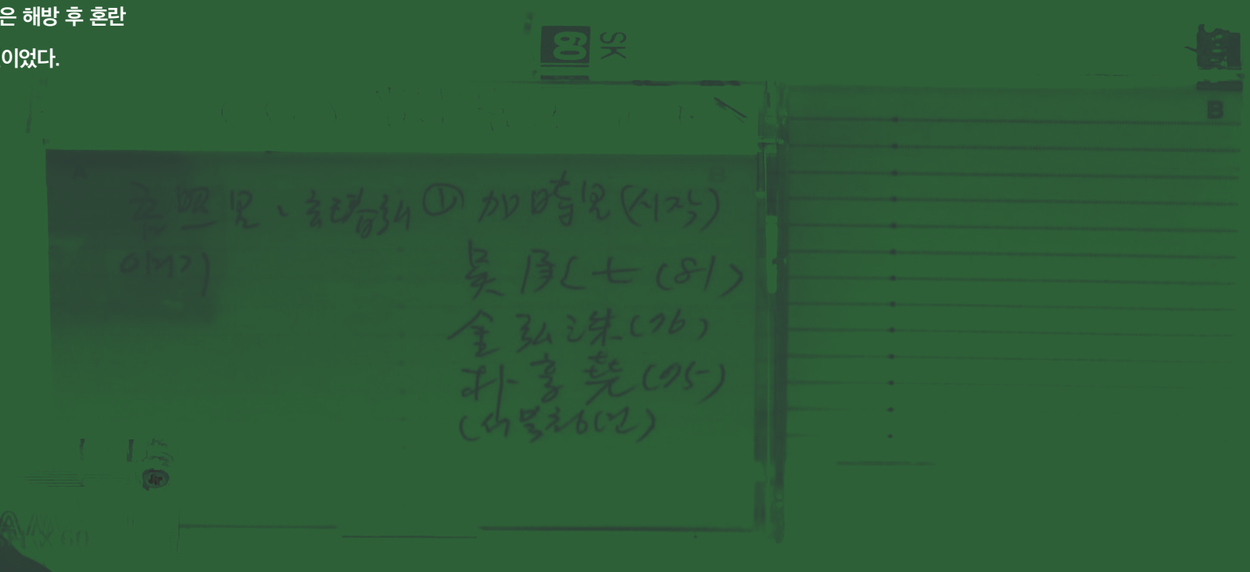
구입 | 1978 | 고고민속 980



한라산에는 다양한 역사·문화요소들이 스며들어 있다. 도교 신선사상과 결부된 '불사초(不死草)', 동양 천문학과 관련한 '노인성(老人星)', 국가와 민가의 의례 대상으로서 전승되어 온 신격인 '한라산신'은 한라산이 가진 신비함을 대변하고 강화하는 소재였다.

한편 한라산은 급격한 시대변화 속에서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배경 또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강제검의 난'(1862)과 '방성칠의 난'(1898)은 19세기 봉건사회 모순에 대한 저항과 폭발로 나타난 민중의 저항이었으며, '제주 4·3 사건'(1948~1954)은 해방 후 혼란기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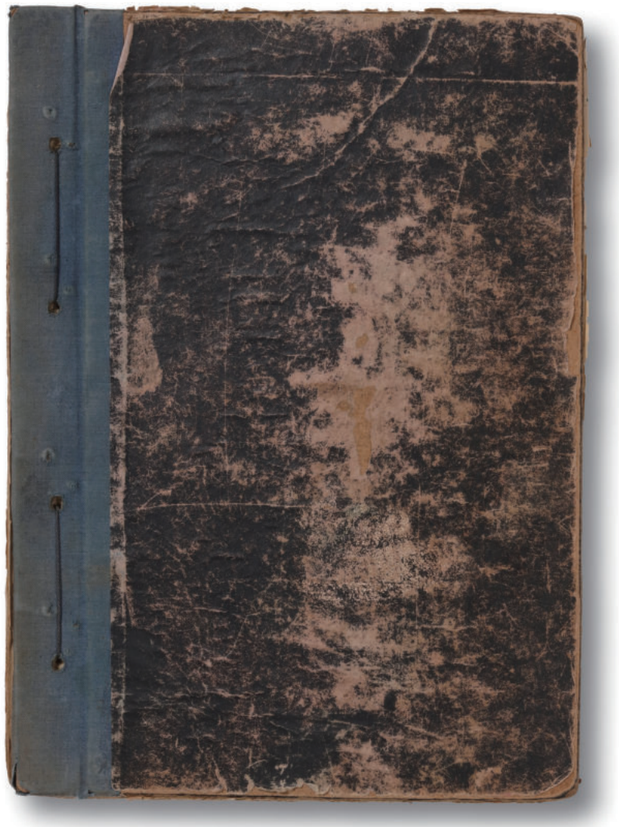


4

한라산 이야기

1. 무병장수에 대한 바람, 불사초와 노인성

조선(造船)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먼 바다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제주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도 중앙에 가장 높이 솟아 5월까지 눈이 녹지 않는 산, 시시때때로 구름에 가려진 산인 한라산은 그 신비감을 극대화하는 최적지였다. 이에 한라산은 선인(仙人)이 살고 불사(不死)의 약이 있다는 영주산(瀛洲山)에 비정되기에 이르고, 국가와 개인의 안녕을 관장하는 노인성(老人星)이 오직 한라산에서만 관측가능하다는 인식까지 결부되게 된다.



173

제주향토기

濟州鄕土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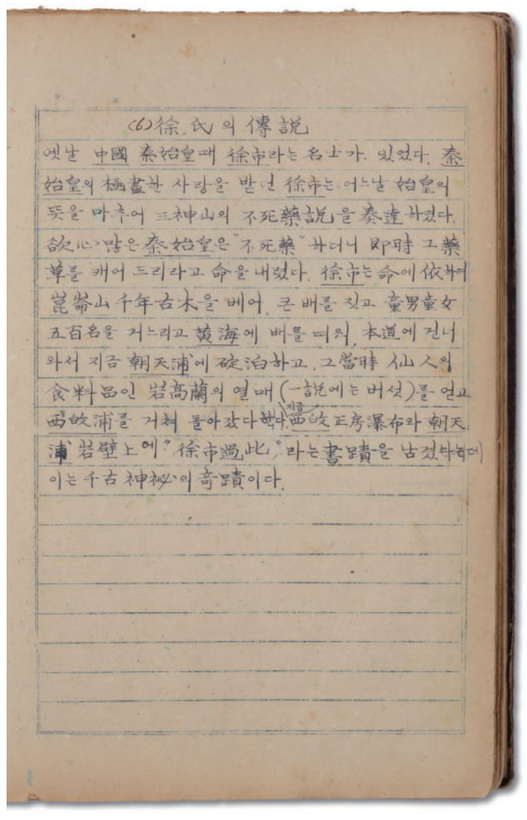
Jeju local records

양홍식·오태용

1958 | 양지 | 27.4×19.8

기증 | 2012 | 고고민속 9981

『제주향토기(濟州鄕土記)』는 양홍식과 오태용이 제주 관련 각종 연구 자료들과 직접 현장을 돌며 정리한 자료를 한데 엮은 향토지로 1950년대 제주의 역사, 자연, 민속을 망라하고 있다. 제주의 여러 전설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서불을 제주로 파견했다는 서불설화는 '서씨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담겨 있다. 『사기』「진시황본기」에 수록되어 있는 서불설화는 한중일 동아시아에서 모두 공유되고 있어 고대 동아시아 문화전파의 통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경상남도 남해군에 유적으로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해군 금산 상주리 야산 기슭에 놓여있는 거북바위를 제외하고는 그 실물 내지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옛날 중국 진시황 때 서불이라는 명사가 있었다. 진시황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서불은 어느 날 시황의 뜻을 맞추어 삼신산의 불사약설을 주달하였다. 욕심 많은 진시황은 '불사약'하더니 즉시 그 약초를 캐어 들이라고 명을 내렸다. 서불은 명에 의하여 곤륜산 천년고목을 베어 큰 배를 짓고 동남동녀 500명을 거느리고 황해에 배를 띄워 본도에 건너와서 지금 조천포에 정박하고 그 당시 선인의 음료품인 암고란의 열매(일설에는 버섯)를 얻고 서귀포를 거쳐 돌아갔다 한다. 지금 서귀포와 조천포 암벽 상에 '서불과차'라는 서적을 남겼다는데 이는 천고신비의 기적이다.

–『제주향토기』<제6장 흥미어린 전설, (6)서씨의 전설>

174

약초칼

藥草刀
Knife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30.0
구입 | 1981 | 고고민속 1879





175

약초괭이

藥草钁
Hoe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54.1
구입 | 1983 | 고고민속 2647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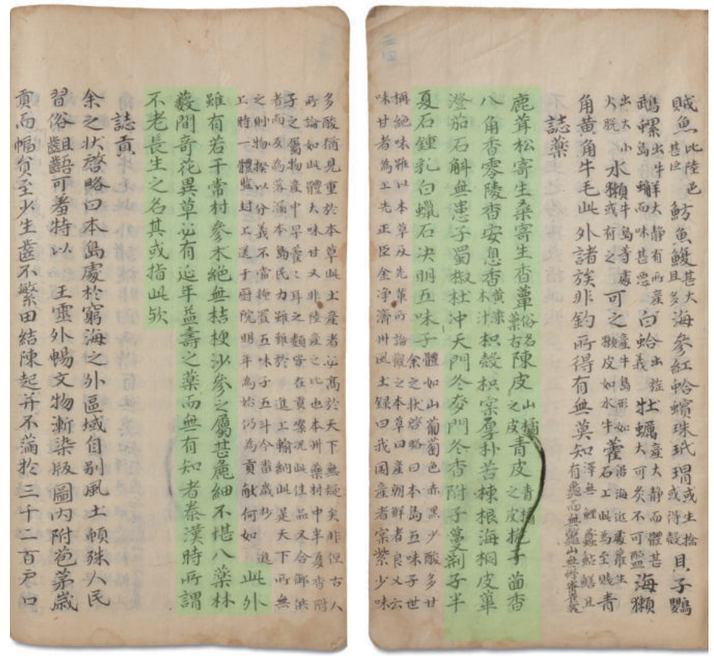
약초괭이

藥草钁
Hoe

20세기 | 철, 나무 | 길이 90.8
구입 | 1982 | 고고민속 2499



제주에 불사초가 있다는 인식은 한반도와는 다른 제주도산 약재의 특이성에 기인한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고려 이후 조선에 이르기까지 제주는 지역의 특산물과 약재를 조정에 공급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따르면 제주는 진피와 향재를 포함하여 백지, 팔각, 영릉향, 오배자, 치자, 향부자, 모과, 반하, 녹용, 지각 등 수십 종을 진상했고, 이는 내륙 지역에 흔치 않은 진귀한 것이었다. 『남환박물(南宦博物)』에도 제주 속 다양한 약재의 목록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제주는 '신비한 약재', '진귀한 약물'이 나는 곳으로 알려지게 된다.



012

남환박물

고고민속 10411

녹용, 소나무겨우살이, 뽕나무겨우살이, 향심, 진피, 청피, 치자, 회향, 팔각향, 영릉향, 안식향, 기각, 기실, 후박, 고련근, 해동피, 필징가, 석곡, 무환자, 촉초, 두충, 천문동, 맥문동, 향부자, 만형자, 반하, 석종유, 백랍, 석결명, 오미자. 이 외에 비록 약간의 일상적인 약재로 삼출이 있지만, 도라지 종류는 전연 없다. 사삼의 종류는 심히 성글고 가늘어 약재에 들어갈 수 없다. 수풀과 숲 사이에 진귀한 꽃과 풀 가운데에는 반드시 수명을 더욱 더 오래 늘여 나갈 수 있는 약이 있을 터인데, 아는 것이 없다. 진한 시대에 이른바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 한 것은 혹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 『남환박물』<지약(誌藥)>

『우암집(寓菴集)』에는 많은 이들이 제주를 불사초가 나는 장수의 고장으로 여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저자 남구명은 불사초를 영초(靈草)가 아닌 사시사철 푸른 잡초에 불과하다고 논증했으며, 제주인들이 불사초를 먹어 장수한다고들 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남구명 자신이 제주에서 경험한 바, 토질이 척박하여 쌀이 없기에 부자도 조밥(粟飯)과 콩죽을 먹을 뿐이요, 가난한 자는 산의 열매와 해조류에 의지할 뿐이었다. 즉 의식주가 모두 거칠어 저절로 깊은 산중의 도사나 승려처럼 벽곡의 모양새가 되어 수척한 선인의 모습이 된 것이었다. 따라서 남구명은 제주의 장수 문화는 역설적으로 기거와 음식이 열악하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013

우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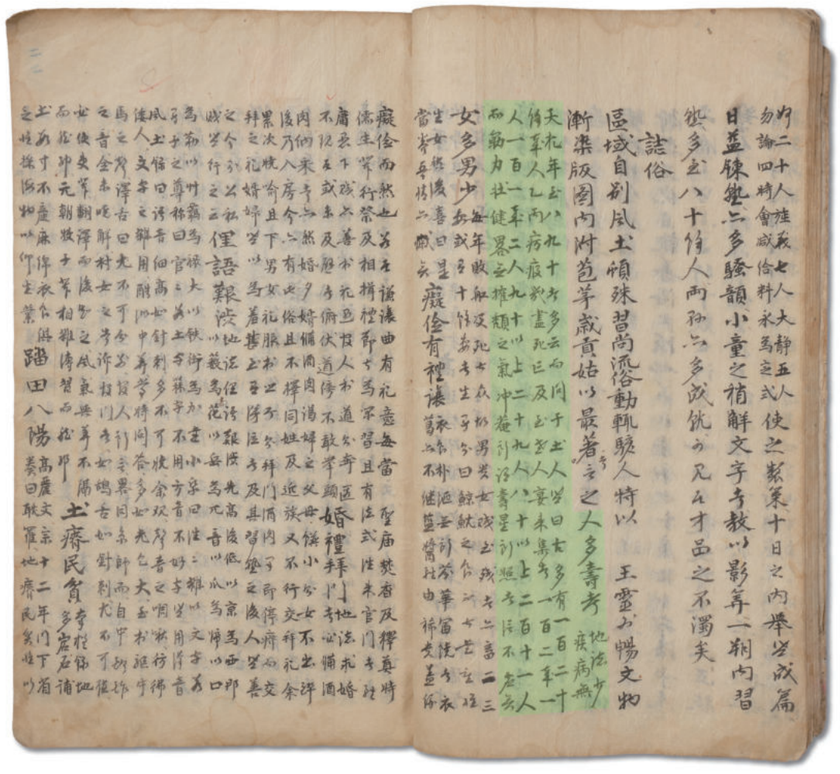
고고민속 4942~4944

예로부터 신선을 말하는 자들은 모두가 삼신산에 불사초가 있는데, 진나라의 동남동녀와 한나라의 사신의 많은 배들이 연이어 동쪽과 남쪽의 바다 섬들에서 두루 찾았으나 끝내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 학식이 없는 사람은 불사초가 실제로 있으나 얻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학식을 갖춘 사람은 있고 없음을 알지 못한다고 여긴다. 나는 눈으로 본 바에 의하여 단언하여 말하거니와 불사초가 어찌 참으로 없으리오. 다만 풀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이요 사람을 죽지 않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중략… 어떤 이가 말했다. "이곳 사람들은 항상 불사초를 먹기 때문에 지금도 여든이 넘은 이가 사백이 넘고, 또 백 살을 넘긴 사람도 열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땅은 토질이 척박하니 백성은 가난하여 메벼도 없고 삼과 모시도 없어, 부유한 자가 조팝과 콩죽을 먹고 빈곤한 자는 산열매와 해조류를 먹을 뿐이다. 부유한 자는 개가죽 옷을 입고 돼지가죽 모자를 쓰며 빈곤한 자에게는 멍석과 도롱이가 있을 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흙방이요 자는 곳은 돌침상인데 태어나서부터 입으로 맛난 음식을 먹어 보지 못하고 몸에 얇은 옷을 걸쳐 보지 못했다. 추위를 이기고 더위를 견디며 배를 채우고 주림을 견디며 일하고 쉬는 것이, 마치 깊은 산 속의 도사나 산꼭대기의 스님이 쌀알을 버리고 솔잎을 씹어서 문든 바짝 마른 선인이 되는 것과 같다. 이 지방 사람들이 수명이 긴 것은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작디작은 풀잎이 어찌 능히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수명을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풀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저 발에 첩첩이 모여 있는 무덤들은 어떻게 엎드러져 덮인 것인지 모르겠노라.

-『우암집』<권4, 설(說), 불사초변(不死草辨)>

노인성(老人星)은 남반구 하늘에 있는 용골자리에서 가장 밝은 알파별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별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 천문학에서는 수명을 관장하는 별로 여겼고, 이 별을 보면 오래 산다고 믿었다. 조선시대 제주에는 장수하는 자가 많았는데, 제주 목사 이형상은 이를 노인성 덕분이라고 인식했다.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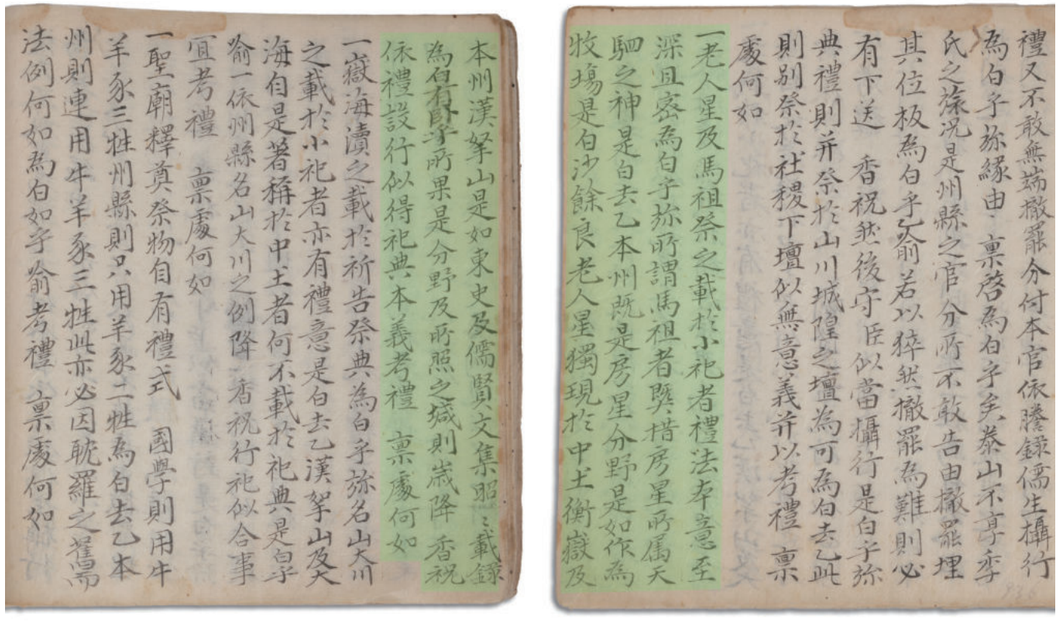
남환박물

고고민속 10411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 『지지(地誌)』에, "질병이 적어서 일찍 죽는 사람이 없고, 나이가 8, 90세에 이르는 자가 많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는 120여 세의 사람도 많았는데, 을병의 해(1695~1696)에 전염병으로 거의 사망하였다."라고 한다. 노인잔치에 온 사람이 102세가 1인, 101세가 2인, 90세 이상이 29인, 80세 이상이 211인이었는데, 근력이 장건하여 꺾이고 무너지는 기세가 거의 없었다. 충암(김정)이 말한 바와 같이, 수성(노인성)이 비치는 곳이니, 그것이 헛말이 아님을 믿을 수 있다.

–『남환박물』<지속(誌俗)>

노인성은 제왕지학(帝王之學)으로 천문학을 인식했던 동양적 사고관에 입각하여, 국가의 안녕과 존립을 점치는 별이기도 했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후 국가제사의 주요 대상이었고 조선 초까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 '소사(小祀)'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종 시기(1506~1544) 폐지되는데, 이후 정조대에 복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한다. 『탐라장계초(耽羅狀啓抄)』에는 노인성 제례의 부활을 요청하는 제주 목사 이형상의 장계가 담겨 있다.



109

탐라장계초

고고민속 10412

노인성(老人星) 및 마조제(馬祖祭)가 소사(小祀)에 실려 있는 것은 예법(禮法)의 본뜻이 지극히 깊고 또한 은밀합니다. 이른바 마조(馬祖)라는 것은 대개 방성(房星)에 끼어 천사지신(天駟之神)에 소속됩니다. 본주(本州)는 이윽고 방성 분야여서 목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노인성(老人星)은 다만 중국의 형산(衡山) 및 본주(本州) 한라산(漢拏山)에서만 나타난다고 『동사(東史)』 및 유현(儒賢)의 문집(文集)에 뚜렷하게 실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성좌 분야가 비치는 지역으로 언급되어 있으니, 해마다 향축(香祝)을 내려 예(禮)대로 베풀어 행함이 아마 사전(祀典)의 본뜻을 취하는 것이므로 고례(考禮)를 품처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탐라장계초』<제주청사전변통장[복계](濟州請祀典變通狀[覆啓])>

17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濟州島巫俗資料事典

Jeju shamanism dictionary

현용준

1980 | 양지 | 19.2×13.6

기증 | 2019 | 아카이브 자료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민속학자 현용준(1931~2016)이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제주도 전역의 무가를 조사하여 82편을 집대성한 책이다. 가사(歌詞)와 사설(辭說) 부면에 치중하여 일반적인 큰굿(종합제)과 작은굿·비념(단독제) 및 마을의 당굿과 당본풀이, 조상본풀이 등을 수록하고 있다.

국가와 사대부들이 제주 노인성 담론과 인식을 생산해 간 것에 반하여, 제주 민가에서의 노인성에 대한 전승은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수록된 '초감제'와 '서귀리칠성당본풀이' 등 아주 일부의 무가를 통해서만 노인성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 제주 노인성 인식이 오히려 역으로 무속이나 민간전승에 흡수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동성게문 도업ᄒᆞ니, 요 하늘엔 헤(太陽)가 문저 나며 벨이 문저 나옵데가. 벨이 문저 나옵데다. 갑을동방 동산사별(샛별) 전오셍(牽牛星)이 뜨고, 경진서방 서산사별 지네셍(織女星)이 뜨고, **남방국 노인성**, 헤저북방(亥字北方) 북두칠웡선군 선오성별 도업ᄒᆞᆯ 때 선어성별 도업으로 제이르자.

-『제주도무속자료사전』<큰굿(綜合祭), 1. 초감제>

들어사민 칠셍(七星), 나사민 관청(官廳) ᄎᆞ지. 칠월칠셕(七月七夕) 북도칠셍(北斗七星) 데운 날 ᄌᆞ시 자시(子時) 탄셍(誕生)ᄒᆞ고, 일곱칠셍(七星) 벨자리 **남방국(南方國) 노인셍(老人星)**께 인간(人間)은 복(福)을 빌어 삽네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당굿·당본풀이, Ⅱ. 당본풀이, 7. 서귀읍, ③칠성당>

2. 제주 땅을 지키는 존재, 한라산신과 하로산또

예로부터 국가와 민간 모두 한라산을 신성시 하며 제사를 지내왔다. 국가 차원에서는 탐라국 시기에서부터 거행되었을 것으로 보며, 고려 고종 40년(1253) 10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며 산신제를 올리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왕조 수립 후에는 태종 18년(1418)부터 나주 금성산의 예에 준한 제사로 본격 거행되는데, 백록담에서 진행되던 제의가 1470년(성종 1) 산천단으로 변경되고, 1703년(숙종 29)부터 명산대천의 예에 의거하여 집행되는 등 여러 변화를 겪다 현재는 아라동 차원에서 한라산신제를 계승해 봉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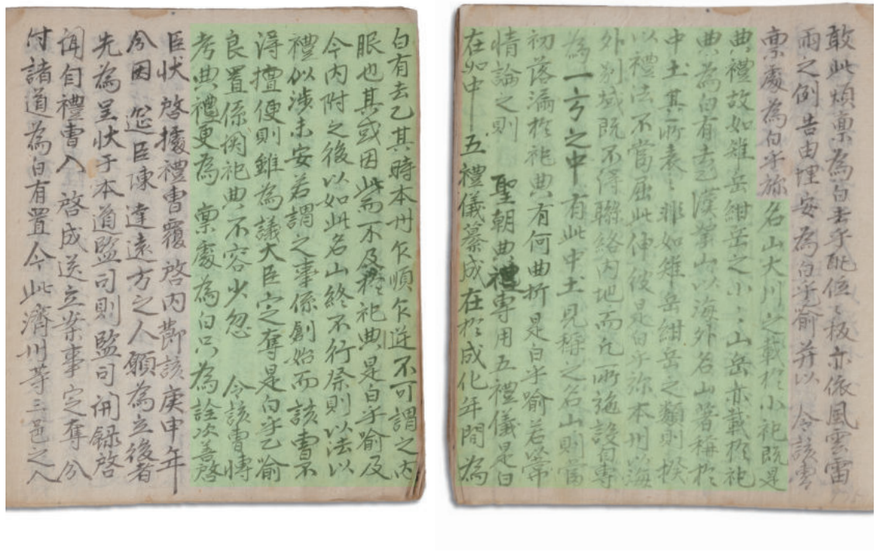
민간 차원에서는 한라산신인 '하로산또'를 위한 당굿 차원의 제의가 이어져 왔다. 조선시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곳은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광양당(과양, 과양당)이었다. 18세기 초 한라산신에 대한 유교식 제의를 강화하던 이형상 제주 목사에 의해 철폐되는데, 한편 오늘날까지도 한라산을 신격화한 당신(堂神)을 모시는 마을들이 있다. 마을 본향당신으로 좌정(坐定)하여 마을의 생산(生産), 물고(物故), 호적(戶籍), 장적(帳籍) 등을 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로 일 년에 서너 차례 마을 본향당에서 매인심방을 중심으로 제의를 지내고 있다.

탐라국에서 비롯된 한라산신제는 탐라국이 해체되는 고려 숙종 10년(1105) 이후에도 계속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태종 18년(1418)부터 전라도 나주 금성산의 예에 따라 봄과 가을에 거행되었는데, 제주 목사 이형상은 1702년 한라산신제를 명산대천의 예에 의거하여 거행할 것을 건의한다. 이형상은 한라산신제 외에도 풍운뇌우(風雲雷雨)와 노인성(老人星), 문묘석전(文廟釋奠), 시조(始祖) 등의 제사의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윤허 받는다.

109

탐라장계초

고고민속 10412



명산대천(名山大川)은 소사(小祀)에 기재되어 이미 전례(典禮)이기 때문에 치악(雉岳), 감악(紺岳) 같은 자잘한 산악도 역시 사전(祀典)에 기재되어 있거늘, 한라산(漢拏山)은 해외의 명산으로 중국에서도 이름이 드러나 그 뛰어나게 나타남은 치악(雉岳)이나 감악(紺岳) 따위와 같지 않는데, 예법(禮法)으로 헤아리면 부당하게 이것은 굽히고 저것은 펴고 있습니다. 본주(本州)는 해외의 별역(別域)이라 본래 내지(內地)와 나란히 이을 수가 없어 모든 시설을 스스로 일방적으로 전행하는 가운데, 이런 중국에서도 이름이 드러난 산이 있으면서 당초에 사전(祀典)에 누락된 데는 무슨 곡절이 있습니까. 만약 일반적인 도리로 논하면 성조(聖朝)의 전례(典禮)는 오로지 오례의(五禮儀)를 적용하는데, 오례의(五禮儀)가 만들어 갖춰진 것이 성화(成化) 연간에 있었으니, 그때 본주(本州)는 잠시 순종했다가 잠시 반역을 했다하여, 내복(內服)이라 말할 수 없어서, 어찌 혹시 이 때문에 사전(祀典)에 언급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국경 안에 부속된 후에도 이와 같은 명산(名山)에 끝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법(法)으로나 예(禮)로나 아마 거북할 듯합니다. 만약 일이 창시(創始)에 관계되어 해조(該曹)가 마음대로 못한다면 비록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정탈(定奪)할지라도 사전(祀典)관계를 소금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典禮)를 널리 고찰하여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하시기를 차례로 선계(善啓)하나이다.

–『탐라장계초』<제주청사전변통장[복계](濟州請祀典變通狀[覆啓])>

한라산신제는 본래 매년 춘추 백록담에서 거행되어 백성들이 동사하는 등 부담이 컸다. 이에 1470년(성종 1) 제주 목사 이약동이 산천단에서 행하게 해 폐단을 시정하였다. 산천단 한라산신묘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사실은 『제주읍지(濟州邑誌)』,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탐라록(耽羅錄)』,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 『탐라기년(耽羅紀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라산신 사당 중창기가 『우암집(寓菴集)』에 서술되어 있는데 사당의 형태와 재료, 중창 과정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013

우암집

고고민속 4942~4944

계사년(1713년, 숙종 39) 봄에 내가 제관으로 한라산에 갔는데, 먼저 사당을 살펴보았다. 그 터는 낮아서 습기가 찼고, 그 제도는 작고 좁았으며, 네 벽은 반이 풍우로 손상되었고, 계단 위에는 말과 소가 다닌 흔적이 어지러웠다. 나는 두렵고 놀랐으며 사무치고 슬펐다. 돌아와서 전 목사 이익한 공을 뵙고 말하기를 "한라산은 나라에서 향축을 내리는 곳이며, 그 제사의 위상도 가볍지 않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당집이 이처럼 눅눅하고 낮은 것은 다만 그 경건함을 보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귀신을 심하게 모독하는 것이니, 근년에 풍우가 순탄하지 않은 것도 반드시 이 일에서 유래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짓기를 청합니다." 했다. 이공이 허락했다. 마침내 농한기를 기다려 기와를 굽고 지붕 재목을 마련하기로 논의하여 결정했다. 얼마 안 되서 이공이 기한이 차 돌아갔는데, 7월에 다시 풍상(風霜)의 변고가 나타나고 절기에 어긋나서 마침내 침해를 당했다.

다음해 봄에 또 제관으로 갔다. 서까래는 썩어 부러지고 의자와 탁자에는 비 샌 흔적이 있는데 젖어 이끼가 돋아 있었다. 일을 마치고 나서 내가 여러 유생들을 불러 의논하며 이르기를, "이 묘당을 고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다. 올해의 기근이 지난해보다 더 심하니, 형세가 민중을 일에 동원할 수 없게 되었다. 내가 별도로 주선할 계획이 있어서, 일꾼을 구하고 기와와 재목을 사다가 이 일을 마치려는데 읍내 사람 중에 누가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하고 물었다. 다 이르기를 "고상원이 자못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하고 대답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 일을 맡길 수 있겠다."

마침내 상원을 맞아 그와 더불어 살피고 헤아려서 9월 19일에 착수했는데 열흘을 넘기지 않고 끝났다고 알려왔다. 대개 백성들은 이런 노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신위를 모시는 방이 한 간인데 높고 크게 하여 집사가 들어가 주선할 수 있게 하고, 사면은 작은 처마를 이어 풍우를 막게 하였고, 지붕은 기와로 덮고 백회가루를 발랐고, 안팎에 다듬은 돌을 치밀하게 깔았다. 동쪽 집에 감실을 만들어 향과 축을 안치했다. 바깥문이 한 간이고, 전사청이 한 간이고, 돌담으로 사방을 반듯하게 둘러서 보기에 좋게 하였다. 뜰은 평평하게 깎아서 얇게 뜬 잔디를 씌워 습기에 대비하였다. 재계하는 집은 세 칸으로 예전 그대로인데 삭은 띠를 바꾸어 기와로 덮었다. 의자와 탁자, 보궤와 변두 잔과 잔대 향로 및 제사용 솥 들을 모두 새로 마련해 놓았다.

10월 29일 위패를 되돌려 안치하는 제례를 거행하고, 네 사람을 구해서 그 집에 복호를 정해주고 지키게 했다. 갑오년 시월 일에 썼다.

-『우암집』<권3, 기(記), 한라산사중창기(漢拏山祠重創記)>



산천단 곰솔 군
사진 | 김완병

178

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

Supplement to a book on the geography of Tamna

담수계(淡水契)
1953 | 양지 | 26.0×19.1
기증 | 1981 | 고고민속 2020



조선시대 일반 민가 차원에서 한라산신의 신격을 모셨던 대표적인 곳은 '광양당(廣壤堂)'이었다. 한라산 호국신으로 알려진 '광양왕(廣壤王)'을 위하여 봄과 가을에 제의를 지냈으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속전에 이르기를 한라산 주신은 계제로 태어나 성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명신이 되었다. 마침 호종단이 이 땅을 진양하고 배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데 산신이 매가 되어 돛대 머리로 날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북풍이 크게 불어 호종단의 배를 격쇄하여 서경 비양도 암석 사이로 침몰시켰다. 나라에서는 그 영이함을 포상하여 식읍을 내리고 광양왕에 봉하여 해마다 향폐를 내리어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일제시대 식민정책에 의해 말살된 민족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광복 직후, 도내 석학 12명이 담수계(淡水契)를 조직해 제주도의 옛 지지(地誌)들을 보완, 재정리해 펴낸 문헌이다. '지리(地理)' 편에는 동제원천과 관련한 호종단과 광양왕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제주읍 화북리 해안일주도로변에 있으니 금빛기운이 수면에 떠있었다. 전해오기를 고려 예종 때 호종단이 와서 그 기를 제압코자하니 물의 신령이 발가는 농부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한 그릇의 물은 받아다가 소 길마 아래에 놓고 키를 옷처럼 덮어 놓아라 하였다. 농부가 그 말을 따랐는데 호종단이 와서 기를 제압하려하니 물의 신령이 없었다. 농부에게 묻기를 "소 길마 밑에 기천이 어디에 있소?" 농부가 없다고 대답하니, 호종단이 탄식하며 돌아갔다 전한다.

부주승에 호종단이 이곳에 와서 수기를 제압하고 바다에 떠서 돌아가는데, 한라산 호국신이 송골매로 화하여 돛대 꼭대기에 날아가 앉으니 갑자기 하늬바람이 크게 일어나 호종단의 배를 깨뜨리니 서쪽 비양도 암석 사이에 침몰하였다. 조정이 그 영험함을 포상하여 식읍을 내리고 광양왕으로 봉하여 해마다 향과 폐백을 내려서 제사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본 읍으로 하여금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 『증보탐라지』<지리(地理)>

이형상은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의 전통 풍속을 개혁하고 유교화시키는 데 노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남환박물(南宦博物)』에 기록되어 있는 신당(神堂) 129개를 모두 불태워 음사(淫祠)를 단속했던 사건은 그 일환이었다. 특히 당시 광양당은 차귀당(遮歸堂)과 함께 제주도의 대표적 신당으로서 "매년 봄과 가을에 남녀가 무리를 지어 술과 고기를 올려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을 만큼 고려시대부터 유명한 신당이었다. 하지만 이형상의 무불타파시책(巫佛打破施策)에 의하여 철폐되고 비공식적으로나마 비념(비손) 수준의 제의로 남게 된다.

012

남환박물

고고민속 10411



음사를 숭상한다. 『주기』에 의하면 "풍속에 음사를 숭상한다. 산의 숲이나 하천, 못, 구릉, 물가, 언덕, 하류 평지의 나무와 돌에 모두 신사를 설치한다. 매년 정월 초하루에서 정월 보름까지 무당과 박수가 같이 신독을 받들어 나희를 한다. 쟁과 북을 치며 깃발과 창검을 앞세워 마을을 드나들면, 관원 이하 모두 다투어 의복과 재곡을 내놓아 이로서 제사를 지낸다. …중략… 또 말하기를, "이 풍속은 지금도 오히려 고쳐지지 않았다. 광양당과 차귀당 등과 같은 음사에는 퉁소와 북소리가 끊기지 않고, 이 지방 사람들은 하늘과 같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무릇 한 집안이 크고 작은 일도 반드시 먼저 이곳에서 기도한 연후에야 감히 실행한다. 정초가 되면 신을 영접하여 성으로 들어오는데 이를 신 놀림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투어 의복을 내놓고 보시를 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마을 사람들은 늙어 병을 얻게 되어 오래 낫지 아니하고 위독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경건하게 정성으로 기도한다. 만약 병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귀신에게 속히 죽음에 이르도록 소원을 빌며 오래 고통스럽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와 같은 것을 모두 효성이라고 칭송한다. 이는 대개 야만의 풍속이 다 변하지 못한 것이라."라고 말하였다. 지금은 갈수록 더욱 심하다. 심지어는 우마를 약탈하고 개인 소유의 논밭에 난잡하게 모여서 음란한 짓을 함이 전에 비하여 더욱 심하다.

尙淫祀州記俗尙淫祀乃於山藪川池丘陵墳衍木石俱設神祀每歲之日至上之巫覡共擎神纛作儺戲靜鼓旗幟槍釰前導出入閭閻官員以下爭捐衣服財穀以祭之又於二月朔日歸德金寧寺處立木竿十二迎神以祭之居涯月者得槎形如馬頭者飾以采帛作懼馬戲以娛神至翌日乃罷謂之燃燈是月禁乘船又於春秋男女皆聚於廣懷堂遮歸堂具涯食祭神又地多蛇虺蜈蚣若見灰色以爲遮歸之神禁不殺所謂遮歸者方音甚訛呼蛇見曰遮歸. …中略… 又曰此俗今猶不革如廣壤遮歸等淫祀籠鼓不絶士人敬畏如天凡一家大小事必先祈禱于此處然後敢行正朝則迎神入城謂之神遊村人爭出衣服以施之又曰村人臨老得病彌留危苦者其子女虔誠祈禱若不可瘳願鬼速令就死毋爲久苦如此者咸稱孝誠此蓋蠻風之未盡變者云今則去去益甚甚至於掠奪牛馬田莊雜聚行淫比前尤加. …中略… 果有翌日各自燒火三邑所在神堂一百二十九處及私家禱神之物路傍叢林之處巫覡輩神衣神鐵一倝燒燼甚至於掘木根毁佛像今無一物當在三邑守令連續紙報.

– 『남환박물』<지속(誌俗)>

『우암집(寓菴集)』에는 이형상 목사의 광양당 철폐 이후에도 재건을 요청했던 제주 민중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당시 제주인들에게 있어 광양당이 숭상 대상으로써 상당한 위치에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전라도와 충청도에 이르기까지 소문난 신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13

우암집

고고민속 4942~4944



이 섬의 풍속이 귀신을 매우 좋아하여 재산을 다 기울여 없애면서도 아까와 하지 않는다. 이중옥(이형상)은 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 한 명령에 음신의 더러운 기운을 시원스럽게 씻어내어서 풍속 교화에 공로가 있었으나, 이같이 섬사람들의 미혹함을 아직 다 없애지는 못했다. 물과 불의 피해가 있으면 곧 광양신이 그랬다 하고, 바람과 서리의 피해가 있으면 곧 광양신이 그랬다 하고, 심지어 조그만 근심과 걱정만 있어도 문득 광양신이 한 것이라는 타령만 한다. 비록 징과 북을 울리고 깃발들을 거는 것을 감히 예전처럼 하지는 못해도, 몰래 기도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숭앙하고 봉양하는 것은 대체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크게 굶주린 뒤라 백성들 마음이 뒤숭숭하여서 한 풍기병자의 요사스런 말을 듣고, 다시 음사를 세우자는 말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나왔으니, 슬퍼라 그 미혹하기가 심하구나. 이 작은 허물을 어찌 자라게 할 것인가. 만약 더욱 아프게 하여 꺾어 버리고 금법을 엄하게 세우지 않으면, 온 섬이 귀신과 도깨비의 소굴이 되고 사람과 귀신이 뒤섞여져서 구원하여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중략… 칠월에 비장들이 서울에서 돌아와서 나를 만나자 말하였다. “전라도와 충청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에 제주에 신묘한 무당이 있어서 다시 광양신에게 푸닥거리를 하여 재앙을 없애겠다고 청원하니 판관은 성내어 그를 가두어 버렸는데, 광양신이 하느님께 하소연하였더니 하늘에서 이상한 소가 내려와 다 먹어 버리니 밭에 싹이 모조리 없어져 버렸다고 하더군요.”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늘이 만약 나로 하여 노하였다면 마땅히 이 몸에 벌을 내려야지 어찌해서 밭의 싹에게 옮겼겠소. 하물며 (싹을 먹는) 메뚜기는 본래 뿔이 없거늘, 틀림없이 눈으로 본 듯이 소라고 말하니 웬일입니까.” 비장이 말했다. “길을 가는 나그네가 괴이한 일이라고 하여 퍼뜨린 말이지요. 통판이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잃지 않았다고들 하더이다.” 나는 표정을 바꾸어 정중히 말했다. “당초에 일을 처치함에 오직 요사한 말을 못 하게 끊어 금지하려 했을 뿐이지, 이런 명성을 구하려 하지 않았어요.”

此島之俗 好鬼神甚, 傾財破産 無所顧惜. 李仲玉剛正人 一令打破 使淫穢之氣肅然廓清其有功於風教, 如此島民之惑 猶未盡釋. 有水火則輒曰廣壤神爲之 有風霜 則輒曰廣壤神爲之 至於細憂微恙 亦惟曰廣壤神爲之. 雖不敢鳴錚鼓擧麾幢如曩時之爲 而潛祈暗禱 至誠崇奉 蓋未嘗少衰矣. 大飢之餘 民情方惴惴 聞一病風人之妖言 而復設淫祠之請 遽發於齊人之口, 噫嘻 惑之甚矣. 此漸 何可長也. 若不痛加摧折 嚴立禁令 則一島便作鬼魅之林 人神雜揉 不可救止矣. …中略… 七月 營裨自京師還 見余言. 兩湖人相傳 濟州有神巫 請復廣壤祠 以禳灾 判官怒而囚之, 廣壤神訴于天 自天降異牛噢盡 田苗殆盡. 余笑曰. 天若以此怒我 譴罰當在我身 何以移田苗. 況蝗蟲本無角 必目之以爲牛何也. 營裨曰. 道路行人傳播爲異事 通判不失爲正人. 余變色曰. 當初處置 轉欲禁絶妖言 不求此名.

-『우암집』<권4, 잡저(雜著), 인요(人妖)>

179

제주도 전설

濟州島 傳說

Legends of Jeju

현용준

1976 | 양지 | 17.9×10.3

기증 | 2019 | 아카이브 자료



이형상 목사의 폐지 이후 광양당 제의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호종단 전설은 민가에서 계속 전승된다. 자연전설, 역사전설, 신앙전설로 구분하여 제주도 전설 90편을 집대성한 현용준(1931~2016)의 『제주도 전설』에는 호종단 전설(고종달이)의 전승이 기록되어 있다. 호종단은 주로 고려 예종 때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 전설』에서는 중국 진시황 때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 진시황 때 일이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아 나라를 든든히 해 놓았으나, 지리서를 펼쳐 놓고 보니 제주도의 지리가 심상치 않았다. 그 혈들이 인걸만 쉴 새 없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시황은 이 인걸들을 못 나게 해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종달이를 불러 제주의 물 혈을 끊으라고 지시를 내렸다. 좋은 샘물이 없으면 인걸이 못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고종달이는 종다리(구좌면 종달리) 바닷가로 배를 붙여 들어왔다. 당시 종다리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다. 현재의 종다리경 내이긴 하지만, ‘윤드르목’이라는 산 앞에 ‘넙은드리’라는 평지가 잇는데, 이 평지의 ‘대머들’이라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은 그곳이 토질이 좋을 뿐 아니라, 그 곁에 ‘물징거’라는 좋은 생수가 솟아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달이는 이 섬에 오자마자, 맨 먼저 이 종다리의 ‘물징거’ 물의 혈을 떠 버렸다. 그래서 물은 아니 나오게 되고, 지금도 물이 솟아 나왔던 구멍만이 남아 있다. 물이 끊어지자, 동네 사람들은 차차 물을 찾아 바다 쪽으로 내려와 지금의 종다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1975. 2. 27. 구좌면 종달리 고인봉(남·63세) 제공

-『제주도 전설』< Ⅰ. 자연전설, 14. 고종달이>

180

남국의 무가

南國巫歌

Shamanic songs of
the southern land(Jeju)

1968 | 양지 | 25.0×15.8
기증 | 2018 | 고고민속 11953

광양왕 외에도 한라산을 신격화한 한라산신계열의 신격은 제주 전역에서 모셔졌다. 마을 사람들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을 담당하는 마을 본향당신으로 인식되었고, 지명이나 본향당 명칭 뒤에 '하로산'을 붙이거나 제석천왕, 백관 등의 명칭을 붙였다.

『남국의 무가』는 전 제주민속박물관장 진성기(1936~)가 1956년부터 1963년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수집한 무가(巫歌)를 채록하여 정리한 무가집(巫歌集)이다. 본풀이는 제주 지역 무속의 굿에서 구송되는 신의 내력담으로, 진성기는 제주 전역을 돌며 채록한 500여 편의 본풀이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또한 각 시·읍·면별로 분류하여 제주 지역 고유의 발음을 고스란히 살려 편찬했다.

『남국의 무가』에는 '하로산또'라 불리는 신격이 마을 본향당신으로 모셔지는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호동, 표선면 가시리, 제주시 성산읍 수산리 등의 무가가 수록되어 있다. 한라산에서 솟아나 마을에 좌정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대다수이나 성산읍 수산리 하로산또는 중국에서 한라산으로 귀양 온 것으로 되어 외래신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토주본향이, 할루 영주산서 올축 삼월 열사흘날 ᄌᆞ시생에 솟아나난, 그 어룬이 산신또로 출른, 가죽뻘래에, 진보선에, 가죽옷에, 장도칼을 둘러매고 시오름 상상 봉오지에 아자시난, 강녹 사슴이 수만읏이 서레레넘어가는, 걸 보난, 앞이 가는 것도 내불고, 한가운디 가는 것도 내비연, 매조롬에 가는 강녹을 잡안, 약돌기에 담아아전, 고근산 웃녁히 빌래내또를 ᄂᆞᄅᆞ오란, 머리 곱고, 몸 모욕ᄒᆞ연, 고근산을 치걸언 보난, 삼신ᄉᆞ 삼백관이 아잔, 바둑장귈 두단, 본향한집ᄀᆞ라 "게난 무사 ᄋᆞᆼᄒᆞᆫ 딜 옵데가?" ᄒᆞ연 들으난, "땅ᄎᆞ지, 물ᄎᆞ지, 단골치지 ᄒᆞ젠 오랐쑤다" ᄒᆞ난, "게멘 잘 오랐쑤다" ᄒᆞ연…하략

<서귀읍 호근리 여무 68세 현계선님>

-『남국의 무가』<제2부 신당편, (七) 서귀읍편, (8) 호근리, Ⓐ 호근본향>

<하로산당> 처음 대국 중국에서, 할라산에 귀양을 오라, 좌우에 본향한집 아질디가 읏어, 만리통을 놓고 좌우청용을 둘러보니 성산면 수산 울룃ᄆᆞ르, 만리통을 놓고 좌우청용을 둘러보니, 성산면 수산 울룃ᄆᆞ르, 널은목도 울룃ᄆᆞ르, 족은목도 울룃ᄆᆞ르, 불리공은 대영문, 정인일구 ᄋᆞᄃᆞᆸ간주 해여, 제산(山), 악근다랑, 한다랑, 청지애, 백지애, 안지애, 밧지애, 웃손당 금백조, 셋손당 ᄉᆞ맹조, 매알손당 ᄇᆞ름웃드 소로소천국, 아들ᄌᆞ손 ᄋᆞ든ᄋᆞ덥, 뚤ᄌᆞ손 일은ᄋᆞ돕, 악근다랑 한다랑, 청지애 백지애, 청용 황용, 하로산, 소로소천국 ᄇᆞ름웃드, 맹오부인, 올라사민 일만팔천 초깃발, 주문관, 각서분향, 만주백반, 예인은 예인이라도, 남소아지 전대에, 숭불통 ᄆᆞ쳐완, ᄒᆞᆫ깍질 털뜨리니, ᄂᆞ몰이 진동ᄒᆞ고, 삼설백이 일러져, 쳇펜으로 살려옵서, 이번으로 살려옵서, 삼펀으로 살려옵서, 노ᄅᆞ사민 삼천백매ᄯᆞ, 돈지서낭, 가는 선, 오는 선 ᄎᆞ지, 돈지서낭 개할망, 개할으방, 일만팔천 초깃발, 독지일뢰 삼천백매또 서당할망.

제일 1월 2일
11월 14일
7월 8일 마풀림제

<성산면 수산리 여무 49세 조옥순님>

-『남국의 무가』<제2부 신당편, (四) 성산면편, (3) 수산리, Ⓐ 수산본향>



서귀포시 호근동 본향당
사진 | 김기삼

3. 격변하는 시대, 민란과 4·3

급격한 사회변혁기 한라산은 민중 항쟁의 주요 배경 또는 무대가 된다. 19세기 봉건사회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지배계층에 대한 피지배계층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던 시기, 한라산 화전민을 중심으로 발발했던 '강제검의 난'(1862)과 '방성칠의 난'(1898)은 피지배 계층인 농민의 권익 신장 운동이었다.

한편 해방 후 냉전 상황과 한반도 분단 체제의 고착화 과정에서 한라산에는 커다란 비극이 발생한다. '제주 4·3 사건(1948~1954)'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제주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한라산은 강경토벌작전의 주요 무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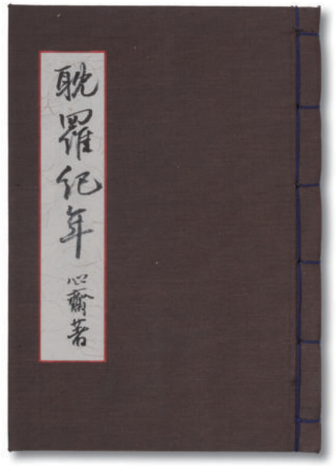
181

탐라기년

耽羅紀年

Book on Jeju history

심재 김석익(心齋 金錫翼)
1918 | 양지 | 21.9×15.2
구입 | 2000 | 고고민속 7435



『탐라기년(耽羅紀年)』은 심재 김석익(金錫翼, 1885~1956)이 1915년 완성하고 1918년 발행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고려 태조 21년인 938년부터 광무 10년인 1906년까지의 역사를 권1에서 권4까지 4권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수록된 시대별 사건의 각각 기사에 대한 분명한 출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약 1,000년에 달하는 제주의 주요 역사를 한 권에 담아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강제검의 난'(1862)과 '방성칠의 난'(1898)은 『탐라기년』 권4에 기록되어 있다. 두 민란은 한라산 중산간 화전민들이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한라산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목장의 폐장으로, 목장의 개간을 합법화하고 경작자들에게 화전세(장화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런데 기준 수확량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부담이 해마다 증가했다. 이는 결국 화전민의 삶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이 합세하면서 결국 두 민란으로 촉발된다. 화전세 등의 조세 폐단 시정, 부정한 제주 목사의 처단 등을 내세우며 한때 제주목 전체를 장악하기도 했으나 관군에 의해 진압된다.

임술(1862). 철종 13년[청 목종 동치 원년]
○ 겨울 11월. 제주 사람 강제검, 김흥채 등이 난리를 일으켜 목사 임헌대를 쫓아냈다. 이때 장화세(塲火稅)를 함부로 거둬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제검 등이 폐습을 고치겠다고 하니,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제주성을 함락하고 가옥을 부수고 간사한 아전을 죽였고, 임헌대 목사를 화북포로 쫓아내었다. 고성겸이 말했다. 장전(塲田)에 세를 매는 일은 의례 그해 농사의 풍겸(豐歉)에 따른다. 왕왕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에 괴로운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혹 어리석은 이가 한번 외치면 그림자처럼 이에 향응하여 바로 수 만인이 된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壬戌 哲宗 十三年〔清 穆宗 同治 元年〕
○ 冬 十一月 土人姜悌儉 金興采等作亂 逐牧使任憲大 時濫捧塲火稅民多怨讙 悌儉等因稱救弊 應之者甚衆 陷州城 毁破家屋 戕殺奸吏 還牧使任憲大於禾北浦.
高氏性謙曰 執稅塲田 例從豊歉 騷擾之往往闔發 非他故也 飢寒切身 告籲無處 或有愚夫一呼 影從而響應者 輒數萬人 其爲民牧者 可不愼哉.

-『탐라기년』<권4>

계해(1863). 철종 14년[청 동치 2년]
봄 정월. 목사 정기원이 강제검, 김흥채를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때에 민요가 크게 일어났는데, 정기원이 진압하여 무마하고 괴수를 잡아 형벌을 바르게 하니 민심이 조금 안정되었다. ○ 정기원은 청렴하고 정직하여 위엄이 있었다. 세율을 바르게 하고 평역미(平役米)를 줄이고 금전으로 헤아려 정하였다. 백성들이 그 덕을 칭송하여 비를 세웠다.

癸亥 哲宗 十四年〔清 同治 二年〕
春 正月 牧使鄭岐源 捕姜悌儉 金興采誅之 時民擾大熾 鄭岐源撫綏鎭壓 捕魁首 正刑民心稍定 ○ 鄭岐源 廉正有威 釐正稅率 減平役米 以錢酌定 民稱德立碑

-『탐라기년』<권4>

무술(1898). 광무 2년[청 광서 24년]
봄 정월. 요적 방성칠이 난을 일으켰다. 제주성을 함락하고 목사 이병휘를 쫓아내었고 이방 문주호는 죽임을 당하였다. 성칠은 본디 동복군(同福郡) 사람이다. 일찍이 배를 건너와 살았는데 방두지참(房杜之讖)으로 반란할 마음을 품고 민심을 오래토록 미혹하게 하였다. 이 때에 세금을 함부로 거두는 폐단을 구하겠다며 민중을 불러 모으고 힘센 심복 수 십명을 골라 어남군(御南軍)이라 칭하였다. 제주성을 점거하고 군기고를 열고, 목사를 쫓아내고, 인부(印符)를 강탈하였다. 이방 문주호는 인부를 숨기려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관부의 문적은 모두 타버렸다. ○ 적이 조천관을 함락하여 가옥을 태워 부수었고, 처사 김희선을 죽였다. ○ 적의 괴수 성칠이 죽었다. 때는 제주성을 뺏긴지 7일이었다. 성칠이 장차 제주가 일본에 복속되길 청하려 일본인 고깃배를 탔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홀연 회오리 바람이 불어 배를 돌려서 왔다. 제주사람 전 현감 홍재진, 송두옥 등이 창의소(倡義所)를 설치하여 성을 지킬 장정을 뽑고 적을 방어하였다. 적이 성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니, 성 밖에서 물러나 주둔하였다. 재진 등이 목사를 맞아들이고 의병을 소집하였다. 출신 김남윤이 의병을 이끌고 추격하여, 적의 괴수 성칠과 참모였던 강벽곡을 체포하여 베었다. 나머지 무리 수 십인도 거두어 처치하여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 창의하여 적을 친 공으로 홍재진, 송두옥, 김남윤 3인을 가자(加資)하였다. 목사 이병휘는 파면되었다. ○ 3월, 목사 박용원이 찰리사를 겸하여 왔다. 이 때 방성칠 난의 여파로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였다. 박용원은 정성을 다하여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편안하게 하였다.

戊戌 光武 二年〔淸 光緖 二十四年〕
春 正月 妖賊房星七作亂 陷州城 逐牧使李秉輝 首吏文周昊遇害 星七本同福郡人也 曾隨海舶 來寓 因房杜之讖 潛懷不軌 蠱惑民心者 久矣 至是 藉稱濫稅救弊 嘯聚民衆 擇心腹中有筋力者數十人 稱禦南軍 入據州城 發軍器 逐牧使 奪印符 吏房文周昊翼蔽遇害 官府文籍盡爲燒燼 ○ 賊陷朝天館 燒毁家屋 處士金熙璿遇害 ○ 賊魁星七伏誅 時城池失守者七日 星七將擧島請屬日本 搭乘日人漁艇 擧碇未到 中洋風忽遭迴 還泊 於是州人前縣監洪在晉 宋斗玉等設倡義所 發城丁而禦之 賊不得入 乃退屯於城外 在晉等遂迎牧使還之 召集義兵 推出身金南胤 奬率追討 捕賊魁星七及謀主姜辟穀斬之 收餘黨數人處役 賊遂平 ○ 以倡義討賊功賞洪在晉 宋斗玉 金南胤三人幷加資 牧使李秉輝免 ○ 三月 牧使朴用元兼察理使來 時 因賊變之餘 人心煽動 朴用元推心撫摩 使之安堵.

-『탐라기년』<권4>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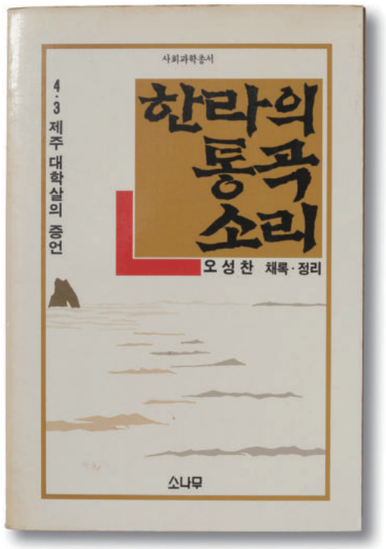
한라의 통곡소리

Wail of Halla
(Testimony of the April 3 Incident)

오성찬
1989 | 양지 | 22.5×15.5
기증 | 2021 | 아카이브 자료

오성찬(1940~2012)은 1969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별을 따려는 사람들」이 당선된 후 작고할 때까지 제주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 제주어를 알리는데 주력했던 문학인이다. 특히 그는 1985년 '도서출판 반석'을 설립하여 제주 마을의 설촌 내력과 변천과정, 민속 등을 정리한 『제주의 마을』(1985~2002)시리즈를 발간하는데, 이를 위해 제주의 마을 곳곳을 돌며 도민들의 증언을 채록한다. 그리고 이 작업은 그의 역사적 또는 향토적 문학 집필 작업의 토대가 된다.

'제주 사람들의 삶'은 오성찬이 1997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한 자료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마을 조사 과정에서 녹음한 521점의 테이프이다. 마을별 생활민속 사항 및 4·3 사건 피해자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4·3 사건 관련 녹취 채록은 『한라의 통곡소리-4·3 제주 대학살의 증언』(1988)으로 정리되어 발간된다. 이 책은 '4·3은 공산폭동'이라는 발간 당시 공식역사에 대해 저항적 담론을 만드는 바탕이자,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그의 4·3 소설화(『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1989), 『나븨로의 환생』(1992), 『죽은 장군의 증언』(2000), 『한라구절초』(2004) 등)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오성찬과 같은 문인들의 4·3 문학 활동은 4·3의 재정립을 위한 가장 선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역사의 '밀돌' 하나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낸다. 아니, 그것이 '심돌'이어도 좋다. 이것을 심으로 박고 차츰차츰 눈덩이를 굴려서 온전한 눈사람 하나가 완성되었으면 싶다.

-『한라의 통곡소리』<서문>

183

제주 사람들의 삶

The life of Jeju people

오성찬
1985~1997 | 카세트테이프 | 6.8×10.9×1.6(521개)
기증 | 1997 | 아카이브 자료



한라산의 오늘

오늘날 우리는 한라산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제주도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한라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기준으로 위치와 방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 '한라'라는 이름이 포함된 기관을 접하고, 한라산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일도 있다. 나아가 5·16도로와 1100도로 등 각종 도로를 통해 한라산을 통과하거나, 직접 한라산을 탐방하기도 한다. 이렇듯 한라산은 현재의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이면서도 깊게 스며들어 있다.

5

1. 제주 대표 상징 한라산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우리나라 분단 극복을 위한 희망 구호이자 우리나라 영토 전역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한라’는 한라산 자체보다 우리나라 가장 남단에 위치한 제주도를 별칭하는 어미로 사용된 것으로,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도내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한라’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고, 한라산을 형상화한 로고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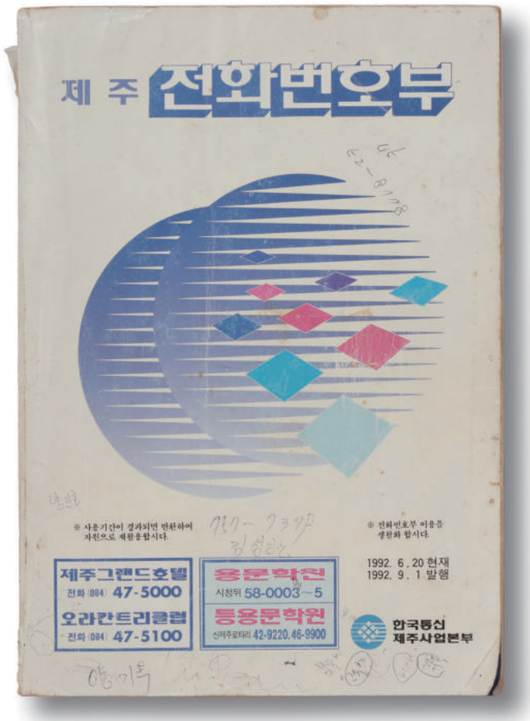
1992년과 2020년 발행된 제주 지역 전화번호부이다. 전화번호부는 전화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성명이나 상호 및 주소와 함께 적어 놓은 책으로, 1966년부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발행되고 있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이전까지 가장 보편화된 광고 수단이었다. 전화번호부 속 ‘한라’를 명칭으로 삼고 있는 기관의 수는 1992년 278곳에서 2020년 425곳으로 증가했다.

184

1992년 전화번호부

1992 電話番號簿
Telephone directory, 1992

한국통신 제주사업본부
1992 | 양지 | 30.0×21.0
기증 | 2020 | 아카이브 자료



185

2020년 전화번호부

2020 電話番號簿
Telephone directory, 2020

한국전화번호부
2020 | 양지 | 30.0×21.5
자체수집 | 2020 | 아카이브 자료



186

한라일보 창간호

漢拏日報 創刊號
First issue of
the Halla Ilbo newspaper

(주)한라일보사
1989 | 양지 | 55.0×39.5
자체수집 | 2021 | 아카이브 자료

제주 지방 종합 일간지 한라일보의 1989년 4월 22일자 창간호이다. 한라일보사는 생태 탐사 기획기사로 '한라산학술대탐사'를 1998년부터 2005년까지 240회 연재하고, 한라일보 신춘문예,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 트레킹 등을 개최하는 등 제주 자연 및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문사이다. 한라일보사는 2020년 기준 5년 연속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문사로 인증 받았으며 또 발행부수도 2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7

한라산 소주

漢拏山燒酒
Hallasan Soju

(주)한라산
2021 | 유리 | 높이 20.8(2개)
자체수집 | 2021 | 아카이브 자료

㈜한라산은 1950년 순수 토착자본으로 설립되어 4대째 운영 중인 제주 대표 향토기업이다. 1993년부터 '한라산 소주'를 출시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1999년 회사명을 '한일양조장'에서 '㈜한라산'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때 제주도 소주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50~6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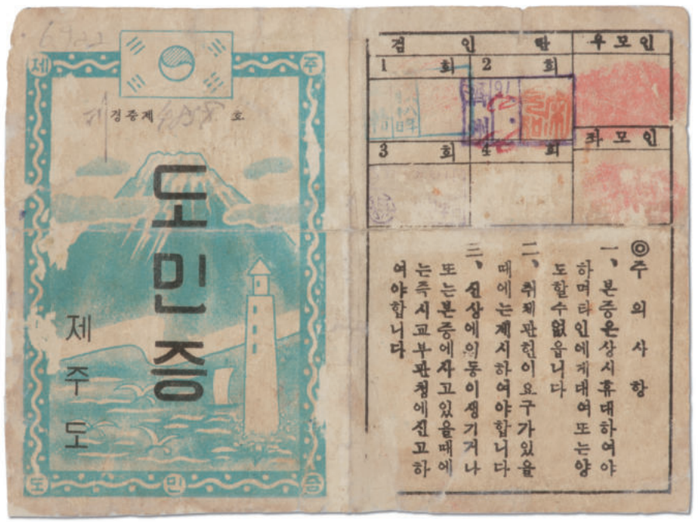
도민증

道民證

Resident ID card

1954 | 양지 | 9.5×13.0
기증 | 1997 | 고고민속 6922

1954년 발행된 제주도 도민증이다. 표지 디자인에 한라산이 적용되어 있어, '한라산이 곧 제주도이며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라는 대표 상징으로서의 통념을 대변하고 있다. 도민증은 6·25 전쟁 직후 혼란한 상황 가운데 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950년부터 1962년까지 발행(1968년까지 사용)되었다. 발급절차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교부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관할지 경찰서장이 직인을 찍어 교부하였다. 1954년 제주도 도민증에는 성명과 사진, 본적, 출생지, 현주소, 호주 또는 세대주 성명과 관계, 직업, 성별, 신장, 특징, 병역관계, 소속정당, 한글해독여부, 혈액형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일반과 중고생 시내버스 종이 승차권이다. 제주시는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종이 승차권을 사용해 왔으나 위조승차권이 남발되고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23년 만에 전면 폐지했다. 종이 승차권 속 한라산 로고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제주시 상징 로고로, 한라산을 형상화하고 있다.



189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일반)

乘車券

Jeju city bus ticket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공동관리위원회
2000~2004 | 종이 | 2.6×6.6
기증 | 2019 | 고고민속 12256

190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중고생)

乘車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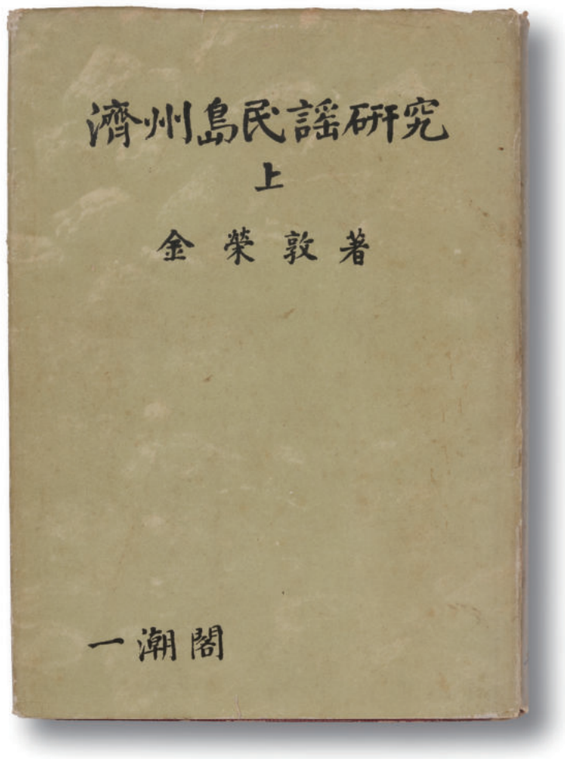
Jeju city bus ticket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공동관리위원회
2000~2004 | 종이 | 2.6×6.6
기증 | 2019 | 고고민속 12257



2. 문화예술 속 한라산

제주도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한라산은 도내 197개 행정동과 행정리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단 2곳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산이다. 이처럼 누구나 공감하고 감상할 수 있었던 한라산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고된 일상 속 삶을 위로하거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할 때, 시문과 그림을 통해 예술적 표현 욕구를 발현시키고자 할 때 활용된 주요 소재였다.



191

제주도민요연구(상)

濟州島民謠硏究(上)

Research on Jeju folk songs

김영돈

1965 | 양지 | 21.0×15.5

자체수집 | 2021 | 아카이브 자료

민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제주 민요에는 지역의 독특한 풍토와 풍습이 반영되어 있다. 김영돈(1932~2001)의 『제주도민요연구(상)』은 제주의 민요를 채보(採譜)한 최초의 저서로, 크게 노동요, 타령, 동요 3가지로 분류하고 1,403절의 민요를 수록했다. '오돌또기'를 포함해 '한라산'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절은 13개가 있다.

오돌또기 저기 춘양 논다
둘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후렴)

한로산 허리엔
시러미 익은숭 만숭
서귀포 헤녀는
바당에 든숭만숭
(후렴)

제주야 한로산
고사리 맛도 좋고 좋고
산지야 축항 끗
벳고동 소리도 좋고 좋고
(후렴)

성산포 일출봉
헤 돋는 귀경도 좋고 좋고
성네야 사라봉
헤 지는 귀경도 좋고 좋고
(후렴)

가믄은 가곡
말믄은 말앗지
초신을 신어근
씨집 가랜 말이우과
(후렴)

청사 초롱에
불 붙혀
춘양의 방으로
춫아나 갈꺼나
(후렴)

*후렴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 버리고
둘도 붉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제주도민요연구(상)』<1. 타령류편, 1. 옛타령, 1. 오돌또기>

예로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지에는 그에 대한 품평이 담긴 멋진 시문들이 함께 한다. 조선시대 제주 목사를 역임한 이익태의 탐라십경과 이형상의 탐라팔경, 이원조의 영주십경 등이 있으나,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명승지를 품제(品題)한 매계 이한우(梅溪 李漢雨)의 '영주십경(瀛州十景)'이 가장 널리 전해지고 있다. 후대 시인들은 매계의 영주십경을 원전(原典)으로 하여 차운(次韻)한 시문을 다수 남겼다.

영주십경 속 한라산과 관련한 장소는 4곳을 꼽을 수 있다. 과거 한라산을 오르기 위한 입구였던 영구(방선문)가 '영구춘화'로, 백록담은 '녹담만설'로, 영실은 '영실기암'으로, 한라산 중산간 방목지는 '고수목마'로 표현되고 있다. 영주십경은 현재까지도 서예와 서각, 회화,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으며, 제주 명승 및 관광지를 소개하는 대표 콘텐츠가 되고 있다.



192

탐라록

耽羅錄

Anthology of
Lee Hyeongsang's literary 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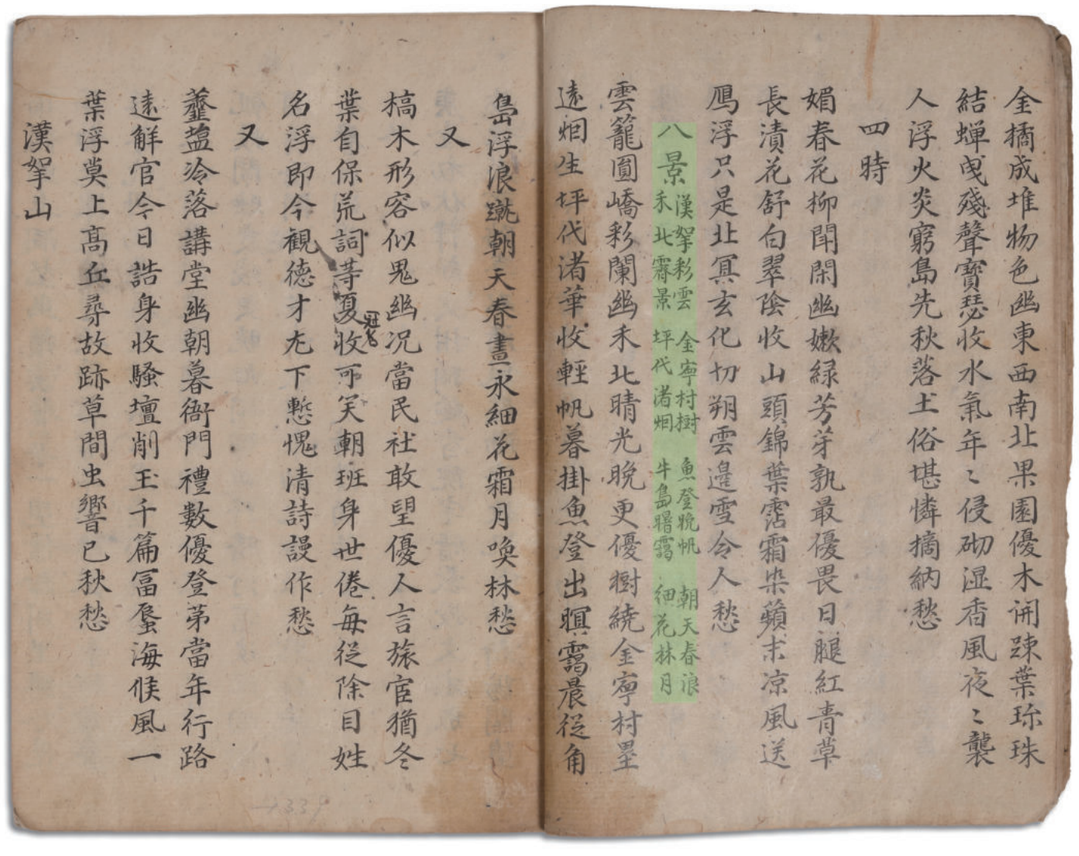
병와 이형상(甁窩 李衡祥)
1703 | 한지 | 29.7×20.9
구입 | 2018 | 고고민속 1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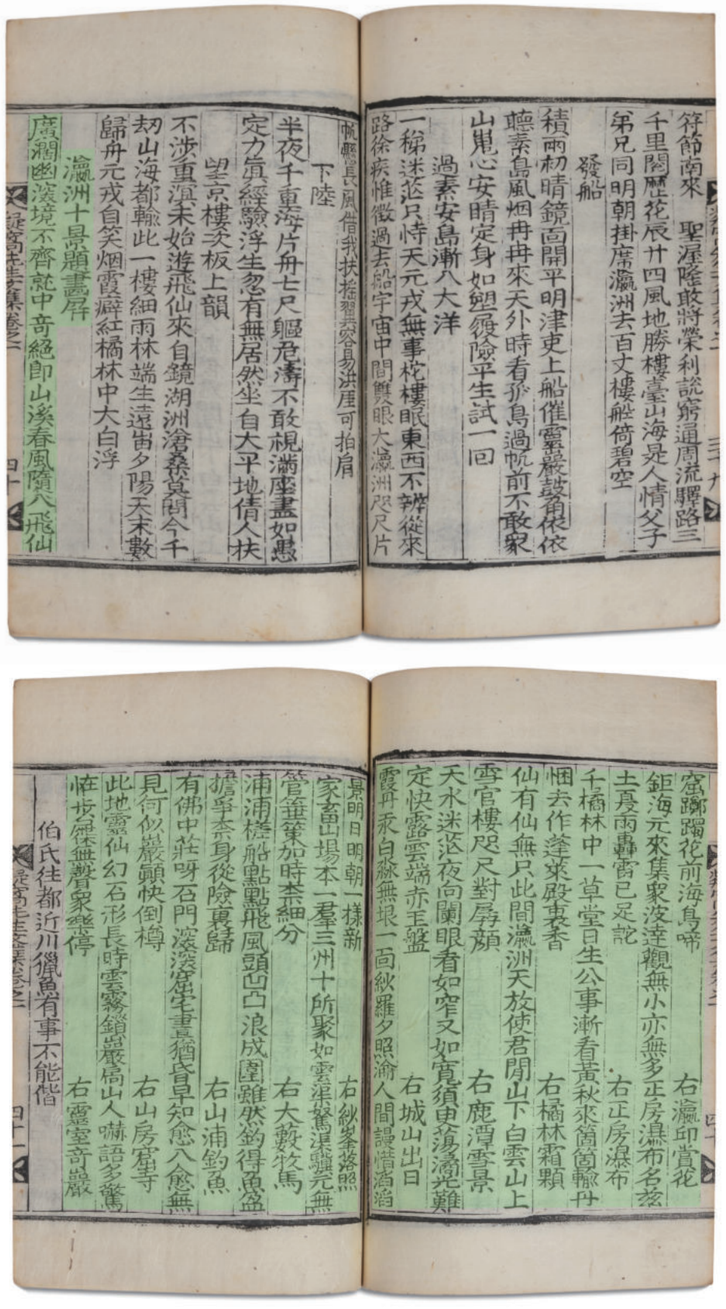
1702년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부임해서부터 영천(永川)으로 돌아갈 때까지 약 15개월의 기록으로 운문 120편, 산문 16편, 전문 4편, 간찰 2편 등 모두 14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인들과 주고받은 시문(詩文) 및 제주목사 재임 당시의 행적에 대한 기록과 소회, 고르지 못한 제주 날씨에 대한 고민 등이 담겨 있다.

병와 이형상의 팔경(八景)

구름에 쌓인 한라산, 채색한 난간처럼 그윽하고
화북의 맑은 풍광, 저녁 되니 더욱더 빼어나구나
나무들이 두른 김녕, 첩첩한 시골 마을 멀리 보이고
안개 일어나는 평대, 고운 물가 풍경 감추네
저녁이면 가벼운 돛 걸고 어등포 떠나고
새벽부터 어두운 아지랑이 섬 가에 떠 있네
파도치는 조천에는 봄 낮이 길고
동짓달 세화에는 숲 소리 수심 겹구나

–『탐라록』<팔경(八景)>





-『응와집』<권1, 시(詩), 영주십경제화병(瀛洲十景題畵屛)>

021

응와집

고고민속 9987

응와 이원조의 영주십경(瀛洲十景)

영구상화(瀛邱賞花)

훤희 트였다 그윽이 깊어진 경계에
산 중의 계곡 기이한 절경
봄바람 따라 신선의 굴로 들어가니
진달래꽃 앞에서 바다새 울고 있네

정방관폭(正房觀瀑)

큰 바다는 본래 뭇 파도를 모으기에
적고 많은 것에 아랑곳 하지 않는데
이곳에 이름 난 정방폭포는
여름비에 우렛소리를 자랑하고 있네

귤림상과(橘林霜顆)

천 그루 귤나무 숲속 초당에서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귤을 보네
가을 오면 알알이 충심(衷心)을 싣고
봉래전으로 가서 향기를 내겠지

녹담설경(鹿潭雪景)

선계와 속계가 다만 이 사이에 있어
영주에서의 얽매이지 않는 삶을 한가롭게 할지니
산 아래 흰 구름과 산 위에 눈 쌓인
험준한 산을 관아 누대에서 지척으로 마주한다네

성산출일(城山出日)

하늘과 물이 뒤섞인 밤바다에 새벽이 와서
바라보니 좁은 듯 하고 넓기도 한
빛줄기 잠시 꿈틀대며 솟구치더니
붉은 옥쟁반이 구름 끝에 모습을 드러내네

사봉낙조(紗峯落照)

가이없는 바다에 노을 붉게 물들어
사라봉 한 면에 석양빛이 걸렸는데
사람들 흘러가는 이 광경을 아쉬워하지만
내일아침이 밝아오면 똑같이 펼쳐질 것을

대수목마(大藪牧馬)

집에서든 산장에서든 무리를 지어 기르는 말을
3읍의 10소장에 구름처럼 모아 놓고는
노둔한 것인지 준마인지 본래 상관하지 않다가
채찍을 가할 때 어떻게 세세히 나누는지

산포조어(山浦釣魚)

포구에서 테우들이 점점이 흩어져 날아들면
바람에 울퉁불퉁 파도가 에워싸는데
낚시질 하여 한 짐 가득 고리를 얻는다지만
어찌 다투며 험한 곳으로 돌아가는지

산방굴사(山房窟寺)

입 쩍 벌린 석문에 부처가 있는
깊숙한 굴속은 낮에도 어두워서
들어갈수록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니
어찌 바위 위에서 유쾌히 술잔을 기울이는 것만 하겠는가

영실기암(靈室奇巖)

이곳에 사는 신선이 변해서 된 돌들이
오랫동안 구름과 안개로 바위문을 닫아 걸었으니
산사람이 웃고 떠들면 괴이한 일들이 많이 생겨
발걸음 조심조심 음악소리도 멈춘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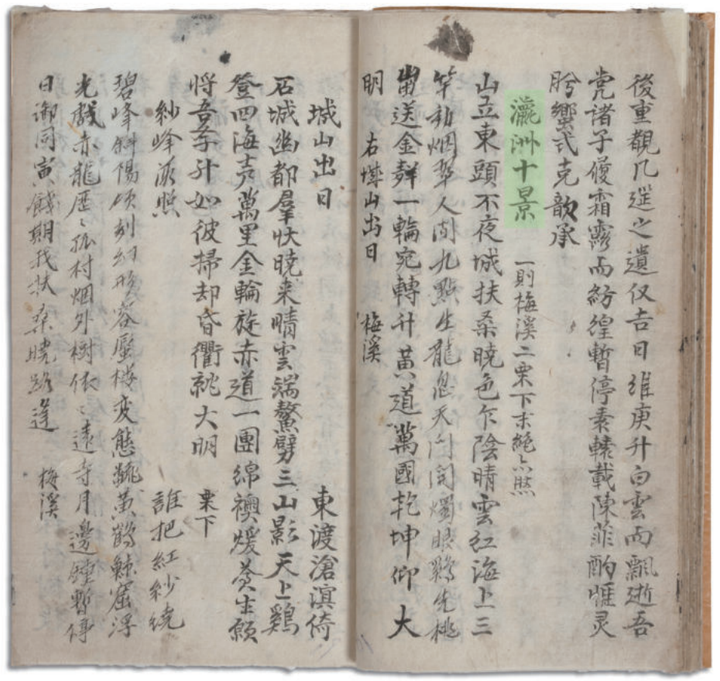
193

제가음영

諸家吟詠
Anthology of
Go Yeongheun's literary works

석호 고영흔(石湖 高永昕)
대한제국 | 한지 | 22.9×13.9
구입 | 2009 | 고고민속 12796

석호 고영흔(石湖 高永昕)의 문집으로 스승인 매계 이한우(梅溪 李漢雨)(1818~1881)가 저술한 영주십경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연파 이용식, 연파 김창현, 난곡 김양수, 영운 김규두, 포계 김희정, 양암 유담을 비롯해 본인이 지은 영주십경도 함께 수록했다.


後重覩凡遑之遺仅吉日維庚升白雲而觀
覓諸子履霜而紛徨暫停素轅載陳菲酌雖
盼饗式克敬承

瀛洲十景 一則梅溪二果下未絕七照

山立東頭不夜城扶桑晓色乍陰晴雲紅海上三竿動
竿動烟擎人間九點生龍忽天門開燭眼
鷄送金舜一輪宛轉升黃道萬國乾坤仰大
明 右檗山出日 梅溪

城山出日
石城幽都擎快晓来晴雲端驚劈三山影天上鷄
登四海去萬里金輪旋赤道一團綿襖煖炎生顔
將竟予計如彼掃却昏衢祝大明 東下
紗峰淡照 誰把紅紗繞碧峰
碧峰斜陽候刻幻形容屢換変態飄黃鸝觸處浮
光戲赤龍歷孤村烟外樹依遠寺月邊鐘暫停
日御同車餞期我扶桑曉露逢 梅溪

매계 이한우의 영주십경(瀛洲十景)

성산출일

동쪽 머리에 서 있는 산이 불야성과 같음은
새벽빛으로 해 뜨는 곳이 잠깐 어둠이 걷힌 것
바다 위엔 빨간 구름 늦은 아침까지 움직이고
사람 사는 마을에는 아침 짓는 푸른 연기 점점
하늘 문에는 문득 불타는 용이 눈을 부릅뜨고
복사꽃 골짜기에선 쇠소리 같은 닭 울음 들린다
하나의 동그라미가 뚜렷이 태양의 궤도에 오르면
온 세상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밝음을 우러러 보나니

城山出日

山立東頭不夜城
扶桑曉色乍陰晴
雲紅海上三竿動
煙翠人間九點生
龍忽天門開燭眼
鷄先桃峀送金聲
一輪宛轉升黃道
萬國乾坤仰大明

紗峯落照

誰把紅紗繞碧峰
斜陽頃刻幻形容
屢樓變態飜黃鶴
鯨窟浮光戲赤龍
歷歷孤村煙外樹
依依遠寺月邊鐘
暫停日馭同寅餞
期我扶桑曉露逢

사봉낙조

누가 붉은 비단을 푸른 봉우리에 둘렀는고
잠깐 해 지는 사이에 바뀌는 허깨비 같은 모습들
신기루처럼 변하는 자태 황학이 날르는 듯
고래굴에 끈 빛은 붉은 용이 장난치는 듯
뚜렷이 드러난 외진 마을 나무 연기에 가려졌고
아득히 먼 절의 종소리 달가에서 들린다
잠깐 해 수레 멈추고 송별자리 함께 하여
부상의 새벽길에서 나와 다시 만나길

瀛邱春花

兩岸春風挾百花
花間一徑線如斜
天晴四月飛紅雪
地近三淸影紫霞
影入溪聲通活畫
香生仙語隔煙紗
請君須向上頭去
應有碧桃王母家

영구춘화

양쪽 언덕 봄바람에 온갖 꽃들 끼어 있고
꽃 사이로 비껴 있는 실 같은 오솔길
맑은 하늘 초여름인데 붉은 꽃눈 휘날리고
선계에 가까운 땅 채색 아지랑이 비쳤다
그림자 잠긴 개울물 소리, 살아 있는 그림인 듯
향기 속 신선의 말소리 비단 연기에 가려진 듯
벗과 더불어 위쪽으로 올라가보면
응당 푸른 복숭아 열린 서왕모의 집 있으려니

正房夏瀑

急瀑雷聲破正房
炎雲倒瀉紫煙光
雪飛三伏靑山冷
虹掛半空白日長
直倒連天歸大海
橫流落地作方塘
乃知普澤終成雨
盡入神龍造化藏

정방하폭

거센 폭포 소리 정모싯물을 깨치고
타는 구름 쏟아 부은 듯 자주빛 연기
삼복인데 눈이 날리어 청산이 서늘하고
긴긴 여름날 무지개는 허공에 걸려있네
꺼꾸러진 물줄기 하늘에 이어진 채 바다로 돌아가고
횡류는 땅으로 떨어져 넘쳐흘러 방당을 만들었다
알만한 건 마침내 비를 만들어 널리 적셔주려고
깊숙한 곳 신령한 용이 조화 부리고 있음을

귤림추색

집집마다 누런 귤 저절로 숲을 이루니
동정호 가의 양주인 듯 가을빛이 깊었네
천 갈래 가지 끝엔 달과 같은 옥덩이
서리 머금은 여러 덩이 낱낱이 황금알
그림 속에 선인이 학을 탄 느낌이요
술자리에 나그네가 좋은 노래 듣는 마음
세상 사람들 제후의 부귀 이루려 하면서
무슨 일로 권세가를 찾아 속된 일을 하는가

橘林秋色

黃橘家家自作林
楊州秋色洞庭心
千頭掛月層層玉
萬顆含霜箇箇金
畵裏仙人乘鶴意
酒中遊客聽鶯心
世間欲致封侯富
底事朱門桃李尋

山房窟寺

化工多巧斲靑山
洞設僧門雲掩關
鍊石乾坤包上下
孔針世界穿中間
倒懸樹色千年戲
點滴泉聲萬古閑
寒榻香消雙佛坐
幾時甁鉢鶴飛還

산방굴사

조물주가 재주 많아 푸른 산을 깎아내어
굴 속에 절을 짓고 구름으로 문빗장 걸었네
다듬은 돌로 천정과 바닥 위아래를 감싸니
침으로 뚫은 듯 딴 세상이 그 가운데 생겨났네
거꾸로 매달린 나무는 오랜 세월 흔들거리고
떨어지는 샘물 방울 만고에 한가롭구나
싸늘한 의자에 향내에 잠긴 두 부처님 앉혔는데
어느 때면 큰 스님은 학을 타고 오시려는지

녹담만설

하늘이 늦도록 눈을 저장하여 맑은 못을 지키게 하니
흰 구슬은 우뚝두뚝, 푸른 구슬은 물에 잠겼다
아침 구름은 골짜기를 나오며 그림자를 토하지 않고
새벽달은 숲을 뚫고 다정하게 떠오른다
물 위에 싸늘함 불어드니 분을 바른 듯
병풍바위에 봄이 스며드니 절반은 쪽빛 그림
어디에 피리 부는 신선 싸늘한 곳을 찾아
쌍 사슴 타고 와 맑고 단 물을 마시는지

鹿潭晩雪

天藏晩雪護澄潭
白玉崢嶸碧玉涵
出洞朝雲無影吐
穿林曉月有情含
寒呵鏡面微糊粉
春透屛間半畵藍
何處吹簫仙指冷
騎來雙鹿飮淸甘

山浦釣魚

兩兩輕槎出釣魚
海天一色鏡中虛
落花飛絮春和後
綠水靑山雨歇初
何意煙雲隨往返
多情鷗鷺忘親疎
如今此景輸高手
應作人間未見書

산포조어

짝지어 고기잡이 나가는 가벼운 떼배
바다 하늘 같은 빛 텅빈 물 위에
꽃 지고 버들꽃 날리는 따스한 봄날
파란 물 푸르른 산 비 내리다 개일 때
무슨 뜻인지 연기와 구름 어울려가고 오고
다정한 갈매기 백로 친소를 잊었구나
지금의 이 정경을 좋은 솜씨에 맡긴다면
응당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글을 지으련만

영실기암

연하 덮인 한 골짜기 오백 개 바위
기묘 괴이하여 모두 다 예사 모습 아닐세
스님이 절 탑에 기대어 운장을 바라는 듯
선인이 요대를 향하여 월삼으로 춤을 추는 듯
한나라 나그네 황하의 근원을 찾으려 북두를 범했지만
진나라 아이 바다를 바라보고 배를 멈추지 못했네
장군들은 아마도 하늘의 비밀 새어날까 두려워
신령한 곳을 굳게 지켜 스스로 입을 다물고 있구나

靈室奇巖

一室煙霞五百巖
奇形怪態總非凡
僧依寶塔看雲杖
仙揖瑤臺舞月衫
漢客窮河徒犯斗
秦童望海莫停帆
將軍或恐神氣漏
默守靈區口自緘

古藪牧馬

雲錦裁來各色駒
靑蚓紫燕又晨鳧
桃花細雨行行蝶
芳草斜陽渴渴烏
霧濕班毛皆變虎
風飛黃鬣各疑狐
投鞭欲掃東西穢
誰有經綸滿腹蛛

고수목마

구름 비단 마름질한 듯 각색의 망아지들
청규마 자연마 또 신부마일세
복사꽃, 가는비에 날아드는 나비같은
향기로운 풀, 지는 해에 목마른 오추마
안개에 젖은 무늬 털은 다 호랑이 같은데
바람에 날리는 누런 갈기 여우인 것 같구나
채찍질로 세상의 궂은 것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거미의 배에 가득한 듯한 경륜 어느 놈에게 있을까

– 『제가음영』 <절구(絶句), 사가십경시(四家十景詩)>

194

영주십경

瀛洲十景

Ten scenic views of Yeongju (old name for Jeju)

현중화

1983 | 한지에 먹

196.0×599.0(196.0×59.9, 10폭)

기증 | 1983 | 고고민속 3162



195

영주십경

瀛洲十景

Ten scenic views of Yeongju (old name for Jeju)

박계봉

1990 | 한지에 먹

168.5×443.4(168.5×44.3, 10폭)

기증 | 1990 | 고고민속 4855

196

영주승경(영주십이경)

瀛洲勝景

Twelve scenic views of Yeongju (old name for Jeju)

안광석

1982 | 돌에 각인

11.0×3.6×3.7(총 14점)

기증 | 1982 | 고고민속 2103~2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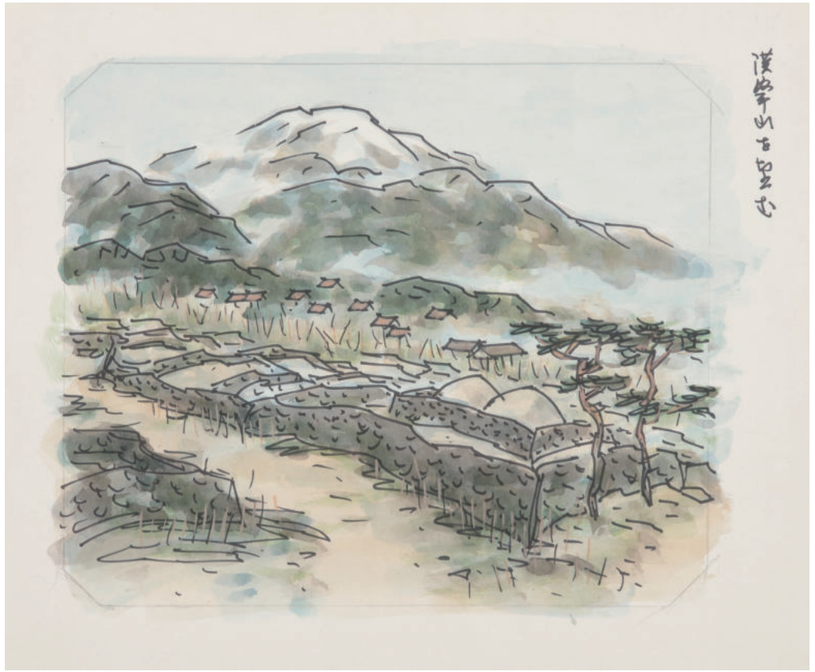
한라산은 미술작품 속에서도 중요한 소재였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한라산을 소재로 그린 회화 작품으로 가토 쇼린진과 김원구, 안흥찬, 이승현, 강태석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197

미상

未詳
Being unknown
가토 쇼린진
1964 | 종이에 수채 | 186.2×396.0(186.2×49.5, 8폭)
기증 | 2009 | 고고민속 9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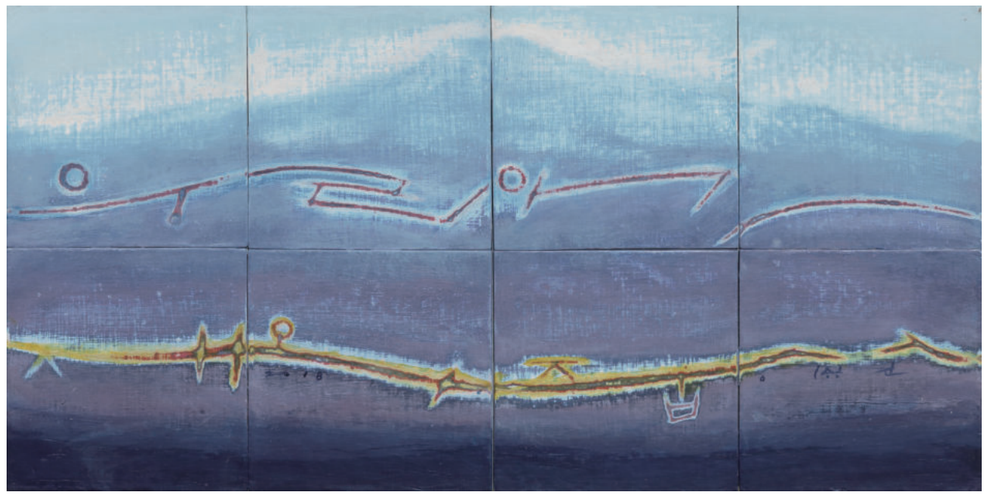


198

제주의 들

濟州野
Fields of Jeju

김원구
2005 | 캔버스에 유채 | 58.0×92.1
기증 | 2006 | 고고민속 9038



199

우리아기 재와줍서

Please put my baby to sleep

이승현
2019 | 캔버스에 유채 | 42.7×85.0
기증 | 2020 | 고고민속 12399



200

녹담만설

鹿潭晩雪

Snow at Baengnokdam crater

안홍찬

2013 | 캔버스에 먹 | 96.7×162.0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13

한라산과 강태석

강태석(1938~1976)은 현대미술의 전 영역을 넘나들며 한국적이고 제주적인 미학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던 서양화가이다. 한라산과 오름을 사랑한 등산광으로서 제주 산악안전대와 산악회의 창립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태석은 전설과 민속 등 제주의 향토성에 주목한 작품들을 다수 선보였다. 특히 '대화(對話)' 시리즈와 '상(像)' 시리즈 등에는 그만의 독특한 마티에르 속 제주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는 1996년 유족이 기증한 회화 작품 151점을 비롯하여 사진, 신문기사, 편지 등 각종 아카이브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201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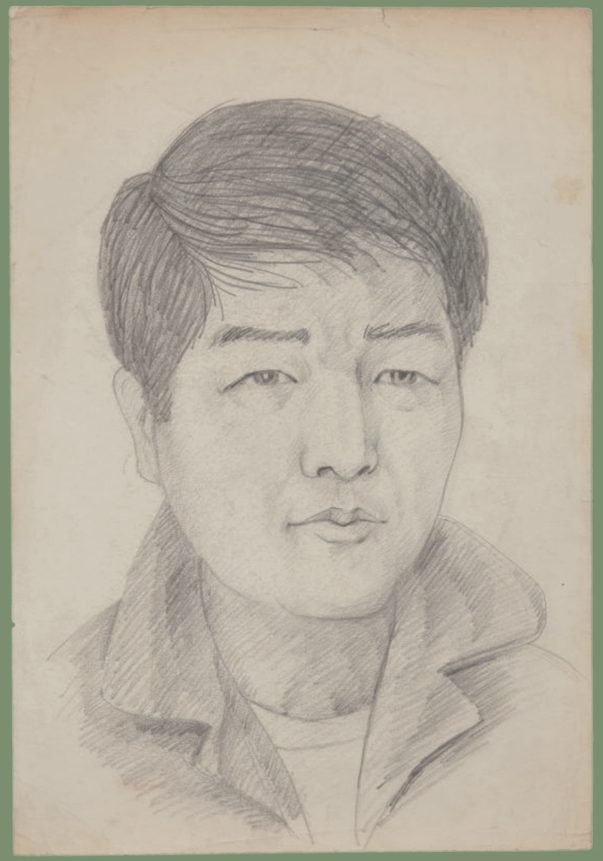
未詳

Being unknown

강태석

1960 초 | 종이, 연필 | 39.5*27.2

기증 | 1996 | 고고민속 6639



202

드로잉

素描

Drawing

강태석

1968 | 종이, 먹, 펜 | 21.9×34.8

기증 | 1996 | 고고민속 6452



203

한라산

漢拏山

Hallasan Mountain

강태석

1965 전후 | 종이, 크레용 | 12.6×18.8

기증 | 1996 | 고고민속 6600



204

산 說話

山 說話

Mountain folktales

강태석

1973 | 종이, 유채 | 27.3×39.0

기증 | 1996 | 고고민속 6453







205

像

像

Image

강태석

1968 | 종이, 크레용, 수채 | 19.0×27.3

기증 | 1996 | 고고민속 6538

206

像

像

Image

강태석

1968 | 종이, 유채 | 13.5×27.2

기증 | 1996 | 고고민속 6544



207

등산 像

登山 像

Hiking image

강태석

1965 | 종이, 유채 | 17.6×17.6

기증 | 1996 | 고고민속 6559



208

像 아가씨, 사슴, 초가집

像, 女子, 鹿, 草家

Image of a young lady,
deer and a thatched cottage

강태석

1975 전후 | 종이, 수채, 먹, 펜 | 19.7×13.7

기증 | 1996 | 고고민속 6493



209

傳說

傳說

Legend

강태석

1970 | 종이, 유채, 크레용, 수채 | 39.5×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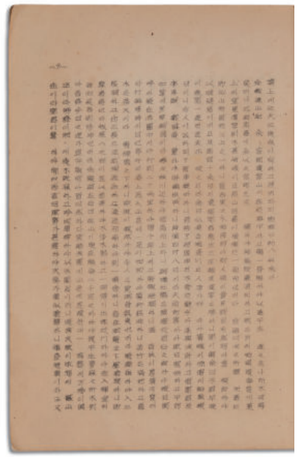
기증 | 1996 | 고고민속 12569

3. 도전과 관광의 명소 한라산

과거 한라산은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위협의 대상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미지의 공간이었고, 마땅한 등산로도 없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유람의 차원에서 한라산을 오를 수 있었지만 그를 수행한 백성들에게 산행은 고역 그 자체였다. 제주 목사를 역임했던 이원조가 백록담까지 가마를 타고 올라갔다는 사실이 그 일례이다.

20세기 들어 한라산 등반은 알피니즘(산을 정복함으로써 인간의 영역을 넓히고자 한 등산운동)의 적극적 구현과 학술조사를 통해 본격화된다. 이는 등산로 개척과 정비 및 산악 안전 체계 강화로 이어졌고, 한라산 등산 안내 자료들이 일반 등산객들에게 널리 배포되면서 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

조선시대 한라산 산행 기록을 살펴보면, 산수유람이 대부분의 동기였으며 한라산신제 봉행과 자연풍물에 대한 체험과 기록을 위한 산행도 하나의 동기였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품 중에는 17세기 김치(『증보탐라지』(담수계)), 18세기 이형상(『남환박물』)과 남구명(『우암집』), 19세기 이원조(『응와집』)와 최익현(『증보탐라지』(담수계))의 산행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김치와 최익현, 남구명, 이원조가 개인적 차원에서 한라산을 유람(遊覽)했던 것과 달리 이형상은 제주의 지형과 식생 및 행정 체계 등 지리적 정보 전반을 정리하기 위해 한라산에 올랐다.



178

증보탐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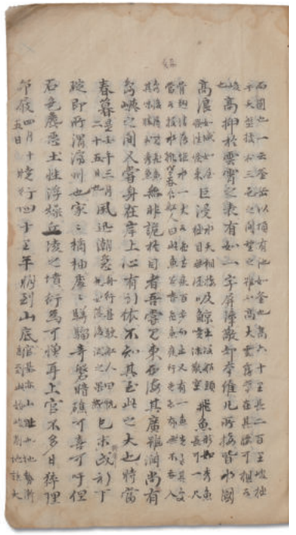
고고민속 2020

제주판관 김치의 산행(1609년)

내 일찍이 한라산이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서 한번 올라봄이 소원이었고 장차 평생의 유람을 하려는 뜻을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1609년(광해군 1) 이른 봄, 내가 천관랑(天官郞)으로 있었는데 임금님의 은혜로 특별히 제주의 판관에 제수되었다. 3월이 지나 비로소 바다를 건넜다. 오면서 한라산을 바라보니 그리 심히 험준해 보이지는 않았다. 길고도 거대한 산기슭이 한 면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나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소위 영주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저 산이다. 신선이 산다는 삼신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사람마음이란 남한테서 들은 것은 좋아 보이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은 하찮아 보이는 것일까? 어찌 가서 직접보고 그 의혹을 깨치지 않으리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지리(地理), 김치유산기(金緻遊山記)>



012

남환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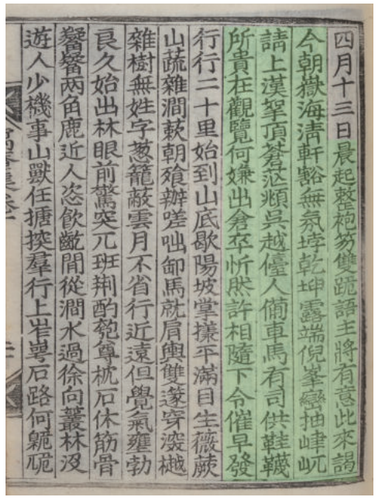
고고민속 10411

제주목사 이형상의 산행(1702년)

상관(上官)으로 지낼 날이 많지 않으므로 급작스레 지팡이와 신을 준비하였다. 새벽 참에 떠나 40리를 가니 해가 뜰 무렵 한라산 기슭에 도착하였다. …중략… 일대가 비단을 펼친 듯 눈에 들어오니 눈이 부시다. 휘장 같기도 하고 치마 같기도 하다. 모두 벌리어 펼쳐진 것이 다 영산홍으로 붉은 꽃이 곱게 만발하였다. 사이에 소나무와 대숲과 향기로운 풀이 연한 녹색을 이루니 이 때문에 처음부터 흥취가 났다. 보교(步轎)를 버리고 말을 타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굽이굽이 흐르는 계곡에는 푸른 풀 더미가 귀엽고 잡목은 하늘을 가리웠다. 동백, 춘백, 산유자나무, 이년목, 영릉향, 녹각, 소나무, 비자, 측백, 황벽, 붉은밤나무, 가시밤나무, 용목, 가죽나무, 뽕나무, 단풍나무, 칠나무, 후박나무 등이 있다. 이들이 모여서 우산과 같이 덮여 있다.

-『남환박물(南宦博物)』<지지(誌地)>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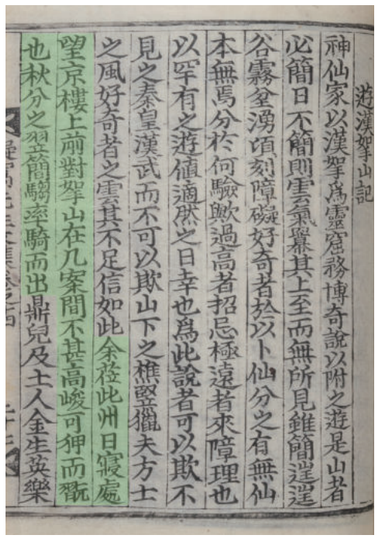
우암집

고고민속 4942~4944

제주판관 남구명의 산행(1713년)

아침에 일어나 도포와 홀주 갖추고
주장 앞에 무릎 꿇고
아침에 뵙는 사연 아뢰었네
오늘은 산과 바다 깨끗하고
훤히 트인 창공에 먼지 하나 없고
세상은 뚜렷이 제 모습 드러내어
산봉우리들 더욱 우뚝 솟은 듯하니
청하오니 한라산 이마에 올라
아득한 바다 건너 오와 월 땅 굽어보려 합니다
하인들이 수레 말 갖추고
유사는 신발 버선 내줄 터
중요한 일은 승경 관람이니
급히 떠난다고 어찌 혐오하리까
기꺼이 형편 따라 하라고 허락하여서
서둘러 출발하라 명을 내렸네

-『우암집(寓菴集)』<권1, 시(詩), 장유(壯遊)>



021

응와집

고고민속 9987

제주목사 이원조의 산행(1841년)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한 날 침처인 망경루 위에서 앞에 마주한 한라산은 궤안 사이에 있으면서 그리 높지 않아서 얕잡아보면서 완상할 만하였다. 추분 다음날로 마부를 뽑고 기병을 인솔하여 나갔다.

-『응와집(凝渦集)』<권14, 기(記), 유한라산기(遊漢拏山記)>

유학자 최익현의 산행(187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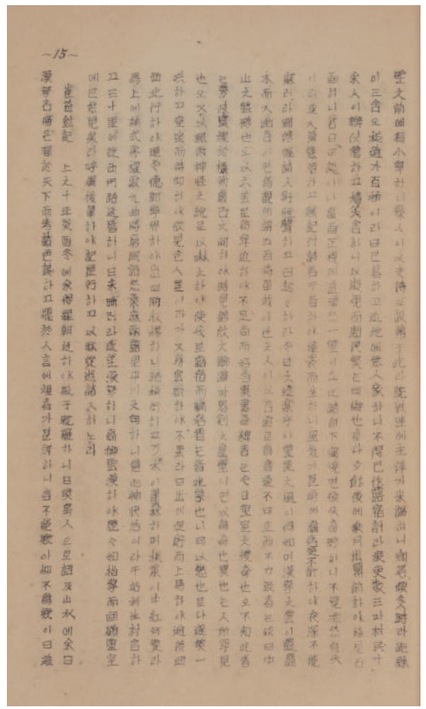
1873년(고종 10) 겨울, 나는 조정에 죄를 지어 탐라로 귀양 갔다. 하루는 섬사람들과 산수에 대해서 말을 나누다가 내가 말하였다. "한라산의 명승은 온 천하가 다 아는 바인데도 읍지(邑誌)를 보거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구경한 이가 매우 드무니 못가는 것이오,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 산은 뿌리가 4백리에 뻗쳤고 높이는 하늘에 닿아서 잴 수가 없습니다. 5월까지도 눈이 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 있는 백록담은 여러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는 곳으로 아무리 맑은 날이라 할지라도 항시 흰 구름이 끼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주산으로 일컫는 곳으로 삼신산의 하나입니다. 어찌 평범한 인간들이 쉽사리 유람할 수 있겠소이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놀랐다. 그 후 1875년(고종 12) 봄에 나라의 특별한 은전을 입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마침내 한라산을 찾을 계획을 하고 제주선비 이기온(李基溫)에게 앞장서서 길을 안내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지리(地理) 최익현기(崔益鉉記)>

178

증보탐라지

고고민속 2020



210

우편엽서

郵便葉書

CARTE POSTALE

일제강점기 | 종이 | 9.0×14.0(5점)

구입 | 2021 | 아카이브 자료

산이 험하고 깊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었던 한라산은 일제강점기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특히 일제는 제주에 영림서(營林署)를 설치해 한라산의 원시림 수백만 본을 벌목하고, 1906년부터는 매년 수천근의 표고를 재배하였으며, 연합군과의 전쟁을 대비한 방어진지를 조성하기도 한다.

한편 일제는 한라산을 관광지로 인식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우편엽서(郵便はがき)'에는 '조선팔경 제 1위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도장과 함께 백록담, 구상나무림, 방목장 등 한라산의 전경이 담겨 있다.











211

제주안내도

濟州案內圖

Guide map of Je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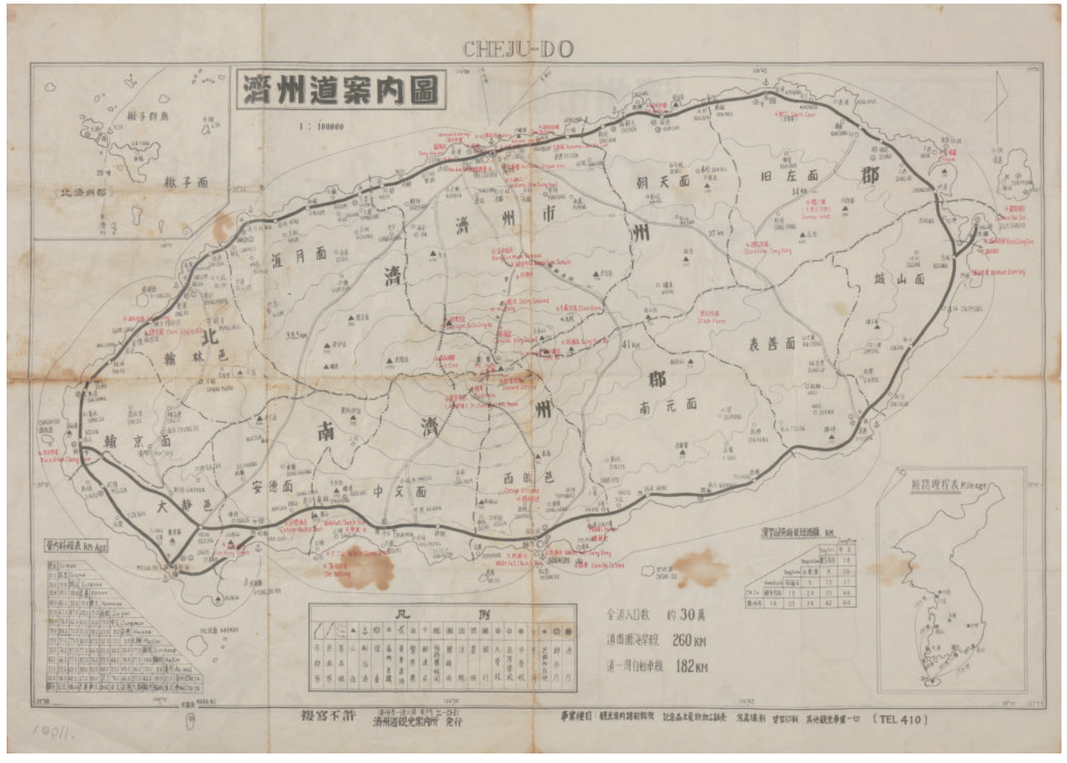
제주도관광안내소(濟州道觀光案內所)

1950년대 | 양지 | 38.7×54.2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11

한라산은 해방 이후 발생한 4·3 사건으로 1948년 10월부터 입산이 전면 통제되었다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 해제가 발표되면서 전면 개방된다. 이후 각종 제주도 관광 안내 자료를 통해 주요 명승지로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으게 된다.

'제주도안내도'는 1950년대에 제주도관광안내소(濟州道觀光案內所)에서 발행한 인쇄본 제주도 관광지도이다. 축척 1:100,000의 제주도 행정구역도에 붉은색으로 주요 관광지의 한자와 영어명을 기재하였고 뒷면에는 제주시가도(1:3,000)가 담겨 있다. 한라산에는 백록담, 용진굴, 어승생악, 성판악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백록담으로 향하는 등산도로가 그려져 있다. 한편 주요 관광지와 같은 표기법으로 제주의 대표 명승으로 꼽는 영주십이경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12

제주도명승안내사진첩

濟州島名勝案內寫眞帖

Che Ju Provincial
Tour Guidance Book

라이카사
1959 | 양지 | 19.5×13.0
구입 | 2012 | 고고민속 9950

'제주도명승안내사진첩'은 제주 지도와 주요 명승지 및 풍속, 영주십경 등 관광 정보를 비롯하여 제주도 내 주요산물 및 특산물, 기관, 교통, 방언, 지질, 기후 등을 수록한 안내 책자이다.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매우 풍부하게 담고 있으며, 사진과 설명문을 통해 한라산과 백록담, 오백나한(영실기암)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한라산 등산행정(行程)안내를 통해 제주-관음사적-용진굴-백록담-오백나한-버린냇도-서귀포로 이어지는 등산코스와 거리, 소요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213

등산가이드

登山案內
Climbing guidebook

김용성(金容聲)
1970 | 종이 | 14.6×10.5
기증 | 2000 | 기타산악 350

1960년대부터 1980년대는 새로운 국산 등산 장비가 개량되고 산악단체 조직 및 산악도서 간행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등산이 레저화 되어 가던 시기이다. 특히 한라산은 식물학자 부종휴(1926~1980)의 등산로 개척과 산악안전대 등 산악단체들의 등산로 정비를 통해 산악 안전이 강화되면서 1974년 등산객 23,466명을 시작으로 1981년 10만 명, 1987년 20만 명, 1989년 35만 명, 1994년 50만 명, 2004년 66만 명, 2005년 70만 명을 돌파한다.

'등산가이드'는 등산 기술과 지식을 소개하고 40개 산악 코스를 담은 초심자용 등산해설서이다. 한라산의 위치와 산세, 등산 시 주의 사항 및 지도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성판오름입구-성판오름-사라오름-백록담, 관음사-탐라계곡동쪽-백록담 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214

등산코오스안내집

登山路案內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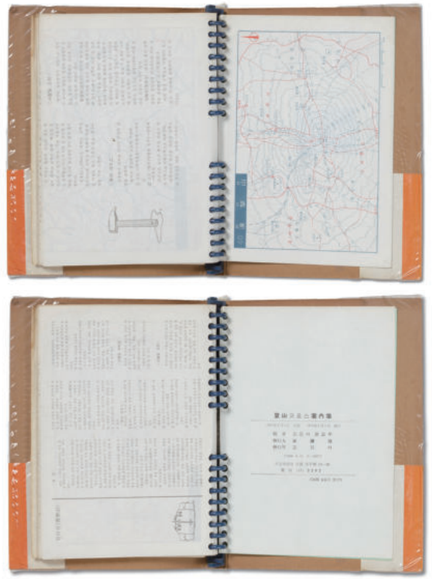
Guidebook for climbing ro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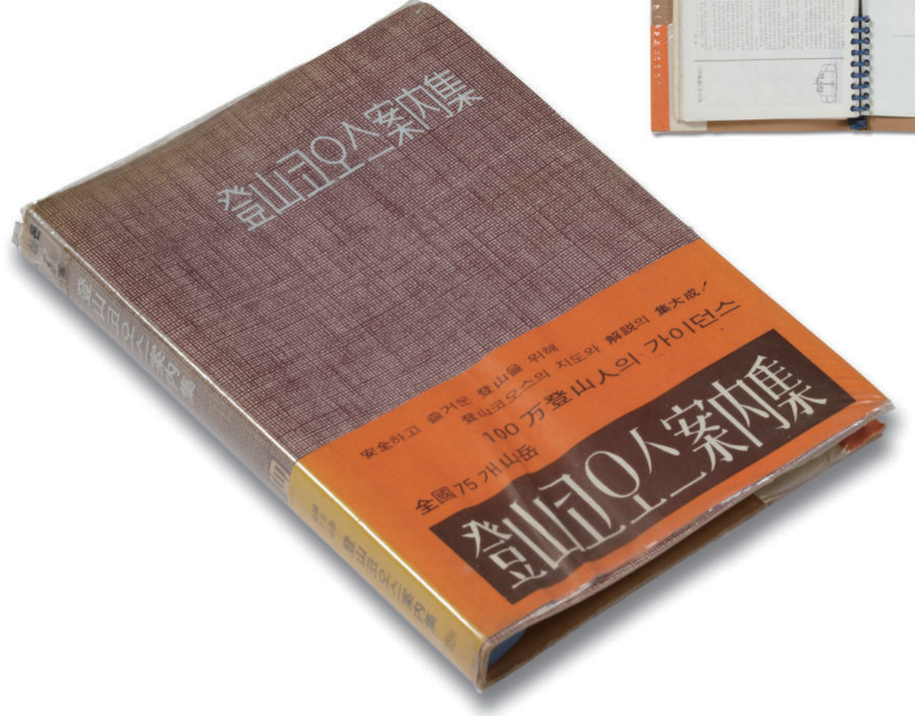
교진사 편집부

1971 | 종이 | 23.0×16.9

기증 | 2000 | 기타산악 324

‘등산코오스안내집’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75개 산악을 지도와 해설로 엮은 책이다. 주요 도시권에 속하는 산악을 중심으로 수록했으며 지도와 해설 개관, 등산코스, 교통 및 숙박편, 사찰 및 고적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라산은 3만분의 1 축척 지도로 담겨 있으며 한라산의 지질학적 특성과 경관 및 6개의 등산코스와 2개의 하산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215

한라산 등산지도

漢拏山登山地圖

Map for climbing Halla Mountain

이우형(李祐炯)

1980 | 종이 | 18.9×11.4

기증 | 2000 | 기타산악 351

‘한라산 등산지도’는 국립지리원 발행 1:25,000 지형도를 기도로 사용한 1:35,000 한라산 등산 안내도이다. 어리목등산로, 영실등산로, 돈내코등산로, 성판악등산로, 개미등등산로를 중심으로 등산로를 일반과 험로로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도 내에 각종 주의사항과 주요 수목, 캠프, 휴게소 등을 수록하여 안전한 산행을 도모하고 있다.



한라산과 고상돈

고상돈(1948~1979)은 제주에서 태어나 청주에서 활동한 산악인으로, 1977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등정에 성공한 인물이다.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으며, 대한산악협회는 고상돈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9월 15일을 '산악인의 날'로 지정했다.



216

티셔츠

上衣
T-shirt

1977 | 천 | 65.7×84.0
기증 | 1981 | 기타산악 12

생전 제주산악회의 명예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고상돈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자신과 산과의 첫 번째 인연이 '한라산'이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인연은 그의 유해가 한라산 1100고지에 안장되고 1100도로 일부 구간이 '고상돈로'로 명명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등산장비, 사진, 상패, 기념품 등 그의 유품 670점은 1981년과 2000년 두 차례 유족에 의해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되었다.



217

모직남방

毛織上衣
Wool shirt

1977 | 천 | 길이 75.9 품 49.3
기증 | 1981 | 기타산악 6





218

한국일보기

韓國日報旗

Flag of the Hankook Ilbo newspaper

1977 | 천 | 31.0×44.0
기증 | 1981 | 기타산악 310

219

훈장증

勳章證

Certificate of merit

1977 | 종이 | 29.3×40.5
기증 | 2000 | 기타산악 459





220

정상돌

頂上石

Stone brought from the top
of the Himalayas

1977 | 돌 | 10.9×16.3×12.0
기증 | 1981 | 기타산악 312



어느 날 6·25때 헤스 대령이 세운 고아원 앞을 지나다가, 고아원 애들에게 얻어맞고 자전거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다. 그 고아원은 현재 제주종합운동장 곁이라고 기억된다. …중략… 뒤쫓아 오는 애들이 없는 것을 확인한 나의 눈은 나도 모르게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에 가리운 한라산이 왠지 모르게 나를 따뜻이 그리고 편안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이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신비감에 사로잡혀 산만 우러러 보고 있었다. 이것이 나와 산과의 첫 인연이자 첫 만남이었다.
그때 나는 문득 한라산 꼭대기를 오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청주의 고모님 댁으로 옮길 때까지 한 번도 한라산에 올라가보지 못했다. 제주북초등학교 3학년 소풍 때 관음사까지 가본 것이 고작이었다. 세발자전거를 끌고 한라산으로 피해 올라간 사건 이후 왠지 모르게 나의 마음 한구석엔 산이 나의 안식처 같은 생각이 일곤 했다.

– 조선일보<1977년 10월 9일, 에베레스트 사나이(상) 나는 이렇게 자랐다>

부록

논고

도판목록

참고문헌

'해시태그 한라산' 특별전

한라산의 식물은 어디서 왔을까?

김찬수(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Ⅰ. 서론

제주도는 면적 약 1,850㎢로 전국 약 220,952㎢의 1%도 되지 않은 좁은 면적임에도 국내 분포 관속 식물의 반 이상이 분포하여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렇게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면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 급원인 한반도, 중국 등 아시아 대륙, 일본열도 및 태평양의 종이 유입하기 쉽다. 둘째, 화산섬으로서 생성한 지 오래지 않아 화산지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름과 계곡, 폭포, 해안 등 다양한 지형이 발달해 있어 미소 환경이 다양하다. 셋째, 면적은 좁지만 동서간 또는 저지대와 고지대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동쪽의 성산포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0㎜가 넘고, 서쪽의 고산은 1,200㎜에 불과하며, 한라산 정상은 5,000㎜를 넘는다. 넷째, 제주도는 대륙붕 섬으로 빙하기에는 연륙됐었다. 많은 종의 식물들이 이 기간 제주도로 이동해 들어 왔는데 그간의 기후변화와 고립에 따른 유전자 교환의 중단으로 종 분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식물의 식물지리학적 분포 인자를 개관하고 여기에 분포하는 종들이 어느 지역과 관련이 깊은지를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식물 다양성의 요인으로서 지리적 지사적 요인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1) Kim C.-S. 2009. Vascular Plant Diversity of Jeju Island, Korea. Korean J. Plant Res. 22(6) : 558~570.

2) 김찬수, 김문홍. 1985. 한라산 아고산대 초원 및 관목림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학술조사보고서, 311-330. 제주도.

Ⅱ. 본론

1. 제주도의 관속식물분포 현황

제주도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어느 정도 될까?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194과 2,235분류군으로 집계되었다[3)](표1). 전국 217과 3,461 분류군임을 감안할 때 과 수준에서 89.4%, 종, 아종, 변종, 품종을 모두 포함한 분류군 수에서 64.6%에 달한다. 이것은 제주도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 수시로 발표되는 미기록종을 모두 포함하여 전국단위의 현황파악이 다소 느린 데 비추어 볼 때 다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나 대단히 많은 종류가 분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1. 제주도에 분포하는 관속식물 수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양치식물	29	63	197	1	8	-	206
나자식물	3	7	11	-	1	1	13
피자식물	162	778	1,766	23	190	37	2,016
쌍자엽식물	133	580	1,289	18	144	24	1,475
단자엽식물	29	198	477	5	46	13	541
계	194	848	1,974	24	199	38	2,235

표2. 귀화식물을 제외한 제주도에 분포하는 관속식물 수

	과	속.	종	아종	변종	품종	계
양치식물	29	63	197	1	8	-	206
나자식물	3	7	11	0	1	1	13
피자식물	156	682	1,506	21	177	33	1,737
쌍자엽식물	130	505	1,077	16	132	24	1,249
단자엽식물	26	177	429	5	45	9	488
계	188	752	1,714	22	186	34	1,956

식물지리학적 측면에서나 식물의 기원을 논의 함에 있어 다소 왜곡의 소지가 있는 귀화식물을 제외한 현황은 표2와 같다. 양치식물은 29과 63속 206 분류군이다. 이는 전국 분포 종의 78.4%에 달하는 양이다. 나자식물은 3과 13 분류군이다. 피자식물은 156과 682속 1,737 분류군인데, 그중 쌍자엽식물은 130과 505속 1,249 분류군

3) Flora of Korea Editorial Committee. 2006. The Genera of Vascular Plants of Korea. Academy Publishing Co.

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88과 1,956 분류군에 달하여 종 다양성이 대단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 다양성은 아종 이하의 분류군을 제외한 종 수준에서 전국 3,048종의 64.2%로 역시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런 종 구성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자 과에 따른 종의 분포를 보면 표3과 같다. 종 수에서 가장 많은 과는 국화과 153종, 사초과 129종, 화본과 119종, 장미과 88종, 난초과 74종, 콩과 65종, 백합과 59종, 꿀풀과 56종, 미나리아재비과 51종 등의 순이다. 이 순위는 종수에서 난초과가 전국 전국 8위에서 제주도 5위, 꿀풀과 전국 13위에서 제주도 8위, 미나리아재비과 전국 6위에서 제주도 9위, 현삼과 전국 11위에서 제주도 16위로의 순위변동이 눈에 띄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쐐기풀과는 전국의 모든 종이 제주도에 분포하고, 고란초과는 전국 21종인데 단 한 종을 제외한 모든 종이 제주도에도 분포하며, 꼭두선이과, 꿀풀과, 난초과, 개고사리과, 관중과에서 70% 이상이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란초과, 개고사리과, 관중과, 난초과의 종들은 아열대성에서 한대성까지 다양한 기후대에 분포하는 종들이 섞여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꼭두선이과와 쐐기풀과는 습한 곳과 건조한 곳을 선호하는 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3. 제주도에 분포하는 분류군 수 기준 상위 20개 과(고유종도 각 과에 포함했음)

	과명	제주 분포속	제주 분포 종 (비율)	제주 고유종	한국 분포 속	한국 분포 종 (순위)
1	국화과(Asteraceae)	58	153(52.8)	3	95	290(1)
2	사초과(Cyperaceae)	11	129(52.4)	-	13	246(2)
3	화본과(Poaceae)	67	119(56.1)	1	94	212(3)
4	장미과(Rosaceae)	27	88(61.1)	4	37	144(4)
5	난초과(Orchidaceae)	37	74(84.1)	1	42	88(8)
6	콩과(Fabaceae)	27	65(64.4)	2	38	101(7)
7	백합과(Liliaceae)	25	59(54.1)	-	31	109(5)
8	꿀풀과(Lamiaceae)	24	56(86.2)	1	26	65(13)
9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	15	51(49.0)	-	20	104(6)
10	미나리과(Apiaceae)	24	45(67.2)	2	33	67(12)
11	마디풀과(Polygonaceae)	6	42(56.9)	-	7	75(10)
12	십자화과(Brassicaceae)	16	40(51.9)	1	29	77(9)
13	관중과(Dryopteridaceae)	5	39(76.5)	-	6	51(15)
14	개고사리과(Athyriaceae)	5	31(79.5)	-	6	39(16)
15	꼭두선이과(Rubiaceae)	10	31(88.6)	1	12	35(18)
16	현삼과(Scrophulariaceae)	17	31(45.6)	2	25	68(11)
17	석죽과(Caryophyllaceae)	11	28(43.8)	1	17	64(14)
18	제비꽃과(Violaceae)	1	24(63.2)	-	1	38(17)
19	쐐기풀과(Urticaceae)	8	22(100.0)	-	9	22(19)
20	고란초과(Polypodiaceae)	9	20(95.2)	-	9	21(20)

제주도에 분포하는 지리적 분포유형에서 귀화종은 종에 따라 기원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제주도에 귀화하게 된 과정이 일반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논의에서 제외했다. 지리적 구분은 세계 식물지리구분(Brummitt, 2001)[4], 분포는 Lee(1996)[5]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아시아 온대 인자가 1,770종으로 79.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열대 인자로 601종으로 26.9%였다. 다음은 유럽 인자가 266종으로 11.9%, 북미가 263종으로 11.8%를 차지하여 거의 같았는데, 유럽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북미는 대양으로 격리된 점에 비추어볼 때 대단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다음은 아프리카 인자 102종으로 4.2%, 오스트랄아시아 인자가 93종으로 4.2%, 남미 인자 67종으로 3.0%, 태평양 인자 14종으로 0.6% 순이다.

표4. 제주도 식물의 지리적 분포유형 비율

	제주도	귀화종	아시아 온대	아시아 열대	유럽	북미	아프리카	오스트랄아시아	남미	태평양
분류군	2,235	279	1,770	601	266	263	102	93	67	14
비율(%)		12.5	79.2	26.9	11.9	11.8	4.6	4.2	3.0	0.6

표5. 제주도 분포 식물의 이웃 지역 또는 국가와 공통종 비율(귀화종 제외)

	제주도	한반도	일본 열도	중국	러시아	아시아 열대	타이완	몽골	서 아시아	중앙 아시아	티베트
분류군	1,956	1,674	1,447	1,271	528	485	385	72	13	9	54
비율(%)		85.6	74.0	65.0	27.0	24.8	19.7	3.7	0.7	0.5	0.2

제주도 분포 식물의 이웃 지역 또는 국가와 공통종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와 85.6%로 가장 높았다. 일본열도와는 74%, 중국과는 65%가 공통종이었는데 일본열도와의 공통종의 비율이 높은 점이 주목된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와 아시아 열대

4) Btummitt K. 2001. World Geographical Scheme for Recording Plant Distributions (ed. 2). Hunt Institute for Botanical DocumentationCarnegie Mellon University, Pittsburgh.
5) 이우철. 1996. 한국식물명고. 아카데미서적.

와 공통종이 각각 27%와 24.8%로 유사했다. 다음은 타이완과 공통종이 19.7%였다. 그 외로는 몽골과 3.7%가 공통종이었으며,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와는 모두 1% 미만으로 미미했다.

2. 제주도의 지리 및 지형 특성

제주도는 북위 33° 34′ 동경 126° 10′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최남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식생대로 볼 때 저지대는 상록활엽수림대에 속하지만, 중앙에 해발 1,950m의 한라산 정상 일대는 아고산대 즉, 아한대 산림대(sub-boreal forest)를 보이고 있다(그림1). 즉 한라산 정상의 식생은 북으로 약 1,000㎞ 떨어진 두만강 또는 백두산 2,000m 지역의 식생과 거의 같은 유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리학적 위치 및 지형적 특징으로 제주도는 한반도의 전체의 식생을 축소한 식생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식생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들은 저지대의 경우는 아열대성 인자들로, 해발고가 높아질수록 추운 지방의 식물들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식물 구성은 짧은 기간에 성립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생성한 이래 유입한 식물들이 적응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대륙붕 섬으로 빙하기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한반도를 회랑 삼아 시베리아의 식물들이 남하해 들어 왔고, 중앙아시아의 식물들도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유입했을 것이다(표4). 구체적으로는 빙하기 연륙 당시 기후변화에 따라 습한 시기에는 북에서 남으로, 건조한 시기에는 서에서 동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2). 이러한 가설은 현재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식물들의 기원지 혹은 분포중심지를 감안한 분포 특성을 비교함으로서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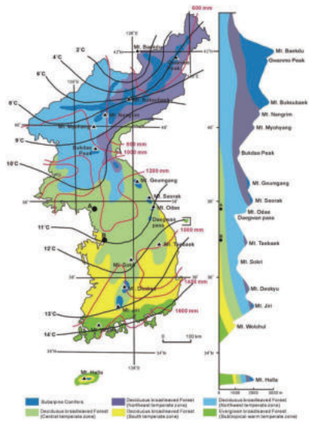


그림1. 한반도의 식생도, 등온도, 등강수량과 고도단면도(산림청, 1996, 숲과문화연구회(2014)에서 재인용)[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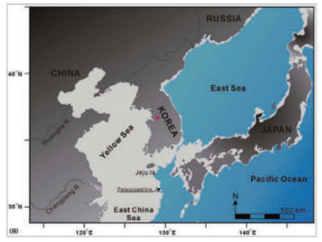


그림2. 최종빙기 최성기 약 18,000년 전 고해안선(박용안, 1992에서 재인용)[7]

6) 숲과 문화연구회. 2014. 우리숲의 역사. 거목문화사.
7) 위의 책

3. 한라산 식물의 지리·지사적 기원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한반도, 일본, 열도, 아시아대륙의 가운데에 있다. 따라서 빙하기 연륙의 효과와 간빙기 고립의 효과가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제주도의 식생 성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식물지리학에서 피토코리아(phytochoria)라는 용어가 있다. 이 말은 비교적 균일한 식물 종의 구성을 가진 지리적 영역을 말한다. 이 피토코리아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뚜렷하지 않고 유동적이며, 인접한 두 지역의 많은 종들이 겹치는 일종의 과도기적 영역이라 할 수 있기도 하다. 피토코리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말로 번역한 사례가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파이토코리아를 그대로 쓴다.

전통적인 체계에서 식물지리학의 영역은 고유한 과, 속 또는 종의 존재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류하거나 영역 및 지역[8], 계, 지역 및 지방[9], 때때로 제국과 도메인 범주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저자는 단순히 비계층적 의미에서 ‘areas’, ‘regions’ 또는 ‘phytochoria’로 언급하여 지역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10].

식생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은 두 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생리학적-환경적 매개변수 및 특성을 사용하는 시스템과 플로리스틱(즉, 속 및 종 공유)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11]. Phytochoria는 식물 분류학적 구성에 의해 정의되는 반면, 다른 지역화 계획(예: 식생 유형, physiognomy, 식물 형성, 생물군계)은 저자에 따라 우세한 생활형 같은 군락의 뚜렷한 특성, 환경 특성, 관련 동물군, 인류적 요인 또는 정치적 보존주의 문제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12].

식물이 자라는 지리적 영역을 분류하는 여러 시스템이 고안되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계층적으로 구성되며, 가장 큰 단위는 더 작은 플로리스트 커뮤니티로 구성된 더 작은 지리적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Phytochoria는 고유 분류군이 많은 지역으로 정의된다. 식생 Kingdom은 높은 수준의 과(family) 고유성, 식생 지역은 높은 수준

8) Drude, O. 1890. Handbuch der Pflanzengeographie. Stuttgart: Engelhorn, [1], [2]. French translation: Manuel de géographie botanique. Paris: P. Klincksieck, 1897.
9) Braun-Blanquet, J. 1932. Plant sociology; the study of plant communities. New York and London, McGraw-Hill.
10) Linder, Lovett, Mutke, et al. 2005. A numerical re-evaluation of the sub-Saharan phytochoria. Biologiske Skrifter 55: 229-252.
11) Joly, C.A., M.P.M. Aidar, C.A., Klink, D.G. McGrath, A.G. Moreira, P. Moutinho, D.C. Nepstad, A.A. Oliveira, A. Pott, M.J.N. Rodal and E.V.S.B. Sampaio. 1999. Evolution of the Brazilian phytogeography classification systems: implications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Ci. e Cult. 51: 331-348.
12) L. Magno Coutinho. 2006. O conceito de bioma. Acta bot. bras. 20(1): 13-23.

의 속(genera) 고유성, 식생 provinces는 높은 수준의 종의 고유성을 특징으로 한다. phytochoria의 시스템은 포유류 가족의 구성을 따르는 동물원 지리학적 지역과 식물과 동물 종을 모두 고려하는 생물 지리학적 지역 또는 육상 생태 지역과 상당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19세기 후반, Adolf Engler(1844-1930)는 4개의 주요 식물상 지역(영역)으로 식물 분포의 한계를 가진 세계 지도를 최초로 제작했다[13)14)]. 이 외에도 이런 식생구분을 시도한 사례는 많다.

한편, Ronald Good(1947)은 6개의 식생계(floristic kingdoms; 한대 또는 전북구, 신열대, 고생열대,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극)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그가 꽃 피는 식물의 분포에 대해 결정한 가장 큰 자연 단위이다. 그의 6개 계(kingdom)는 레전(region)과 프로빈스(province)라고 하는 더 작은 단위로 세분화된다. 고생대의 계는 3개의 하위 계로 나뉘며, 각각은 식생 region으로 세분화된다. 다른 다섯 계는 각각 region으로 직접 세분된다. 이에 따라 총 37개의 식생 레전이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은 이 식생 레전으로 세분화된다.[15)].

Armen Takhtajan(1978, 1986)은 Good의 성과를 기반으로, 널리 사용되는 scheme에서 35개의 식생 레전을 구분했으며, 그들 각각은 총 152개 프로빈스가 있다[16)].

이러한 구분에서 우리나라는 전북식물계 동아시아 레전에 속한다. 이 레전에는 만주 프로빈스를 포함하여 13개의 프로빈스로 구분되는데 그중 우리나라는 한-일 프로빈스(Japan-Korea province)에 속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식물지리학적으로 보면 전북식물계 동아시아 레전 한-일 프로빈스에 속한다. 문제는 제주도가 화산활동으로 생성되었으며, 3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까지 제주도 지형의 골격형성기를 거쳐 10만 년 전 이후부터 현재의 제주도 지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17)].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한 고지대의 지형은 7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18)].

---

13) Engler, A. 1879-1882. Versuch ein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Pflanzenwelt. 2 vols., Leipzig

14) Cox, C. B., P.D. Moore and R. J. Radle. 2016. Biogeography: an ecological and evolutionary approach. 9th edition. John Wiley & Sons: Hoboken.

15) Good, R. 1947. The Geography of Flowering Plants. Longmans, Green and Co, New York, [13]. 2nd ed.

16) Takhtajan, A. 1969. Flowering plants: origin and dispersal. Transl. by C. Jeffrey. Oliver &. Boyd, Edinburgh.

17) Brenna M., S.J. Cronin, I.E.M. Smith, Y.K. Shon and R. Maas. 2012. Spatio-tempoporal evolution of a dispersed magmatic system and its implication for volcano growth, Jeju Island volcanic field, Korea. Lithos 148: 337-352.

18) 윤선, 정차연, 현원학, 송시태. 2014. 제주도 구조운동사. 지질학회지 50: 457-474.

따라서 한라산 고지대의 식생은 이 7만 년 동안의 종의 유입과 적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그림1~2를 볼 때 한라산 고지대는 Boreal Kingdom의 Euro-Siberian Region 중 Asiatic Sub-region의 Western Siberia, Altai-trans baikal, Kamchatka provincedp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분포한 종의 구성을 볼 때 춥고 습한 식생이 이처럼 Euro-Siberian Region 인자만 들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춥고 건조했던 시기에 유입한 종들로 추정되는 종들도 있는 것이다. 이 종들은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4개의 province 중 Truestan and Mongolia와 Tibetan plateau 인자로 판단된다.

4. 한라산의 고산식물

한라산에 분포하고 있는 고산식물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조사 자료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는 대략 140여 분류군이 된다. 이와 같은 한라산 고산식물 중 Euro-Siberian Region 요소와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요소를 추출한 결과는 표6과 같다.

Euro-Siberian Region 요소는 매발톱꽃 등 22종을 들 수 있다. 그중 시로미, 암매, 괴불나무, 댕댕이나무, 홍괴불나무, 백당나무 등은 목본 식물이다. 이들은 대체로 현재 춥고 강수량은 다소 풍부한 백두산, 만주, 시베리아, 캄차카 등에 공통으로 분포한다.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요소는 애기장구채 등 25종이다. 그중 아구장나무는 목본 식물이다. 이 종들은 대체로 춥고 건조한 지역인 몽골, 중앙아시아 및 알타이산맥에 공통으로 분포한다. 이들은 춥고 건조한 시기 제주도와 아시아대륙이 사막으로 연결되었을 때 이 통로를 따라 확산해 들왔을 것이다(그림4).

이와 같이 Euro-Siberian Region 요소와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요소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한라산의 종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매우 드문 사례로서 한라산에 분포하는 종의 다양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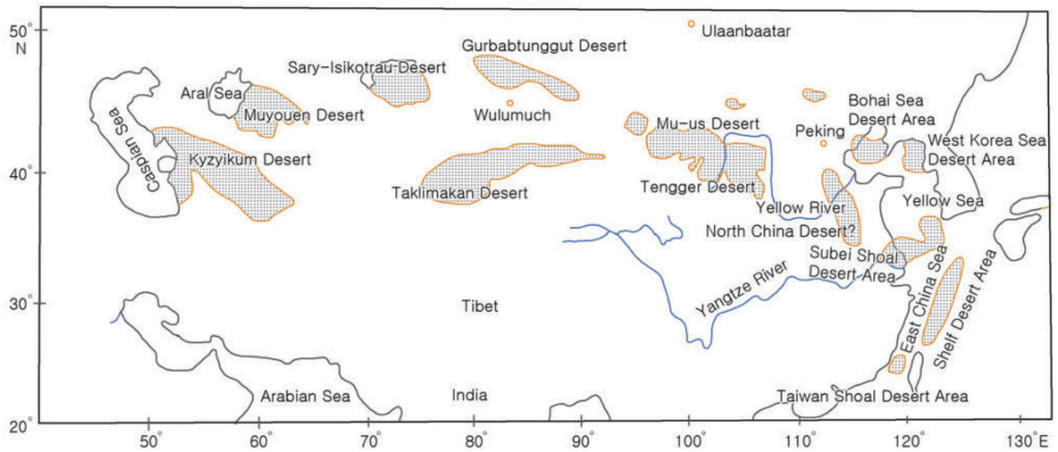


그림4. 최종빙기 중앙아시아 반원형 사막 분포(Qin and Zhao, 1991)[19]

표6. 한라산 고지대 Euro-Siberian Region 요소와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요소(공통종은 제외)

	Euro-Siberian Region 요소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요소
종	매발톱꽃, 미꾸리낚시, 호장근, 둥근털제비꽃, 졸방제비꽃, 시로미, 암매, 설앵초, 전동싸리, 바디나물, 네귀쓴풀, 용담, 층층잔대, 털잔대, 괴불나무, 댕댕이나무, 홍괴불나무, 백당나무, 마타리, 솜나물, 비쑥, 가새쑥부쟁이	애기장구채, 가는범꼬리, 물레나물, 나도냉이, 양구슬냉이, 애기봄맞이, 아구장나무, 제비꿀, 개회향, 신감채, 어수리, 황금, 애기골무꽃, 왜광대수염, 둥근잔대, 뚝갈, 쇠서나물, 쇠채, 큰각시취, 구와취, 들떡쑥, 개사철쑥, 넓은잎외잎쑥, 곰취, 솜방망이

한라산 고산지역에 분포하는 쌍자엽식물 중 특산식물은 다음과 같다. 이 종들은 Euro-Siberian Region 요소와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요소로 한라산에 유입했다가 점차 고립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 것이다. 한라산 고산지대 분포하는 쌍자엽 특산종은 다음과 같이 29종에 이르고 있다.

19) Qin, Yunshan and Zhao, Songling, 1991, Quaternary coastline changes in China, China Ocean Press, Beijing.

Aconitum quelpaertense 한라투구꽃
Ranunculus crucilobus 바위미나리아재비
Berberis amurensis var. quelpaertensis 섬매발톱나무
Corydalis hallaisanensis 탐라현호색
Silene fasciculata 한라정구채
Salix blinii 제주산버들
Hylotelephium viridescens 섬꿩의비름
Astilbe rubra var. taquetii 한라노루오줌
Aruncus aethusifolius 한라개승마
Potentilla stolonifera var. quelpaertensis 제주양지꽃
Maackia fauriei 솔비나무
Euphorbia fauriei 두메대극
Rhamnus taquetii 좀갈매나무
Geranium shikokianum var. quelpaertense 섬쥐손이
Pimpinella hallaisanensis 한라참나물
Gentiana chosenica 흰그늘용담
Elsholtzia minima 좀향유
Plantago alata 탐라질경이
Euphrasia coreana 깔끔좁쌀풀
Pedicularis hallaisanensis 한라송이풀
Adenophora taquetii 섬잔대
Adenophora verticillata var. abbreviata 좀층층잔대
Codonopsis minima 애기더덕
Leontopodium hallaisanense 한라솜다리
Taraxacum hallaisanense 좀민들레
Cirsium rhinoceros 바늘엉겅퀴
Artemisia japonica var. hallaisanensis 섬쑥
Chrysanthemum coreanum 한라구절초
Aster hayatae 눈갯쑥부쟁이

Ⅲ. 결론

제주도에 자생하는 식물은 188과 1,956 분류군으로 전국 3,048종의 64.2%에 달하여 종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분포 식물의 이웃 지역 또는 국가와 공통종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와 85.6%, 일본열도와 74%, 중국과 65%, 러시아와 아시아 열대와 공통종이 각각 27%와 24.8%였다. 그 외로도 타이완과 19.7%, 몽골과 3.7%였으며, 미미하지만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티베트와도 공통종이 발견된다.

이와 같은 종 구성은 제주도가 생성한 이래 장기간에 걸쳐 유입한 식물들이 적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대륙붕 섬으로 빙하기에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한반도를 회랑 삼아 시베리아의 식물들이 남하해 들어 왔고, 중앙아시아의 식물들도 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유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빙하기 연륙 당시 기후변화에 따라 습한 시기에는 북에서 남으로, 건조한 시기에는 서에서 동으로 확산해 왔다. 현재 한라산 고지대 식생에는 Euro-Siberian Region 요소와 Western and Central Asiatic Region 요소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식생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수 많은 종이 유입했다가 점차 고립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종으로 분화한 쌍자엽 특산종은 29종에 달한다.

논고

인문학적으로 본 한라산의 미래가치

임재영(동아일보)

Ⅰ. 들어가며

제주도의 중심은 한라산(해발 1950m)으로 한반도의 산과는 형성기원이 달라서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힘든 독특한 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 속리산, 월출산이 중생대 쥐라기의 화강암 산지에 위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소백산은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 산지에 분포하는 반면 한라산은 가장 젊은 지질시대인 신생대 제4기의 분화 활동으로 만들어졌다(제주도 한라산연구소, 2013).

제주도는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2002), 세계자연유산(2007), 세계지질공원(2010)으로 등재되면서 자연과학분야에서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았고 3개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중요지역이 한라산이다. 이는 한라산이 독특하고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라산이 특출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식물자원, 지질 등 자연과학분야에서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반면, 인문학 분야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한라산'을 검색어로 설정해서 검색(2020.4.20)한 결과 논문 제목에 한라산이 쓰인 학위논문은 모두 75편으로 이 가운데 인문분야는 적정수용력, 관광 자원화, 유산기, 생태관광, 경관분석 등을 주제로 한 7편에 불과할 정도로 빈약했다(임재영, 2020).

자연과학 분야 연구에 치중됐던 한라산 조사는 1990년대 들어 인문학 분야로 관심이 확장됐지만,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종합적인 연구서는 2006년 발간된 「한라산 총서」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학분야에 치중됐던 한라산 연구가 역사·유적, 인문지리, 구비전승·풍수 등 인문학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기를 맞았다.

다양한 인문학적 자원을 고찰하고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해 소중히 보전하면서, 미래에 물려줄 유산적 가치를 드러내는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다. 한라산의 미래가치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유산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과 흐름을 살펴본다.

유산적 가치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연속성,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확장성,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 교훈적인 역사성 등에 중점을 두고 한라산의 인문학적 자원을 명산문화, 제주4·3사건, 목축문화, 불교문화, 산림문화 등으로 나눴다. 한라산과 인간이 교류한 핵심 키워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 영역에서 유산적 가치를 규명하고 주요 경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유산적 가치에 대해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유네스코와 유산·https://heritage.unesco.or.kr/).

이처럼 유산이라는 개념에는 이미 후손에게 물려주는 미래가치도 포함하고 있어서 한라산 미래가치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유네스코(UNESCO)가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약칭 세계유산협약)이 세계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 세계유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크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나눴다. 자연유산은 △물리적·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성물,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 유적지이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축물, 기념비적 조각과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지, 여러 요소의 복합체 △건물군 △유적지 등으로 정했다.

자연유산, 문화유산의 각각의 영역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의 입증 여부가 세계유산의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라산은 세계자연유산(2007)으로 등재된 만큼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향후 복합유산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유산을 복합유산으로 하고 있다.

산악문화가 발달한 중국에서는 1989년 태산, 1990년 황산, 1999년 무이산이 각각 복합유산으로 등재됐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종교적, 제의적 건축물 등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한라산은 건축물을 비롯한 인공구조물 규모 면에서 중국의 복합유산에 비해 작지만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을 중시하는 문화경관 분야에서 연구가 축적되면 의미있는 가치를 입증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유네스코에서 유산에 대한 인식 및 관점의 변화에 따라 유산의 의미가 확대되고, 분야도 다양해지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세계유산의 가치평가와 등재형태가 살아있는 유산의 중시, 유·무형 유산의 통합적 시각, 문화다양성의 존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원석, 2012). 즉 한라산의 가치를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작업에 따라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것이다. 송원섭(2015)은 비재현지리학(non-representational geography)의 경관연구자들이 '몸적 감응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에 기반한 인간과 경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경관과 인간을 탐구하는 것은 기존 인본주의지리학과 근본적으로 궤도를 달리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경관과 인간과의 관계를 별개의 존재에서 정서와 감응을 중시하는 지리학계 연구경향은 한라산 가치 제고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경향의 변화를 차치하더라도 한라산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규명은 폭넓고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Ⅲ. 한라산의 인문학적 유산가치와 주요 경관

1. 명산문화

'한라산은 명산(名山)이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드물겠지만 '왜 명산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남한 최고봉', '수려한 자연경관' 등 3, 4가지를 제시하고 나면 말문이 막힐 수 있다. 이는 한라산이 품고 있는 가치를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활동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오악(五嶽)을 대상으로 한 명산문화 연구에 비하면 훨씬 뒤처졌고 지리산권의 명산연구에 비해서도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한라산의 인문학적 가치를 밝히려면 오랜 기간 축적된 명산문화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명산은 자연환경의 독특함이나 혹은 문화 발상지, 무형 문화재의 본거지, 특색 토산물의 출산지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연풍경이 수려한 산을 일컫는다. 명산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산을 주거지로 하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명산 활동에 참여한 각 시대, 모든 계층의 유람객과 관계를 통해 명산문화를 이룬다(김지영, 2007).

최원석(2013)은 명산문화의 내용이 시대와 장소, 사회, 문화 그리고 사회집단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명산문화의 기원 및 형성과정에는 역사·지리·문화·사회적 조건이 배경을 이룬다고 봤다. 한국 명산문화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개관할 때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으로 명산의 지정과 분포는 달랐으며 거기에는 공간의 중심지적 속성, 영토의 역사적 영역성과 사회문화적인 배경 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라산을 명산으로 인식한 요소로 삼신산에서 유래한 신선사상, 국가제의로서 산신제, 무속신앙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한라산 유산기에서는 한라산을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인지했다.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바다에 떠 있는 삼신산은 선인이 살고, 불사약이 있으며, 인간세상과 멀리 있지 않지만 또한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상향으로 인식돼 왔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삼신산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전해졌으며 봉래산은 금강산, 방장산은 지리산, 영주산은 한라산에 비의(比擬)하여 일컬어졌다(강정화, 2014).

삼신산에는 신선이 사는 곳으로 비유되면서 백록담은 신선의 거처가 됐다. 흰사슴(白鹿)을 타고 거니는 신선에 얽힌 전설이 조선시대 유산기나 문학작품, 지지(地誌)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만큼 보편적으로 회자됐다. 한라산 산신이 화(化)한 신선에 대한 경외심으로 보이는데 백록담에 올라 자신이 불로장생의 신선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라산은 육지와 고립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더욱 신비감을 자아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장수를 상징하는 남극노인성(南極老人星)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한라산은 더욱 영산(靈山)으로 인식되었다(윤미란, 2008).

노인성은 봄과 가을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볼 수 있었던 별이고, 장수(長壽)의 상징이었다. 그리하여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노인성에 대해 삼국시대 이래 고려, 조선시대 중종조(1506~1544)까지 도교적 성격의 노인성제(老人星祭)가 행해졌다. 이것은 별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이다(제주도세계유산본부, 2014).

한라산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까지는 국가제사로 산신제를 올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태종 18년(1418년)에 와서야 그것도 나주 금성산의 예에 준하여 산신제를 지내게 하였다. 조선중기까지 왕조에 있어서의 한라산은 '바다 밖'에 있는 명산일 따름이었다. 이러한 한라산에 대한 본격적인 제사는 17세기 후반인 숙종 5년(1679)에 와서야 조정의 논의를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시행된다. 이윽고 한라산은 숙종 29년(1703)에 공식적으로 사전에 등재가 결정되었다(최원석, 2014).

한라산 산신제는 17세기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기적인 한라산 산신제를 거행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한라호국신을 모시는 사당으로 기재된 광양당에서 민간 산신제가 활발하게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라산 산신제를 한라산 정상에서 지냈으나 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 1470년 이약동 목사가 지금의 장소(지금의 제주시 산천단으로 추정)로 옮겨 제단을 설치하고 산신제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산신제를 지내는 전통은 2009년 제주시 아라동지역 단체가 이어받아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한라산의 신선사상, 산신제에 대한 경관은 고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제홍은 1844년 '한라산도'라는 지두화를 남겼는데 백록담 내부의 마애각을 하는 장면과 분화구에 백록을 탄 신선의 모습을 그려넣었고 이익태의 탐라십경도에서도 신선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등에서는 한라산(백록담)이 제주의 중심이자 핵심이라는 의식이 드러난다(오상학, 2006).

마애명 역시 한라산의 인문학적 기록 경관이다. 마애명은 경승지의 바위나 벼랑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지칭하는데 한라산 백록담, 탐라계곡, 방선문 등에서 발견된다. 예로부터 신선산으로 불리어 온 한라산 일대에 새겨진 마애명은 제주지방에 부임해온 목사나 관료, 유배인 또는 제주유림 등에 의하여 한라산을 등람(登覽)하면서 새겨놓은 산천경승에 대한 감탄과 산수유람의 풍류의식 등을 담고 있다(제주도세계유산본부, 2014).

한라산은 또한 제주의 각 마을마다 좌정한 신(神)들의 고향이다. 한라산 서쪽 어깨에서 태어난 아홉 형제가 한라산계 당신이 된다. 한라산계 본풀이의 당신들은 '제석천황', '하로백관' 등의 신명을 지닌다. 하로백관은 산신(山神) 혹은 수렵신, 목축신의 성격을 지닌다. 서귀본향당 신화의 보름웃도, 세화리 본향당 본풀이의 천자또, 송당본풀이의 소로소천국 등도 한라산 태생의 신들이다(좌혜경, 2006).

무속신앙의 본풀이에 등장하는 한라산 태생의 신들이 남성계인데 비해 한라산을 만든 여신, 설문대할망은 여성신의 상징이다.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고 앉아 한쪽 다리는 관탈섬에, 다른 쪽 다리는 마라도에 디디고 우도를 빨래판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또 힘이 얼마나 셌는지 삽으로 흙을 7번 파서 던지니 한라산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강정효, 2003).

신들의 고향이었던 한라산은 일제강점기 이후 명산 인식에 있어서 새롭게 전개됐다. 일제강점기에 한라산이 지질학, 식물학 등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씩 밝혀졌다.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한라산의 지질, 식물 수직분포에 따른 종 다양성이 이 시기에 규명됐다. 한라산 겨울 초등(初登)도 일제강점기 일본인 주도로 이뤄졌다. 산에 올라 자연의 이치와 삶을 연계하며 성찰했던 '유산(遊山)'과 대비되는 높은 곳을 도전적으로 등정하는 알피니즘(Alpinism) 등장으로 한라산은 또다시 중요한 입지를 차지했다.

일제강점기간에는 일본인이 등산을 주도하다가 해방이후에는 한국산악회가 창립된 이후 각 지역별로 산악회가 구성되서 해외 원정을 나가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어졌

다. 해외원정을 나가는 전문 산악인들에게 한라산은 겨울 전지훈련장소로 한 번쯤은 거쳐 가는 곳이었다. 전문산악인이 아니더라도 등산객이라면 남한 최고봉을 밟아보려는 소망이 퍼지면서 명산의 이미지가 굳어졌으며 '죽어서 산에 묻힌다'는 '산과의 일체화', 산을 어머니 품으로 인식하는 '산의 의인화'가 나타났다.

2. 제주 4·3사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규정했다. 희생자가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한라산은 4·3사건 당시 격전지였고, 은신처이자 피난처였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현장으로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도 제주4·3유적 I , 제주경찰사 등의 자료에서 취합해 본 결과 1948년 12월 5일부터 1957년 3월 27일까지 한라산에서 17차례 교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교전은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한라산에 숨었던 무장대나 피난민은 죽과 소금으로 끼니를 이어가기도 하고, 말고기를 대용식으로 하기도 했다. 숲이 우거진 깊숙한 곳에서 나뭇가지를 깔고 2인이 담요 1장을 덮고 잤으며, 비 오는 날에는 담요를 지붕으로 삼았다. 한라산에서 방목을 하다가 통행금지 등으로 찾지 못한 말과 소 등은 무장대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다(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2001).

4·3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관은 한라산개방평화비, 군경토벌대 주둔소, 어승생악 동굴진지 등이 있다. 한라산 백록담 북벽 정상에 높이 100㎝, 너비 45㎝인 비석이 있다. 한반도 모양을 한 비석은 전면에 '漢拏山開放平和紀念碑'(한라산개방평화기념비)가 또렷하게 파여졌고 오른쪽 상단에는 태극기가 그려졌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을 해제한 것을 기념해 당시 제주도경찰국장이 이듬해 백록담 북벽 정상에 비석을 세운 것이다.

4·3사건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가 교전했던 제주시 아라동 관음사에는 토벌대 주둔소 흔적이 남아있다. 1949년 3월부터 잔여 무장대 토벌을 위한 작전이 강화되면서 2연대 2대대병력이 주둔했던 곳이다. 2연대는 제주도의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토벌의 근거지로 삼았는데 관음사 주둔지 외에도 서귀포 수악교 인근에 1대대를, 교래리와 산굼부리 사이에 3대대를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경찰은 주민들과 무장대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길목에 주둔소를 설치했다. 무장대의 활동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토벌을 위해 각 경찰서별로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1952년 4월에는 전도에 32개의 주둔소가 있었다. 중요 주둔소는 60여 명이 동시에 취침 및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으며 경찰이 고정 배치되는 주둔소와 작전 때만 주둔하는 임시주둔소로 분류됐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악주둔소는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해서 조성을 했는데 돌담의 높이는 2~3m이다. 돌담길이가 270m가량이고 면적은 1,920㎡정도다. 주둔소에 숙소는 물론이고 아궁이, 화장실 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옆 어승생악에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진지동굴이 남아있으며 동굴과 주변은 4·3사건 당시 무장대의 아지트였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군이 제주에 남기고 간 총검은 무장대의 무기가 됐다. 1945년 10월까지 제주지역에 일본군 5만 명이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상당량의 무기 등을 여러 진지동굴에 넣어서 입구를 봉쇄하거나 땅에 파묻었다.

한라산에서 무장대 활동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당시 토벌대의 자료 등으로 추적하거나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한라산국립공원지역 물장오리오름과 테역장오름 사이 초지, 어승생악 주변 초지 등은 당시 무장대의 훈련 장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952년 12월 3일 경찰유격대는 물장오리에서 적의 아지트를 발견, 숨겨둔 M1소총 2정과 99식 장총 2정 등을 노획했다고 기록했다(제주도경찰국, 1990).

4·3사건 당시 행방불명으로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가운데 일부가 한라산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라산은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품은 '이데올로기 전쟁터'라는 장소성을 안고 있다.

3. 목축문화

제주사에 등장했던 최초의 목장은 원사(元史)에 기록된 '탐라도목장'으로, 이것은 원나라가 설치한 14개 황가목장(皇家牧場) 중 하나였다. 충렬왕 2년(1276) 원조는 탐라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탐라목장을 설치한 후, 그들의 목축전문가인 하치(목호)들과 말 160필 그리고 소, 양, 낙타, 나귀 등 5축을 현재의 성산읍 수산리 수산평에 보내 방목하게 했다. 당시로서는 목축의 선진기술이 제주로 유입된 것으로, 한라산 일대는 목축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맞았다.

조선 초에도 말은 전마 또는 명나라와의 외교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물품으로 인식되면서 세종연간(1419-1450)에는 물과 목초가 있는 장소에 목장을 설치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세종 11년(1429) 제주출신 고득종이 한라산 산록부에 돌담을 쌓아 목장을 설치하자는 건의했고, 1430년경부터 목장의 하한선을 따라 경계용 돌담인 하잣성이 축조되기 시작했다(강만익, 2017).

한라산 고지대에서의 방목의 장점은 싱싱한 풀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18도 내외의 선선한 기온덕분에 진드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목자를 뜻하는 제주방언인 ‘테우리’들은 여름철마다 소와 말에 달라붙어 괴롭히는 진드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목장에서 방목을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한라산 방목은 무료 이용이 가능했다.

강만익(2013)은 제주의 목축민들은 한라산 해발 1,400m이상 초지대를 '마을 위에 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상산(上山)이라 불렀고, 목자들 사이에 별다른 규제가 없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아고산지대에서 행한 특유의 목축문화를 ‘상산 방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라산으로 올려 보낸 소와 말들은 서로 섞여서 이동하다가 잃어버린 사례도 있었지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서 방목이 가능했다. 하지만 일부는 밀림 속으로 들어간 뒤 ‘야우’(野牛)로 변하기도 했으며 최근 발견되는 배설물 흔적 등으로 볼 때 야우의 후손인 야생 소들이 한라산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천마리에 이르렀던 고지대 방목은 1970년 한라산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금지됐다.

한라산 목축문화는 무주공산(無主空山)에서 행해졌던 공공재인 초지의 이용, 거처의 공유를 확인할 수 있고 공공재의 활용을 위해 자발적인 또는 강제적인 경계구분도 드러난다. 목축문화와 관련한 경관 가운데 잣성이 지금도 남았고, 한라산 고지대에는 테우리가 묵었던 궤(그늘집자리), 경계 돌담이 있다.

4. 불교문화

한라산 영실(靈室)은 정상인 백록담에서 남서쪽 해발 1,300m~1,650m 일대에 위치한 골짜기로 둘레 2㎞, 깊이 0.35㎞ 가량이다. 수려한 경관과 더불어 영실 일대는 불교문화 명소로 나라의 안녕을 위해 제사를 지낸 사찰을 비롯해 근처에 불교의 항일운동 발상지가 포진했다. 고승이 수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수행굴’도 영실에 있다.

지명인 영실은 부처가 고대 인도에서 설법했던 '영산회랑' 또는 '영취산'에서 유래했으며 오백나한 역시 깨달음을 얻은 불제자들을 칭한다. 볼래오름은 ‘부처가 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불래악’(佛來岳)으로 불리기도 했다. 병풍바위의 주상절리 기둥은 부처의 제자인 1,250명을 뜻한다는 주장도 있다. 조선시대 일부 관리는 기암괴석을 ‘천불봉’(千佛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영실에는 조선시대 국성재를 지낼 만큼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존자암’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리와 선비들이 한라산을 탐방할 때는 대부분 존자암을 거쳐가면서 영실의 장관을 감상했다. 홍유손이 1507년 지은 ‘존자암개구유인문’에는 ‘존자암은 비보소로 이름이 세상에 난 지 오래다. 세 읍의 수령 중 한 사람을 뽑아 암자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를 국성재라 하였는데 지금은 제사가 폐지된 지 8, 9년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송문기, 2012).

숭유억불 정책으로 한라산에서 200년 동안 단절됐던 불교문화는 1908년 안봉려관이 제주시 산천단에 관음사를 창건하면서 다시 이어졌다(한금순, 2010). 영실계곡에서 4㎞가량 떨어진 서귀포시 법정악 능선에는 1911년 법정사가 생겨났다. 법정사는 이른바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의 발상지로 무오법정사항일운동이란 1918년 10월 법정사 김연일, 방동화 등 스님들이 중심이 되어 신도와 민간인 등 400여 명이 집단으로 순사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일제에 항거한 무장 항일운동을 말한다(김광식, 2018). 1948년 발발한 제주4·3사건으로 산중 사찰, 암자는 모두 철거되거나 불에 타는 수난을 겪었으며 관음사는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의 교전장이기도 했다(한금실, 2008).

> “영실계곡에 암자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초반이다. 1961년 육지에서 온 스님과 함께 계곡에 움막을 지어 생식을 하면서 부처님을 모셨고 신도가 많이 몰렸다. 근처에 암자 3개가 더 생겼다. 영실계곡에 들어섰던 암자는 정부의 치산녹화 정책(1973~1978년) 정책으로 1977년 철거됐다.” (원정상 씨 증언·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이나 경계에 들어선 사찰은 제주시 관음사을 비롯해 아흔아홉골에 있는 천왕사와 석굴암, 영실탐방로 입구에 오백나한사 등이 있다. 볼래오름 존자암 터에는 복원한 존자암이 2002년 들어섰다. 기도와 수행을 위한 도량으로 한라산은 세속과 선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산림문화

주민들이 한라산에서 얻었던 직접적인 수익은 임산물이 대부분이지만 삼림지를 불태운 후 농사를 짓는 화전농이 등장한 적이 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제주시 능화오름(해발 975m)에서 족은드레왓(해발 1,339m)을 연결하는 해발 600~1,200m 일대에 화전마을이 형성됐으나 제주4·3사건 당시 산간마을을 없애는 ‘소개령’에 의해 사라졌다(강만익, 2006).

한라산에서 농사가 힘든 대신 풍성하고 독특한 산림은 최대 자원이었다. 일제강점기 목장조성과 화전농업 등으로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구상나무, 소나무, 주목 등을 대량으로 벌목했으며 털진달래, 눈향나무, 당단풍나무 등을 정원수나 분재용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해방이후에는 한라산 원시림에서 연료와 난방용 등으로 쓰인 숯을 만들었다. 당시 숯을 생산했던 ‘돌가마’를 한라산 관음사탐방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 산간지대에 흔적이 여

전히 남아있다. 숯 굽기는 연탄과 석유의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이밖에 일제강점기에 재배되기 시작한 표고버섯도 한라산의 대표적인 산림자원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도 자연산 표고버섯을 채취하기는 했으나 인공재배는 1905년 일본인 3명이 만든 회사인 '동영사'(東瀛社)가 한라산에서 재배한 것이 국내 시초로 알려졌다(제주도, 1997).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표고버섯 인공 재배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확한 표고버섯은 일본과 중국(수출)으로 보내졌다. 한라산에 넓게 분포한 서어나무, 졸참나무 등이 표고버섯 원목으로 유용하게 쓰였다. 일본인들은 이들 원목을 마구 남벌하면서 산림자원이 사라지기도 했다.
해방이후에는 제주지역 주민 등이 표고버섯 재배 사업을 이어받아 더욱 번성했다(제주도, 2006). 해방이후 표고버섯 재배지는 76개소로 대부분 한라산 해발 500~1,000m에 위치했는데 1970년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는다.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에서 표고버섯 재배가 불가능해지면서 2개소를 제외하고는 외곽지역으로 밀려났다. 산림자원 가운데 표고버섯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숲을 활용한 한라산둘레길 조성 등을 통해 힐링의 공간이 강조되고 있다.

Ⅳ. 나오며

한라산의 인문학적 유산 가치를 밝히기 위해 연속성,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확장성,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성, 교훈적인 역사성 등을 바탕으로 명산문화, 제주4·3사건, 목축문화, 불교문화, 산림문화를 살펴봤다. 이들을 한라산과 인간이 교류한 핵심적인 분야로 판단했다. 이들 5개 분야가 한라산 가치를 규명하는 영역으로 삼기에는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명산문화는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배경을 갖춰야 하고 우리나라 지리산, 설악산 등 여러 산은 물론이고 중국의 산과의 비교 연구를 하면서 세계복합유산 등재를 검토해볼만하다. 제주4·3사건 분야에서는 주둔소, 훈련장, 학살터, 격전지 등에 대한 유적 발굴이 수반되어야하고, 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이뤄진 주거형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라산의 산 공간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마을공동목장의 와해에 따라 사라지는 목축문화, 목축경관에 대한 검토도 시급하다. 이밖에 산림이 힐링을 위한 걷기와 야영, 체험의 자원으로 변하고 있는 문화의 흐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한라산 자원 가운데 제주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수(水)자원도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한다.

참고문헌

강만익, 2006, 「한라산지의 촌락과 교통로」, 『한라산총서Ⅳ 한라산의 인문지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강만익, 2017, 『한라산의 목축생활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강정화, 2014, 「유산기로 본 조선조 지식인의 지리산과 한라산 인식」, 남도문화연구 26, 141-167.
강정효, 2003, 『한라산-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돌베게.
김광식, 2018, 「법정사 항일운동의 근대 불교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역사와 교육 27, 229-266.
김지영, 2007, 「지리산과 동아시아의 명산문화」, 남도문화연구, 13, 137-150.
송문기, 2012, 「조선시대 제주도 존자암지의 위치와 이건에 대한 문헌적 고찰」, 제주도연구 35, 119-157.
송원섭, 2015, 「경관지리학에서 경치지리학으로: 영미권 문화역사지리학 경관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대한지리학회지 50-3, 305-323.
오상학, 2006,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지리학연구 40-1, 127-140.
윤미란, 2008, 「조선시대 한라산 유기 연구」, 고려대학교 한문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임재영, 2020, 「한라산국립공원지역의 경관자원별 특성과 활용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2001, 『제주4·3사건자료집2 신문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대박물관, 1996, 『존자암지』,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연구소, 2013, 『2012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제주도.
제주도, 1997, 『미래의 보고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2006, 『제주산림 60년사』, 제주도.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제주4·3유적1-제주시 북제주군』, 도서출판 각.
제주도경찰국, 1990, 『제주경찰사』, 일신인쇄사.
제주도세계유산본부, 2014, 『한라산의 마애명』, 디자인제주.
좌혜경, 2006, 「한라산의 구비전승」, 『한라산총서Ⅴ 한라산의 구비전승·지명·풍수』,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최원석, 2012, 「세계유산의 문화경관 유형에 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24-1. 27-49.
최원석, 2013, 「한국의 명산과 명산문화」,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학술심포지엄자료집』.
최원석, 2014, 「지리산과 한라산 명산문화 요소의 역사지리적 특징 비교 고찰」, 남명학연구 42, 281-320.
한금순, 2010,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14, 247-287.
한금실, 2008, 「제주4·3사건이 제주불교계에 미친 영향」, 차세대인문사회연구 4, 97-113.

도판목록



001 **포획암**
捕獲巖
Xenolith

현생 | 암석
34.2×41.5×25.8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19

p.17



002 **포획암**
捕獲巖
Xenolith

현생 | 암석
21.3×56×31.8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121

p.17



003 **U층**
未固結堆積層
Unconsolidated sediment formation

현생 | 암석
높이 16.5 지름 10.5 | 기증
2017 | 지질암석 940

p.18



004 **서귀포층 (조개류 화석)**
西歸浦層
Seoguipo fomation

현생 | 암석
22.7×36.7×32.6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262

p.19



005 **서귀포층(퇴적구조)**
西歸浦層
Seoguipo fomation

현생 | 암석
13.4×31.0×27.7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75

p.19



006 **조면암**
粗面巖
Trachyte

현생 | 암석
17.4×21.7×17.1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778

p.20



007 **조면안산암**
粗面安山岩
Trachyandesite

현생 | 암석
18.5×36.3×16.2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835

p.20



008 **파호이호이 용암**
Pahoehoe lava

현생 | 암석
34.5×25.8×13.5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755

p.21



009 **아아 용암**
Aa lava

현생 | 암석
13.8×38.3×30.0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781

p.21



010 **한라산조면암**
漢拏山粗面巖
Mt. Halla Trachyte

현생 | 암석
11.2×22.3×16.2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697

p.22



011 **백록담조면현무암**
白鹿潭粗面玄武巖
Baengnokdam trachybasalt

현생 | 암석
19.4×31.6×31.0 | 자체수집
미상 | 지질암석 165

p.22



012 **남환박물**
南宦博物
Book on the geography of Jeju and nearby islands in Korea

병와 이형상
1704 | 한지 | 36.4×21.9
구입 | 2016 | 고고민속 10411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p.23, 46, 55, 56, 58, 92, 107, 121, 151, 154, 163, 211



013 **우암집**
寓菴集
Anthology of Nam Gumyeong's literary works

우암 남구명
1860 | 한지
31.6×20.5(3책) | 구입
1990 | 고고민속 4942~4944

p.26, 38, 112, 121, 152, 160, 164, 212



014 **탐라지도병서**
耽羅地圖竝序
Map of Tamna with explanatory notes

이규성
1709 | 한지 | 128.0×185.0
기증 | 1994 | 고고민속 5922~5923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p.28, 110



015 **제주삼읍도총지도**
濟州三邑都摠地圖
Map of Jeju province

18세기 | 한지
120.0×158.0 | 구입
1978 | 고고민속 1022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p.30



016 **제주도지질도**
濟州島地質図
Geological map of Saishuto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1930 | 양지 | 79.2×107.2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06

p.32



017 **제주도의 지질**
濟州島ノ地質
Jeju geological report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1931 | 양지 | 26.4×18.9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10

p.34



018 **제주도북부**
濟州島北部
Map of northern Jeju Island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21 | 양지 | 46.5×59.8
구입 | 2020 | 고고민속 12462

p.36



019 **제주도남부**
濟州島南部
Map of southern Jeju Island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21 | 양지 | 46.5×59.8
구입 | 2020 | 고고민속 12463

p.36



020 **일본 조선남안 제주해협**
日本 朝鮮南岸 濟州海峽
NIPPON TYOSEN-SOUTH COAST SAISHU KAIKYO

대일본제국 수로부
1933 | 양지 | 76.8×107.8
구입 | 2013 | 고고민속 10005

p.38



021 **응와집**
凝窩集
Anthology of Lee Wonjo's literary works

응와 이원조
1926 | 한지
29.0×20.0(12책) | 구입
2012 | 고고민속 9987

p.40, 125, 190, 216



022 **제주도**
濟州島
Jeju folklore research

이즈미 세이치
1966 | 양지
21.4×15.5 | 자체수집
미상 | 아카이브 자료

p.44, 101



023 **남국의 전설**
南國傳說
Legends of the southern land(Jeju)

진성기
1967 | 양지
19.0×13.3 | 기증
2019 | 아카이브 자료

p.46



025 **참매**
Northern Goshawk
Accipiter gentili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48.2 | 구입
1981 | 동물조류 116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51



027 **큰부리까마귀**
Lage-billed Crow
Corvus macrorhyncho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50.2 | 자체수집
2016 | 동물조류 1126

p.52



029 **두견이**
Lesser Cuckoo
Cuculus poliocephal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27.8 | 기증
2020 | 동물조류 1183
천연기념물

p.54



031 **칡부엉이**
Long-eared Owl
Asio ot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47.5 | 수집
2009 | 동물조류 992
천연기념물

p.55



033 **삵**
Small Eared Cat
Felis bengalensiseuptilur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90.5 | 구입
1982 | 듕물포유류 1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56



035 **노루**
Roe Deer
Capreolus pygarg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87.2 | 구입
1982 | 동물포유류 7

p.56



037 **홍지네고사리**
Autumn Fern
Dryopteris erythrosora

현생 | 건조표본
92.0×20.0 | 구입
2019 | 관속식물 4569

p.58



039 **곰비늘고사리**
Uniform Wood Fern
Dryopteris uniformis

현생 | 건조표본
75.5×16.4 | 기증
2019 | 관속식물 4762

p.58



041 **왕지네고사리**
King Wood Fern
Dryopteris monticola

현생 | 건조표본
136.8×26.2 | 구입
2019 | 관속식물 4691

p.58



043 **시로미**
Crowberry
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현생 | 건조표본
25.5×24.1 | 자체수집
1985 | 관속식물 2557

p.60



024 **매**
Peregrine Falcon
Falco peregrin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57.5 | 자체수집
2007 | 동물조류 969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p.51



026 **꿩**
Ring-necked Pheasant
Phasianus colchic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98.9 | 자체수집
2012 | 동물조류 1041

p.52



028 **솔개**
Black Kite
Milvus migran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5.2 | 기증
1992 | 동물조류 767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53



030 **큰기러기**
Bean Goose
Anser falbail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87.5 | 구입
1993 | 동물조류 772

p.54



032 **솔부엉이**
Brown Hawk Owl
Ninox scutulat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4.1 | 수집
2011 | 동물조류 1034
천연기념물

p.55



034 **오소리**
Asian Badger
Meles leucur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82.2 | 자체수집
2018 | 동물포유류 137

p.56



036 **멧돼지**
Wild Boar
Sus scrofa corean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172.2 | 기증
1982 | 동물포유류 20

p.57

038 **띠**
Baldy Grass
Imperata cylindrica var. koenigii

현생 | 건조표본
(중)52.0×13.4 | 자체수집
1997 | 관속식물 3619

p.58

040 **고사리**
Eastern Brakenfern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

현생 | 건조표본
44.2×24.2 | 자체수집
1996 | 관속식물 3609

p.58

042 **고사리삼**
Glabrous-ternate Grapefern
Sceptridium ternatum

현생 | 건조표본
23.8×10.8 | 구입
1981 | 관속식물 990

p.59

044 **멀꿀**
Stauntomia Vine
Stauntonia hexaphylla

현생 | 건조표본
80.0×13.2 | 자체수집
1988 | 관속식물 3067

p.61



045 **으름덩굴**
Five-leaf Chocolate Vne
Akebia quinata
현생 | 건조표본
28.5×23.8 | 구입
2019 | 관속식물 4495
p.61



047 **붉가시나무**
Red-wood Evergreen Oak
Quercus acuta
현생 | 건조표본
36.0×20.0 | 구입
2019 | 관속식물 4409
p.64



049 **상수리나무**
Sawtooth Oak
Quercus acutissima
현생 | 건조표본
34.2×33.4 | 구입
1981 | 관속식물 1127
p.65



051 **비자나무**
Nut-bearing Torreya
Torreya nucifera
현생 | 건조표본
32.8×26.2 | 자체수집
1988 | 관속식물 2976
p.66



053 **소나무**
Korean Red Pine
Pinus densiflora
현생 | 건조표본
35.2×34.0 | 구입
2019 | 관속식물 4727
p.66



055 **황칠나무**
Korean Dendropanax
Dendropanax morbiferus
현생 | 건조표본
36.0×34.1 | 구입
1981 | 관속식물 689
p.68



057 **단풍나무**
Palmate Maple
Acer palmatum
현생 | 건조표본
26.8×22.2 | 구입
1981 | 관속식물 206
p.69



059 **때죽나무**
Snowbell Tree
Styrax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31.1×33.4 | 구입
1983 | 관속식물 1767
p.70



061 **산철쭉**
Korean Azale
Rhododendron yedoense for. Poukhanense
현생 | 건조표본
22.6×29.4 | 구입
1981 | 관속식물 1126
p.71



063 **남오미자**
Kadsura Vine
Kadsura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35.5×13.8 | 구입
1981 | 관속식물 582
p.72



065 **흑오미자**
Black-berry magnolia Vine
Schisandra repanda
현생 | 건조표본
(좌)31.0×7.2 | 자체수집
1989 | 관속식물 3151
p.72



046 **동백나무**
Common Camellia
Camellia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30.2×11.8 | 구입
2019 | 관속식물 4354
p.62



048 **종가시나무**
Ring-cup Oak
Quercus glauca
현생 | 건조표본
31.8×21.4 | 구입
2019 | 관속식물 4517
p.64



050 **참가시나무**
Willow-leaf Evergreen Oak
Quercus salicina
현생 | 건조표본
36.4×38.0 | 구입
2019 | 관속식물 4525
p.65



052 **구상나무**
Korean Fir
Abies koreana
현생 | 건조표본
30.0×17.2 | 자체수집
1988 | 관속식물 3003
p.66



054 **구실잣밤나무**
Siebold's Chinquapin
Castanopsis siebidii
현생 | 건조표본
26.8×30.2 | 구입
1981 | 관속식물 1143
p.68



056 **눈향나무**
Dwarf Juniper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
현생 | 건조표본
31.2×21.5 | 구입
1981 | 관속식물 1158
p.69



058 **멀구슬나무**
China Berry
Melia azedarach
현생 | 건조표본
38.5×29.5 | 구입
2019 | 관속식물 4628
p.70



060 **느티나무**
Sawleaf Zelkova
Zelkova serrata
현생 | 건조표본
34.2×24.6 | 자체수집
1988 | 관속식물 2995
p.70



062 **참꽃나무**
Weyrichii Rosebay
Rhododendron weyrichii
현생 | 건조표본
31.2×26.2 | 구입
2019 | 관속식물 4526
p.71



064 **오미자**
Five-flavor Magnolia Vine
Schisandra chinensis
현생 | 건조표본
17.8×28.2 | 자체수집
1989 | 관속식물 3167
p.72



066 **천연보호구역 한라산 및 홍도**
天然保護區域 漢拏山 紅島
Natural Conservatory Area HAN LA SAN and HONG DO
문화공보부
1968 | 양지
26.3×19.5 | 자체수집
2021 | 아카이브 자료
p.75



067 **한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
漢拏山 天然保護地区資源調査報告書
Report for resource research on Hallasan Mountain Natural Reserve
제주도
1974 | 양지
25.9×19.0 | 자체수집
미상 | 아카이브 자료
p.76



069 **새매**
Eurasian Sparrowhawk
Accipiter nis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7.8 | 자체수집
2012 | 동물조류 1040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78



071 **벌매**
Oriental Honey Buzzard
Pernis ptilorhynch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8.3 | 자체수집
2004 | 동물조류 930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79



073 **소쩍새**
Oriental Scops Owl
Otus suni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22.5 | 자체수집
2007 | 동물조류 975
천연기념물
p.80



075 **원앙(수컷)**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42.8 | 기증
2009 | 동물조류 990
천연기념물
p.81



077 **황조롱이**
Common Kestrel
Falco tinnuncul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9.2 | 자체수집
2007 | 동물조류 970
천연기념물
p.82



079 **팔색조**
Fairy Pitta
Pitta nymph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20.6 | 자체수집
2017 | 동물조류 1146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3



081 **붉은해오라기**
Japanese Night Heron
Gorsachius goisagi
현생 | 박제표본
전장 42.2 | 자체수집
2007 | 동물조류 958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3



083 **산굴뚝나비**
Russian Grayling
Hipparchia autonoe
현생 | 건조표본 | 몸길이 2.1
자체수집 | (좌)2012, (우)1978
동물곤충 11148, 265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p.84



085 **물장군**
Giant Water Bug
Lethocerus deyrollei
현생 | 건조표본
몸길이 6.3 | 자체수집
1987 | 동물곤충 5004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5



087 **왕벚나무**
Oriental Cherry
Prunus yedoensis
현생 | 건조표본
37.9×24.3 | 자체수집
2009 | 관속식물 4488
천연기념물(자생지)
p.86



068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보고서**
漢拏山天然保護區域 學術調査報告書
Report for academic research on Hallasan Mountain Natural Reserve
제주도
1985 | 양지
26.1×19.5 | 자체수집
미상 | 아카이브 자료
p.77



070 **붉은배새매**
Chinese Sparrowhawk
Accipiter soloensi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29.3 | 구입
1981 | 동물조류 15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78



072 **쇠부엉이**
Short-eared Owl
Asio flamme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4.5 | 구입
1981 | 동물조류 100
천연기념물
p.80



074 **큰소쩍새**
Japanese Scops Owl
Otus semitorque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0.5 | 자체수집
2007 | 동물조류 971
천연기념물
p.80



076 **원앙(암컷)**
Mandarin Duck
Aix galericulat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43.1 | 기증
2009 | 동물조류 991
천연기념물
p.81



078 **큰말똥가리**
Upland Buzzard
Buteo hemilasius
현생 | 박제표본
전장 69.9 | 기증
2006 | 동물조류 942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2



080 **긴꼬리딱새**
Black Paradise Flycatcher
Terpsiphone atrocaudata
현생 | 박제표본
전장 39.2 | 기증
1983 | 동물조류 451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3

082 **비바리뱀**
Chinese Many-tooth Snake
Sibynophis chinensis
현생 | 액침표본
몸길이 20.0 | 자체수집
2002 | 동물파충류 40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p.84

084 **두점박이사슴벌레**
Two-spotted Sag Beetle
Prosopocoilus astacoides blanchardi
현생 | 건조표본 | 몸길이 4.4
자체수집 | (좌)2007, (우)2003
동물곤충 9180, 8755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5

086 **애기뿔소똥구리**
Aegibbulsoddongguri
Copris tripartitus
현생 | 건조표본 | 몸길이 1.9
자체수집 | (좌)1978, (우)1980
동물곤충 361, 367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5

088 **만년콩**
East Asian Euchresta
Euchresta japonica
현생 | 건조표본
63.5×22.6 | 자체수집
1994 | 관속식물 3434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p.86



089 **암매**
Pincushion Plant
Diapensia lapponica var. obovata
현생 | 건조표본
7.0×14.5 | 자체수집
1985 | 관속식물 2644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p.87



091 **개가시나무**
Red-bark Oak
Quercus gilva
현생 | 건조표본
23.2×26.5 | 자체수집
1994 | 관속식물 3466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8

093 **두잎약난초**
Two-leaf Cremastra
Aplectrum unguiculatum
현생 | 건조표본
36.5×3.4 | 구입
1981 | 관속식물 146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9



095 **산분꽃나무**
Manchrian Viburnum
Viburnum burejaeticum
현생 | 건조표본
28.1×25.8 | 구입
1983 | 관속식물 1959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0



097 **삼백초**
Asian Lizard's Tail
Saururus chinen
현생 | 건조표본
61.2×20.5 | 자체수집
1994 | 관속식물 3471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1



099 **솔잎난**
Whisk Fern
Psilotum nudum
현생 | 건조표본
27.5×13.1 | 구입
1981 | 관속식물 1031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1



101 **연잎꿩의다리**
Korean Meadow-rue
Thalictrum coreanum
현생 | 건조표본
40.2×19.8 | 구입
1981 | 관속식물 128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2



103 **죽절초**
Glabrous Sarcandra
HerbSarcandra glabra
현생 | 건조표본
48.9×22.2 | 자체수집
1994 | 관속식물 341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3



105 **화살과 화살통**
箭, 箭筒
Arrow and Quiver
조선 | 나무
화살 길이 83.2(17개), 통 길이 92.0
기증 | 1990 | 고고민속 4970
p.97



107 **쇠창**
鐵矛
Iron spear
20세기 | 철
길이 24.3 | 구입
1986 | 고고민속 4031
p.97



109 **탐라장계초**
耽羅狀啓抄
Report to the king of Joseon from Jeju
병와 이형상
1702 | 한지 | 24.0×22.8
구입 | 2016 | 고고민속 10412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p.100, 112, 127, 159, 163



090 **풍란**
Wind Orchid
Neofinetia falcata
현생 | 건조표본
6.5×7.0 | 자체수집
1994 | 관속식물 3496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p.87



092 **대흥란**
Big-rrot Cymbidium
Cymbidium nipponicum
현생 | 건조표본
30.5×2.6 | 자체수집
1999 | 관속식물 3695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8



094 **무주나무**
Japanese Lasianthus
Lasianthus japonicus
현생 | 건조표본
31.3×19.2 | 자체수집
1999 | 관속식물 3699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89



096 **백운란**
Baekun Kuhlhasseltia Orchid
Vexillabium yakusimense var. nakaianum
현생 | 건조표본
(우)12.4×1.5 | 자체수집
1999 | 관속식물 369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0



098 **손바닥난초**
Fragrant Orchid
Gymnadenia conopsea
현생 | 건조표본
17.5×14.8 | 구입
1981 | 관속식물 1410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1



100 **순채**
Watershield
Brasenia schreberi
현생 | 건조표본
61.5×17.5 | 구입
1983 | 관속식물 2062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2



102 **제주고사리삼**
Jeju Grapefern
Mankyua chejuense
현생 | 건조표본
(좌)11.2×6.1 | 자체수집
2004 | 관속식물 4014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3



104 **혹난초**
Barley-like Orchid
Bulbophyllum inconspicuum
현생 | 건조표본
15.9×4.4 | 구입
1981 | 관속식물 1003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p.93



106 **쇠창**
鐵矛
Iron spear
20세기 | 철
길이 21.2 | 구입
1986 | 고고민속 4030
p.97



108 **쇠창**
鐵矛
Iron spear
20세기 | 철
길이 38.6 | 구입
1987 | 고고민속 4325
p.97



110 **사냥개**
狗
Dog
2020 | 박제표본
전장 108.5 | 자체수집
2020 | 고고민속 12446
p.102



111 **총**
銃
Rifle
19세기 | 철
길이 125.8 | 구입
1996 | 고고민속 6367
p.103



113 **테왈**
雪皮
Snow Shoes
20세기 | 나무, 철
지름 26.6(2개) | 구입
1982 | 고고민속 2463
p.103



115 **덫(고레덫)**
捕
Trap
20세기 | 나무
22.2×38.1 | 구입
1983 | 고고민속 2650
p.104



117 **덫(오소리덫)**
捕
Trap
20세기 | 나무, 철
길이 31.1 | 구입
1987 | 고고민속 4337
p.104



119 **지포집**
止浦集
Anthology of Kim Gu's literary works
1801 | 한지
34.1×21.8(2책) | 구입
2017 | 고고민속 10715~10716
p.106



121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71.9 | 구입
1983 | 고고민속 2686
p.117



123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59.9 | 구입
1994 | 고고민속 5758
p.117



125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35.6 | 구입
2013 | 고고민속 10126
p.118



127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61.0 | 구입
2001 | 고고민속 7924
p.119



129 **부쇠(부시)**
燧金
Metal striker used with flint to make fire
20세기 | 철
3.5×9.3 | 기증
1982 | 고고민속 2121
p.120



131 **홰심**
炬
Torch
20세기 | 풀(억새)
(좌)길이 49.5, (우)길이 60.4
구입 | 1992 | 고고민속 5446
p.121



112 **총**
銃
Rifle
19세기 | 철
길이 121.0 | 구입
1996 | 고고민속 6368
p.103



114 **덫(새덫)**
捕
Trap
2000년 이후 | 나무
지름 81.8 | 기증
2017 | 고고민속 10983
p.105



116 **덫(창애)**
捕
Trap
20세기 | 나무, 철
길이 28.7 | 구입
1982 | 고고민속 2074
p.104



118 **덫(새덫)**
捕
Trap
2000년 이후 | 나무
길이 89.5 | 기증
2017 | 고고민속 10985
p.105



120 **영곡유고**
靈谷遺稿
Anthology of Go Deukjong's literary works
1934 | 양지
30.7×20.8 | 구입
2013 | 고고민속 10053
p.108



122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65.7 | 구입
1993 | 고고민속 5559
p.117



124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30.1 | 기증
2013 | 고고민속 10097
p.117

126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46.7 | 기증
1981 | 고고민속 1741
p.119

128 **낙인**
烙印
Branding iron
20세기 | 철
길이 39.9 | 구입
1994 | 고고민속 5756
p.119

130 **부쇠주멩기**
燧金囊
Pouch for a metal striker used with flint to make fire
20세기 | 천
10.4×9.8 | 구입
1983 | 고고민속 2693
p.120

132 **동고랑**
竹籃
Bamboo basket
20세기 | 대나무
9.7×21.5×16.0 | 기증
1981 | 고고민속 1645
p.122



133 **낫(호미)**
鎌
Sickle

20세기 | 철, 나무
길이 27.9, 날 길이 16.2 | 구입
1986 | 고고민속 4109

p.123



134 **장낫**
鐮
Scythe

20세기 | 철, 나무
길이 178.3, 날 길이 43.2 | 구입
1988 | 고고민속 4533

p.123



135 **부그리체**
犂
Ox scratcher

20세기 | 철, 나무
길이 43.9 | 구입
1997 | 고고민속 7005

p.124



136 **글갱이**
犂
Ox scratcher

20세기 | 철, 나무
길이 19.5 | 구입
2009 | 고고민속 9573

p.124



137 **글겅이**
犂
Ox scratcher

20세기 | 철, 나무
길이 25.0 | 구입
1993 | 고고민속 5561

p.124



138 **쇠침**
鍼
Acupuncture tool

조선 | 철, 나무
침 길이 14.6(3개), 통 길이22.5
구입 | 1978 | 고고민속 967

p.124



139 **목장신정절목**
牧場新定節目
Enforcement ordinance on pasture management

은파 삼낙수
1794 | 한지 | 33.7×25.7
기증 | 1988 | 고고민속 455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p.128



140 **웨따비**
步犂
Small plow

20세기 | 나무, 철
길이 123.1, 양주머리 너비 53.6,
날 길이 47.9 | 구입 | 2000
고고민속 7734

p.130



141 **쌍따비**
步犂
Small plow

20세기 | 나무, 철
길이 172.1, 발받침 너비 29.5,
날 길이 39.4 | 구입 | 1981
고고민속 1819

p.130



142 **괭이**
鑺
Hoe

20세기 | 나무, 철
길이 112.5, 날길이 15.8 | 구입
1981 | 고고민속 1600

p.131



143 **쟁기**
犂
Plow

20세기 | 나무, 철
길이 198.5 | 구입
1996 | 고고민속 6701

p.131



144 **귀돋은도고리**
木鉢
Wooden bowl

20세기 | 느티나무
높이 15.9, 지름 43.3 | 구입
1993 | 고고민속 5601

p.132

145 **남박**
木鉢
Wooden bowl

20세기 | 구실잣밤나무
9.6×31.3×24.9 | 기증
2017 | 고고민속 10658

p.133

146 **남박**
木鉢
Wooden bowl

20세기 | 소나무
9.6×23.3×35.5 | 기증
1970 | 고고민속 441

p.133



147 **남방에**
木碓
Wooden mortar

20세기 | 느티나무
높이 42.0, 지름 90.3 | 기증
2007 | 고고민속 9323

p.134



148 **통뒤주**
櫃
Wooden rice chest

20세기 | 상수리나무
지름 98.7, 높이 91.8 | 구입
1986 | 고고민속 4100

p.135



149 **나막신**
屐
Wooden rain shoes

20세기 | 주목
13.5×10.5×30.2(2개) | 기증
1970 | 고고민속 433

p.136



150 **나막신**
屐
Wooden rain shoes

20세기 | 소나무
16.9×10.8×27.5(2개) | 구입
1978 | 고고민속 1205

p.136



151 **나막신**
屐
Wooden rain shoes

20세기 | 먹구슬나무
13.2×10.8×27.5(2개) | 구입
1978 | 고고민속 1206

p.136



152 **빗첩**
櫛匣
Wooden comb case

20세기 | 산벚나무
7.6×13.3×15.6 | 구입
1987 | 고고민속 4244

p.137



153 **책궤**
櫃
Wooden chest

20세기 | 느티나무
24.3×47.2×23.9 | 구입
1978 | 고고민속 1234

p.138



154 **문서궤**
櫃
Wooden chest

20세기 | 느티나무
16.3×49.7×13.4 | 구입
1978 | 고고민속 1235

p.138



155 **양태판**
樣態
Wooden frame to weave Yangtae

20세기 | 산벚나무
지름 56.9 | 구입
1977 | 고고민속 728

p.140



156 **일곱(총모자골)과 골걸이(주개판)**
帽子木
Wooden hat form

20세기 | 산벚나무
높이 42.0 | 구입
1974 | 고고민속 597

p.140



157 **멕**
網袋
Net bag

20세기 | 댕댕이덩굴
32.5×23.2×41.3 | 구입
1988 | 고고민속 4552

p.141



158 **약초가방**
網袋
Stem-woven bag

20세기 | 댕댕이덩굴
24.8×28.4×16.5 | 구입
1978 | 고고민속 999

p.141



159 **구덕**
草籃
Basket

20세기 | 덩굴식물
16.7×27.6×25.5 | 구입
1993 | 고고민속 5587

p.141



160 **골체**
畚箕
Basket for carrying dirt

20세기 | 덩굴식물
26.5×42.0×57.1 | 구입
1981 | 고고민속 1947

p.142



161 **골체**
畚箕
Basket for carrying dirt

20세기 | 덩굴식물
17.3×30.4×36.5 | 구입
1993 | 고고민속 5588

p.142



162 **골체**
畚箕
Basket for carrying dirt

20세기 | 덩굴식물
18.4×37.2×38.0 | 구입
2003 | 고고민속 8658

p.142



163 **어물구덕**
網袋
Stem-woven bag

20세기 | 덩굴식물
36.5×67.4×58.3 | 구입
1983 | 고고민속 2705

p.143



164 **초석**
草席
Straw mat

20세기 | 띠
80.8×160.8 | 구입
1984 | 고고민속 3219

p.144



165 **시장바구니**
網袋
Stem-woven bag

20세기 | 미(억새 속잎)
28.7×35.0 | 구입
1982 | 고고민속 2588

p.144



166 **정당벌립**
草笠
Stem-woven hat

20세기 | 댕댕이덩굴
지름 52.3 | 기증
1978 | 고고민속 2631

p.145

167 **우장**
雨衣
Straw rain cape

20세기 | 띠
길이 114.6 | 구입
1995 | 고고민속 6296

p.145

168 **털벌립**
毛帽子
Fur hat

20세기 | 동물털
높이 11.3, 지름 43.0 | 구입
1979 | 고고민속 1272

p.146



169 **가죽감티**
皮帽子
Leather hat

20세기 | 오소리가죽
34.0×40.0 | 구입
1978 | 고고민속 998

p.146



170 **노루털 보료속**
毛氈
Rug made of deer fur

20세기 | 노루털
82.2×203.0 | 구입
2020 | 고고민속 12471

p.146



171 **가죽두루마기**
皮袍
Leather coat

20세기 | 개가죽
화장 75.0, 등길이 105.0
구입 | 1983 | 고고민속 2683

p.148



172 **가죽버선**
革襪
Leather socks

20세기 | 가죽
길이 27.3, 높이 28.3(2개)
구입 | 1978 | 고고민속 980

p.149

173 **제주향토기**
濟州鄕土記
Jeju local records

양홍식·오태용
1958 | 양지 | 27.4×19.8
기증 | 2012 | 고고민속 9981

p.152

174 **약초칼**
藥草刀
Knife

20세기 | 철, 나무
길이 30.0 | 구입
1981 | 고고민속 1879

p.154

175 **약초괭이**
藥草鑺
Hoe

20세기 | 철, 나무
길이 54.1 | 구입
1983 | 고고민속 2647

p.154

176 **약초괭이**
藥草鑺
Hoe

20세기 | 철, 나무
길이 90.8 | 구입
1982 | 고고민속 2499

p.154



177 **제주도무속자료사전**
濟州島巫俗資料事典
Jeju shamanism dictionary

현용준
1980 | 양지 | 19.2×13.6
기증 | 2019 | 아카이브 자료

p.160



179 **제주도 전설**
濟州島 傳說
Legends of Jeju

현용준
1976 | 양지 | 17.9×10.3
기증 | 2019 | 아카이브 자료

p.169



181 **탐라기년**
耽羅紀年
Book on Jeju history

심재 김석익
1918 | 양지 | 21.9×15.2
구입 | 2000 | 고고민속 7435

p.172



183 **제주 사람들의 삶**
The life of Jeju people

오성찬
1985~1997 | 카세트테이프
6.8×10.9×1.6(521개)
기증 | 1997

p.176



185 **2020년 전화번호부**
2020電話番號簿
Telephone directory, 2020

한국전화번호부
2020 | 양지 | 30.0×21.5
자체수집 | 2020 | 아카이브 자료

p.181



187 **한라산 소주**
漢拏山燒酒
Hallasan Soju

㈜한라산
2021 | 유리 | 높이 20.8(2개)
자체수집 | 2021 | 아카이브 자료

p.183

189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 (일반)**
乘車券
Jeju city bus ticket

제주시시내버스승차권공동관리위원회
2000~2004 | 종이 | 2.6×6.6
기증 | 2019 | 고고민속 12256

p.185



191 **제주도민요연구(상)**
濟州島民謠硏究(上)
Research on Jeju folk songs

김영돈
1965 | 양지
21.0×15.5 | 자체수집
2021 | 아카이브 자료

p.186



193 **제가음영**
諸家吟詠
Anthology of Go Yeongheun's literary works

석호 고영흔
대한제국 | 한지
22.9×13.9 | 구입
2009 | 고고민속 12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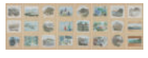
p.192



195 **영주십경**
瀛洲十景
Ten scenic views of Yeongju (old name for Jeju)

박계봉
1990 | 한지에 먹
168.5×443.4(168.5×44.3, 10폭)
기증 | 1990 | 고고민속 4855

p.198



197 **미상**
未詳
Being unknown

가토 쇼린진
1964 | 종이에 수채
186.2×396.0(186.2×49.5, 8폭)
기증 | 2009 | 고고민속 9526

p.202



178 **증보탐라지**
增補耽羅誌
Supplement to a book on the geography of Tamna

담수계
1953 | 양지 | 26.0×19.1
기증 | 1981 | 고고민속 2020

p.166, 215, 217



180 **남국의 무가**
南國巫歌
Shamanic songs of the southern land(Jeju)

진성기
1968 | 양지 | 25.0×15.8
기증 | 2018 | 고고민속 11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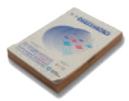
p.170



182 **한라의 통곡소리**
Wail of Halla (testimony of the April 3 Incident)

오성찬
1989 | 양지 | 22.5×15.5
기증 | 2021 | 아카이브 자료

p.175



184 **1992년 전화번호부**
1992電話番號簿
Telephone directory, 1992

한국통신 제주사업본부
1992 | 양지 | 30.0×21.0
기증 | 2020 | 아카이브 자료

p.181



186 **한라일보 창간호**
漢拏日報 創刊號
First issue of the Halla Ilbo newspaper

㈜한라일보사
1989 | 양지 | 55.0×39.5
자체수집 | 2021 | 아카이브 자료

p.182



188 **도민증**
道民證
Resident ID card

1954 | 양지
9.5×13.0 | 기증
1997 | 고고민속 6922

p.184



190 **제주시 시내버스승차권 (중고생)**
乘車券
Jeju city bus ticket

제주시시내버스승차권공동관리위원회
2000~2004 | 종이 | 2.6×6.6
기증 | 2019 | 고고민속 12257

p.185



192 **탐라록**
耽羅錄
Anthology of Lee Hyeongsang's literary works

병와 이형상
1703 | 한지
29.7×20.9 | 구입
2018 | 고고민속 11610

p.188



194 **영주십경**
瀛洲十景
Ten scenic views of Yeongju (old name for Jeju)

현중화
1983 | 한지에 먹
196.0×599.0(196.0×59.9, 10폭)
기증 | 1983 | 고고민속 3162

p.196



196 **영주승경(영주십이경)**
瀛洲勝景
Twelve scenic views of Yeongju (old name for Jeju)

안광석
1982 | 돌에 각인
11.0×3.6×3.7(14점) | 기증
1982 | 고고민속 2103~2116

p.200



198 **제주의 들**
濟州野
Fields of Jeju by Kim Wongu

김원구
2005 | 캔버스에 유채
58.0×92.1 | 기증
2006 | 고고민속 9038

p.204



199 **우리아기 재와줍서**
Please put my baby to sleep by Lee Seunghyeon

이승현
2019 | 캔버스에 유채
42.7×85.0 | 기증
2020 | 고고민속 12399

p.205



201 **미상**
未詳
Being unknown

강태석
1960 초 | 종이, 연필
39.5×27.2 | 기증
1996 | 고고민속 6639

p.208



203 **한라산**
漢拏山
Halla Mountain by Kang Taeseok

강태석
1965 전후 | 종이, 크레용
12.6×18.8 | 기증
1996 | 고고민속 6600

p.209



205 **像**
像
Image by Kang Taeseok

강태석
1968 | 종이, 크레용, 수채
19.0×27.3 | 기증
1996 | 고고민속 6538

p.211



207 **등산 像**
登山 像
Hiking image by Kang Taeseok

강태석
1965 | 종이, 유채
17.6×17.6 | 기증
1996 | 고고민속 6559

p.212



209 **傳說**
傳說
Legend by Kang Taeseok

강태석
1970 | 종이, 유채, 크레용, 수채
39.5×27.4 | 기증
1996 | 고고민속 12569

p.213



211 **제주안내도**
濟州案內圖
Guide map of Jeju

제주도관광안내소
1950년대 | 양지
38.7×54.2 | 구입
2013 | 고고민속 1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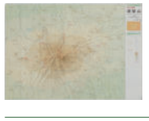
p.219



213 **등산가이드**
登山案內
Climbing guidebook

김용성
1970 | 종이
14.6×10.5 | 기증
2000 | 기타산악 350

p.221



215 **한라산 등산지도**
漢拏山登山地圖
Map for climbing Halla Mountain

이우형
1980 | 종이
18.9×11.4 | 기증
2000 | 기타산악 351

p.223



217 **모직남방**
毛織上衣
Wool shirt

1977 | 천
길이 75.9, 품 49.3 | 기증
1981 | 기타산악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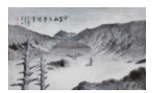
p.225



219 **훈장증**
勳章證
Certificate of merit

1977 | 종이
29.3×40.5 | 기증
2000 | 기타산악 459

p.226



200 **녹담만설**
鹿潭晩雪
Snow at Baengnokdam crater by An Heungchan

안흥찬
2013 | 캔버스에 먹
96.7×162.0 | 구입
2013 | 고고민속 10013

p.206



202 **드로잉**
素描
Drawing by Kang Taeseok

강태석
1968 | 종이, 먹, 펜
21.9×34.8 | 기증
1996 | 고고민속 6452

p.209



204 **산 說話**
山 說話
Mountain folktales by Kang Taeseok

강태석
1973 | 종이, 유채
27.3×39.0 | 기증
1996 | 고고민속 6453

p.210



206 **像**
像
Image by Kang Taeseok

강태석
1968 | 종이, 유채
13.5×27.2 | 기증
1996 | 고고민속 6544

p.211



208 **像 아가씨, 사슴, 초가집**
像, 女子, 鹿, 草家
Image of a young lady, deer and a thatched cottage

강태석
1975 전후 | 종이, 수채, 먹, 펜
19.7×13.7 | 기증
1996 | 고고민속 6493

p.212



210 **우편엽서**
郵便葉書
CARTE POSTALE

일제강점기 | 종이
9.0×14.0(5점) | 구입
2021 | 아카이브 자료

p.218



212 **제주도명승안내사진첩**
濟州島名勝案內寫眞帖
Che Ju Provincial Tour Guidance Book

라이카사
1959 | 양지
19.5×13.0 | 구입
2012 | 고고민속 9950

p.220

214 **등산코오스안내집**
登山路案內集
Guidebook for climbing routes

교진사 편집부
1971 | 종이
23.0×16.9 | 기증
2000 | 기타산악 324

p.222

216 **티셔츠**
上衣
T-shirt

1977 | 천
기장 65.7×84.0 | 기증
1981 | 기타산악 12

p.224

218 **한국일보기**
韓國日報旗
Flag of the Hankook Ilbo newspaper

1977 | 천
31.0×44.0 | 기증
1981 | 기타산악 310

p.226

220 **정상돌**
頂上石
Stone brought from the top of the Himalayas

1977 | 돌
10.9×16.3×12.0 | 기증
1981 | 기타산악 312

p.227

참고문헌

1. 단행본

강만익, 『한라산의 목축생활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2017
고광민, 『제주 생활사』, 도서출판 한그루, 2016
김동섭, 『제주도 전래 농기구』, 민속원, 2004
김동전·강만익, 『제주지역 목장사와 목축문화』,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김석익, 홍기표 외 역, 『역주 탐라기년』, 제주문화원, 2015
남구명, 김영길 역, 『국역 우암선생문집』, 제주교육박물관, 2010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1
담수계, 역주증보탐라지 편찬위원회 역,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사단법인 고상돈기념사업회, 『정상의 사나이 고상돈』, 도서출판 각, 2008
오문복, 『영주십경 시집』, 도서출판 제주문화, 2004
이원조, 백규상 역, 『역주 탐라록(상)』, 제주문화원, 2016
이원조, 백규상 역, 『역주 탐라록(중)』, 제주문화원, 2017
이즈미 세이치, 김종철 역, 『제주도』, 여름언덕, 2014
이형상, 김익수 역, 『탐라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20
이형상, 김익수 역, 『탐라장계초』,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21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 『남환박물』,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9
제주도·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한라산 총서』, 도서출판 각, 2006

2. 도록·보고서

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에서 세계를 보다 제주고지도』, 2020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말테우리』, 2015
국립제주박물관, 『한라산』, 2013

3. 논문

고순희·장현주, 「제주 전통 모피·피혁류 복식에 나타난 특성 분석」, 『한국디자인포럼』 42(0),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04
고윤정·오상학, 「조선시대 유산기에 나타난 한라산 등람배경과 관행」, 『제주도연구』 56, 사단법인 제주학회, 2021
구지현, 「병와(甁窩) 이형상(李衡祥)의 지리지 『북설습령(北屑拾零)』의 저술 배경과 특징」, 『연민학지』 35, 연민학회, 2021
김호, 「조선시대 제주의 주변성과 의료」, 『한국학연구』 59,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20
송지원, 「조선시대 별에 대한 제사, 靈星祭와 老人星祭 연구」, 『규장각』 3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7
오상학, 「조선시대 한라산의 인식과 그 표현」, 『국토지리학회지』 40(1), 국토지리학회, 2006
이창숙·여성희·정소연,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제주도 전통식물의 통시적 연구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을 중심으로」, 『한국자원식물학회지』 29(2), 한국자원식물학회, 2016
이현정, 「제주 노인성(老人星)에 대한 전승과 인식」,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 국제어문학회, 2019
정종우·정소연,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제주도 동물의 통시적 연구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탐라지≫, ≪남환박물≫, ≪제주계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50(50),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진관훈, 「제주도 화전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제주도사연구』 12, 제주도사연구회, 2003
최원석, 「지리산과 한라산 명산문화 요소의 역사지리적 특징 비교 고찰」, 『남명학연구』 42(0), 남명학회, 2014

4. 누리집

한국민속문학사전, https://folkency.nfm.go.kr/kr/dic/4/summary
한국민속신앙사전, https://folkency.nfm.go.kr/kr/dic/3/topic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해시태그 한라산’ 특별전

전 시 명 | 민속자연사박물관 제147회 특별전 ‘해시태그 한라산’
전시기간 | 2021. 11. 19.(금) ~ 2022. 4. 24.(일)
전시장소 | 민속자연사박물관 수눌음관 특별전시실

전시서문

‘해시태그’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 태그로, ‘#’ 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대한 자료를 모아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태그가 붙은 메시지들은 동일한 해시태그와 함께 검색이 가능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SNS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근에는 포털이 아닌 해시태그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는 일도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라산만큼 제주를 대표하는 소재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라산이 제주에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형성 과정에서부터 식생 분포, 그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랜 기간 동안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널리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학문 영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개되면서 한라산이 가진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한라산’은 공유와 소통을 상징하는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한라산이 가진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특히 37년의 역사 속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수집해 온 소장품 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제주의 자연, 역사, 민속, 예술,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되어 있는 한라산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라산과 박물관 소장품의 가치가 널리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한라산의탄생




제2장
#한라산의생명



제3장
#한라산생활사

과거 한라산은 제주인의 생활 무대이자 삶을 영위토록 하는 생명의 근원이었다. 한라산에서 채집한 동식물은 의식주 생활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쓰였고, 고려시대 이후 중산간 지대에 설치된 국영목장에서 생산한 말과 소는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진상품이었다. 한편 19세기 이후부터 폐장된 목장을 이용한 경작이 활발해지는데,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조, 콩 등 식량을 생산하는 마을(화전동)이 형성되기도 한다.

#사냥문화 #목축문화 #국영목장
#테우리 #경작문화 #공예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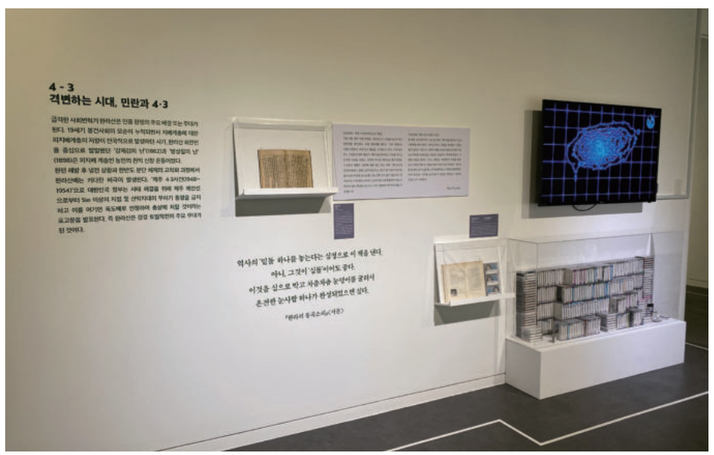


4 - 1
무병장수에 대한 바람, 불사초와 노인성

조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 먼 바다를 건너야만 도착할 수 있었던 제주도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도 중앙에 가장 높이 솟아 5철까지 눈이 녹지 않는 산, 시시때때로 구름에 가려진 산인 한라산은 그 신비감을 극대화하는 최적지였다. 이에 한라산은 선인(仙人)이 살고 불사(不死)의 약이 있다는 영주산(瀛洲山)에 비정되기에 이르고, 국가와 개인의 안녕을 관장하는 노인성이 오직 한라산에서만 관측가능하다는 인식까지 결부되게 된다.








제5장
#한라산의오늘
오늘날 우리는 한라산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 제주도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한라산을 조망할 수 있는 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한라산과 마주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기준으로 위치와 방향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 '한라'라는 이름이 포함된 기관을 접하고, 한라산을 표현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일도 있다. 나아가 5·16도로와 1100도로 등 각종 도로를 통해 한라산을 통과하거나, 직접 한라산을 탐방하기도 한다. 이렇듯 한라산은 현재의 우리 삶 속에 일상적이면서도 깊게 스며들어 있다.
#산남 #산북 #한라산민요 #한라산시문 #한라산그림 #한라산등산 #한라산관광
5 - 2 문화예술 속 한라산
제주도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한라산은 도내 19개 행정동과 행정리 가운데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단 2곳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조망할 수 있는 산이다. 이처럼 누구나 공감하고 감상할 수 있었던 한라산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고된 일상 속 삶을 위로하거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할 때, 시문과 그림을 통해 예술적 표현 욕구를 발현시키고자 할 때 활용된 주요 소재였다.
한라산과 영주십경
5-2
제5장

발 행 인 노정래
기획총괄 박용범
원고·편집 황이새
학예지원 김완병, 백지현, 김범수, 부슬기든
유물조사 김태화, 이기운
조사보조 강근민, 이성용, 이소현
외부원고 김찬수, 임재영
유물자문 양승필
자료협조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도립미술관(문화예술공공수장고), 한국국학진흥원
번 역 한영숙(뉴브리지번역서비스)
사 진 김병국(김병국사진연구실)
전시연출 와이아트
디 자 인 사가각하우스
인 쇄 아트가

발 행 일 2021년 12월 27일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성로 40
TEL. (064)710-7708 / FAX. (064)710-7709
http://museum.jeju.go.kr

I S B N 979-11-87075-14-1 93060
발간등록번호 79-6500450-000043-01

Copyright © 202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All right reserv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수록된 내용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